

기본연구
2010-06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

조영재 · 장동호 · 윤진옥 · 박지혜

기본연구
2010-06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40-3 03350

기본연구 2010-06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

조영재 · 장동호 · 윤진옥 · 박지혜

발 간 사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적 요소와 농업·농촌적 요소가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혼재(混在), 거주자 측면에서 혼주(混住)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70~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지역의 확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적 역동성과 농업·농촌적 잠재자원이 공존하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닌 정체성의 모호함 속에 각종 정책수립이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도시 확산을 수용하기 위한 무계획적인 난개발의 진행, 경관의 훼손, 기존 주민(농업·농촌적 생활자)과 신규 주민(도시적 생활자)의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제를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는 최근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권 중에서도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결과가 갖는 시의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인문·사회적 환경, 토지이용, 공간구조 등 물리적 환경 등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함께 실제 혼재·혼주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근교 농촌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위하여 애써 주신 공주대학교의 장동호 교수, (주)생태공간 경관연구소의 윤진옥 소장,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영재 박사와 박지혜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1. 연구개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전통문화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에서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이 혼재(混在)되고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混住)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혼재·혼주의 현상이 대도시 근교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즉,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의 혼재에 따라 토지이용 및 경관형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 함으로서 영농활동의 약화, 농촌공동체의 붕괴,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커뮤니티 갈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각종 개발정책에서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갖는 잠재력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혼주화의 진행과 함께 토지이용 및 경관의 혼란, 난개발,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권 중 아산시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변화 동향과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충남 농촌지역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시를 사례로하여 인구의 변화, 농가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 토지이용 변화, 공간구조 변화로 나누어 읍면 또는 행정리를 수준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읍면수준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유형Ⅰ(도농 복합지역), 유형Ⅱ(도시화 지역), 유형Ⅲ(농촌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유형Ⅰ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8,985명, 인구밀도 210.95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0.65%, 농가인구비율 31.73%, 농가인구 증감률 -3.49%로 읍면 지역의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유형Ⅱ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18,748명, 인구밀도 479.29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2.04%, 농가인구비율 14.60%, 농가인구 증감률 -3.74%로 급격하게 인구가 성장하는 반면 농업인력 등의 농촌기반이 쇠퇴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읍면의 공통점은 아산 중심시가지 주변지역 또는 천안·아산 연담도시지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거나, 아산신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도시성장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형Ⅲ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4,528명, 인구밀도 93.96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2.17%, 농가인구비율 52.16%, 농가인구 증감률 -3.92%로 인구규모가 적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인력 등의 농촌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법정리 수준에서의 변화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6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1은 인구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인구 및 인구밀도가 해당되며, 요인2는 산림 및 농경지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산림면적, 농경지면적이 해당된다. 요인3은 산림 및 농경지 변화에 관한 요인으로 산림면적 증감, 농경지면적 증감이 해당되며, 요인4는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인공구조물 비율, 인공구조물 면적 증감, 중심성, 국부접근성이 해당된다. 그리고 요인5는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요인으로 중심성 증감과 국부접근성 증감이 해당되며, 요인6은 전체접근성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전체접근성, 전체접근성 증감이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4개씩의

유형(군집)을 설정하였으며, 도시적 유형에 가까울수록 유형 I 로, 농촌적 유형에 가까울수록 유형Ⅳ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15개 리를 대상으로 실제 개발 및 경관실태, 도시적 요소와 농업·농촌적 요소의 혼재(混在) 실태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공간개발의 현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농촌공간에 개발 및 도시화를 통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상업시설이 입지한 유형, 농촌공간에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이 입지한 유형,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상업시설 등 거점공간을 갖는 유형,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순수한 농업·농촌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①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한 개발 진행, ② 무분별한 상업시설의 입지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 ③ 공장 등 무분별한 산업시설의 난립, ④ 이질적인 경관요소의 부조화, ⑤ 기존 농촌마을의 노후화 및 특색 없는 경관형성, ⑥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전통 농촌커뮤니티의 붕괴를 도출하였다.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및 친환경 개발방식으로의 전환, 농촌경관 관리기준 강화 및 적극적인 경관개선 프로그램 마련, 지역정체성 확립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가치 및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등 물리적·인문·사회적 환경부문에 관한 4가지의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발생하는 문제점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세한 현장중심의 연구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금후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주요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범위	5

제2장 이론적 고찰

1.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개념	7
1) 도시지역구조 관련 이론	7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정의	8
3)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유형	10
2. 선행연구 검토	12
1)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12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 종합	17

제3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

1. 조사개요	20
1) 조사내용 및 방법	20
2) 조사 대상지의 개황	22
2. 인구변화	27
3. 농가인구 및 농가수 변화	35
1) 농가인구	35

2) 농가수 및 전·겸업 농가	39
4. 토지이용 변화	48
1) 개황	48
2) 산림	50
3) 농경지	53
4) 도시 및 인공구조물	56
5. 공간구조 변화	61
6. 종합고찰	71
1) 읍면 수준의 변화 동향	71
2) 법정리 수준의 변화 동향	74

제4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환경 실태

1. 조사개요	81
1) 조사 대상지역	81
2) 조사 내용 및 방법	83
3) 설문 응답자 구성	84
2. 물리적 환경 실태	85
1) 공간개발	85
2) 경관	91
3) 주거환경	98
3. 인문·사회적 환경 실태	101
1) 인구 및 주민커뮤니티	101
2) 농업 및 경제활동	104

제5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 및 계획과제

1. 도시근교 농촌지역 실태종합 및 문제점	107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계획과제	113
1) 물리적 환경부문의 계획과제	113
2) 인문·사회적 환경부문의 계획과제	116

제6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118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1) 연구의 의의	120
2) 연구의 한계	120

참고문헌	121
------------	-----

부 록	123
--------------	-----

표 차 례

표2-1 선행연구의 종합	19
표3-1 도시근교 농촌지역 변화 동향에 관한 조사 내용 및 방법	21
표3-2 아산시 주요 연혁(근·현대)	23
표3-3 아산시 도시계획 연혁	24
표3-4 아산시 주요 도시개발사업 현황	25
표3-5 아산시 연평균 인구증감률	27
표3-6 아산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28
표3-7 아산시 읍·면·동별 농가인구변화	37
표3-8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전업 및 겸업 농가수 변화	40
표3-9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전업 및 겸업 농가수 비율*	41
표3-10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이 읍면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농가구성	44
표3-11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높지만, 전업농가비율은 낮은 지역의 농가구성	45
표3-12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낮지만, 전업농가비율이 높은 유형의 농가구성	46
표3-13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 모두 읍면부 평균보다 낮은 유형의 농가구성	47
표3-14 아산시 토지이용변화(1982~2009)	48
표3-15 아산시 읍면동별 산림 면적 변화(1982~2009)	50
표3-16 아산시 산림변화 유형	52
표3-17 아산시 읍면동별 농경지 면적 변화(1982~2009)	53
표3-18 아산시 농경지 변화 유형	55
표3-19 아산시 읍면동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변화(1982~2009)	56
표3-20 아산시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변화(1977~2009)	61
표3-21 아산시 리별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유형	63
표3-22 아산시 전체접근성(전체통합도, Glob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64
표3-23 아산시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66
표3-24 아산시 리별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유형	68
표3-25 아산시 읍면지역의 유형구분	71
표3-26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74
표3-27 아산시 법정리지역 인구관련 유형구분	75
표3-28 아산시 법정리지역 산림 및 농경지 면적 비율 관련 유형구분	76
표3-29 아산시 법정리지역 산림 및 농경지 변화 관련 유형구분	77

표3-30 아산시 도시화 및 공간구조 관련 유형구분	78
표3-31 아산시 법정리지역 공간구조 변화 관련 유형구분	79
표3-32 아산시 법정리지역 전체접근성 관련 유형구분	80
표4-1 인구 및 도시화 관련 유형구분	81
표4-2 조사 대상지역 선정 결과	82
표4-3 조사 내용 및 방법	83
표4-4 설문 응답자 구성	84
표4-5 조사대상지역의 농경지 면적 변화	88
표4-6 조사대상지역의 산림 면적 변화	88
표4-7 거주 지역(마을)의 성격	89
표4-8 과거 10년 동안의 개발정도	89
표4-9 현재까지의 개발방식	89
표4-10 지역(마을)개발수준에 대한 만족도	91
표4-11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91
표4-12 향후 바람직한 개발진행 방향	91
표4-13 농촌경관의 유형 및 요소	92
표4-14 주택의 유형	99
표4-1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99
표4-16 주거환경 불만족의 이유	100
표4-17 조사대상지역의 최근 인구 변화	101
표4-18 전입인구의 변화	102
표4-19 주민 · 이웃간의 관계	102
표4-20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관계	103
표4-21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 원인	103
표4-22 주된 소득원	104
표4-23 직업구성비율의 변화	105
표4-24 전입인구의 직업	105
표4-25 토지(농경지) 소유관계의 변화	106
표4-26 장래 바람직한 경제활동 형태	106
표5-1 친환경 계획기법 예시	114

그림차례

그림1-2 연구 흐름도	6
그림2-1 동심원이론의 구조	7
그림2-2 선형이론의 구조	8
그림2-3 다핵심이론의 구조	8
그림 2-4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공간구성	9
그림 2-5 도시주변지역의 공간구조모형도	11
그림 3-1 연구 대상지(아산시)의 위치	22
그림 3-2 아산시 도시계획구역 및 주요 개발사업 현황	26
그림 3-3 아산시 인구 변화(1970년~2010년)	27
그림 3-4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인구 변화	28
그림 3-5 아산시 읍·면별 인구 변화(1970, 2010)	29
그림 3-6 아산시 동 및 읍·면별 연평균 인구증감률(1970-2010)	29
그림 3-7 지속적인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는 읍면(배방읍)	30
그림 3-8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읍면	31
그림 3-9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이후 일정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읍면	33
그림 3-10 아산시 리별 인구 및 인구밀도(2008)	33
그림 3-11 아산시 법정리별 최근 인구 연평균 증감률(2003-2008)	34
그림 3-12 아산시 총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1970~2005)	35
그림 3-13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농가인구 변화	36
그림 3-14 아산시 읍·면별 농가인구(1970, 2005)	38
그림 3-15 아산시 읍·면별 농가인구비율(1970, 2005)	38
그림 3-16 아산시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 수 변화	39
그림 3-17 아산시 읍·면별 농가비율(1970, 2005)	42
그림 3-18 아산시 읍·면별 전업농가비율(1970, 2005)	42
그림 3-19 아산시 농가형태에 따른 읍·면별 유형	47
그림 3-20 아산시 토지이용변화(1982~2009)	49
그림 3-21 아산시 산림지역 변화(1982~2009)	51
그림 3-22 아산시 농경지 변화(1982~2009)	54
그림 3-23 아산시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변화(1982~2009)	57

그림 3-24 아산시 리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 및 증가면적('09-'82)	59
그림 3-25 아산시 리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변화 유형	60
그림 3-26 아산시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변화(1977~2009)	62
그림 3-27 아산시 전체접근성(전체통합도, Glob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65
그림 3-28 아산시 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67
그림 3-29 아산시 리별 공간구조 유형	70
그림 3-30 아산시 읍면지역 유형구분	73

그림 4-1 조사 대상지역 위치도	82
그림 4-2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 유형 : 배방읍 북수리, 신창면 행목리)	85
그림 4-3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I 유형 : 탕정면 호산리, 인주면 갈매리)	86
그림 4-4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II 유형 : 배방읍 갈매리)	86
그림 4-5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V 유형 : 송악면 역촌리, 영인면 구성리)	87
그림 4-6 농촌지역에 들어선 개별공장의 모습	90
그림 4-7 배방읍 북수리 경관현황	92
그림 4-8 음봉면 덕지리 경관현황	93
그림 4-9 신창면 행목리 경관현황	93
그림 4-10 염치읍 송곡리 경관현황	94
그림 4-11 탕정면 호산리 경관현황	94
그림 4-12 염치읍 송곡리 경관현황	95
그림 4-13 인주면 갈매리 경관현황	95
그림 4-14 배방읍 갈매리 경관현황	96
그림 4-15 송악면 역촌리 경관현황	96
그림 4-16 영인면 구성리 경관현황	97
그림 4-17 선장면 신동리 경관현황	97
그림 4-18 도고면 신언리 경관현황	98
그림 4-19 아파트와 대조를 이루는 농가주택(신창면 남성리, 탕정면 호산리)	100

그림 5-1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해 입지한 공장 및 아파트단지	108
그림 5-2 무분별하게 조성된 상업시설 및 쇠퇴한 기성시가지	109
그림 5-3 농촌지역에 입지한 산업시설	109
그림 5-4 농촌지역에 조성된 아파트	110
그림 5-5 현대식 주택과 노후화된 주택의 혼재 모습	111
그림 5-6 특성이 없이 조성된 공공시설물	11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전통문화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에서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이 혼재(混在)되고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混住)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혼재·혼주의 현상이 대도시 근교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즉,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의 혼재에 따라 토지이용 및 경관형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 함으로서 영농활동의 약화, 농촌공동체의 붕괴,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커뮤니티 갈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각종 개발정책에서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갖는 잠재력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혼재·혼주화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진행되었으며,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일본건축학회를 비롯하여 농촌계획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혼재·혼주지역을 공생적인 새로운 생활의 장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및 디자인 수법에 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라 세 아키라(村瀬章)는 그의 연구에서 “...토지이용을 포함하여 일정한 지역공간에 농촌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가 안정적으로 공존하여 지역사회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전개되는 생활양식은 농촌생활양식과 도시생활양식에 이어지는 제3의 생활양식으로 위치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관련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의 도시적 편리성과 농촌적인 쾌적함이 조화된 공생적인 생활양식의 사회·공간으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혼재·혼주의 무질서한 공간에서 도농이 상생(相生)하고 공생(共生)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혼주화의 진행과 함께 토지이용 및 경관의 혼란, 난개발,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도시와·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권 중 아산시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변화 동향과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충남 농촌지역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 토지이용, 공간구조 등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변화 동향 및 특징을 제시한다.

둘째,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 실태(공간개발, 경관, 주거환경 등) 및 인문·사회적 환경 실태(인구, 주민커뮤니티, 농업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를 조사하여 혼재·혼주의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주된 연구내용으로서 ①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②충청남도의 농촌개발 추진실태 조사·분석, ③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④충청남도 농촌개발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행연구 검토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정의 및 유형구분에 관한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정의, 유형구분 등)을 정립하고,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나 농업활동의 변화, 토지이용 및 경관의 변화, 인문·사회적 실태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고찰한다.

②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조사·분석
시계열 공간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있어 인구, 농가인구, 농가수 및 전·겸업농가, 비도시적 용도(임야, 농지 등)와 도시적 용도(대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등 토지이용의 변화, 공간의 중심성 및 접근성 등의 공간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하여, 변화동향 및 특성을 분석한다.

③ 조사대상지역의 선정과 물리적 환경 및 인문·사회적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
인구 및 인구밀도, 도시화 및 공간구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서의 혼재(混在)·혼주(混住) 성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개발, 경관, 주거환경 등 물리적 환경과 인구, 주민커뮤니티, 농업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 인문·사회적 환경의 관한 혼재(混在)·혼주(混住)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④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 및 계획과제 도출

이상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계획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① 통계자료를 활용한 인구 및 농가인구, 농가수 등의 변화 동향 분석

1970년대 ~ 2000년대까지의 인구 및 농가인구, 농가수 및 전·겸업농가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변화 동향 분석

② 인공위성영상의 토지피복분류를 통한 토지이용변화 분석

1970년대 ~ 2000년대까지의 인공위성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인공구조물 등의 시계열적 변화 동향 분석

③ 지형도 및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한 공간구조 변화 분석

1970년대~2000년대까지의 지형도, 수치지도 등의 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구조의 특징이나 위상관계를 분석하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중심성, 접근성 등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

③ 현장조사, 설문 및 인터뷰조사, 통계자료를 통한 물리적·인문·사회적 실태 분석

공간개발, 경관, 주거환경 등 물리적 환경에 관한 공간적 혼재(混在)실태는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고, 인구, 주민커뮤니티, 농업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 인문·사회적 혼주(混住)실태는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한다.

④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 분석, 경관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등은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충청남도 북부권 중 아산시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구역상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연구 사례지역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읍·면 행정구역 단위 또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분석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시계열 분석의 경우,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를 범위로 하고, 그 외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의 경우는 현재 모습과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의 변화 분석, 물리적·인문·사회적 실태 분석을 내용적 범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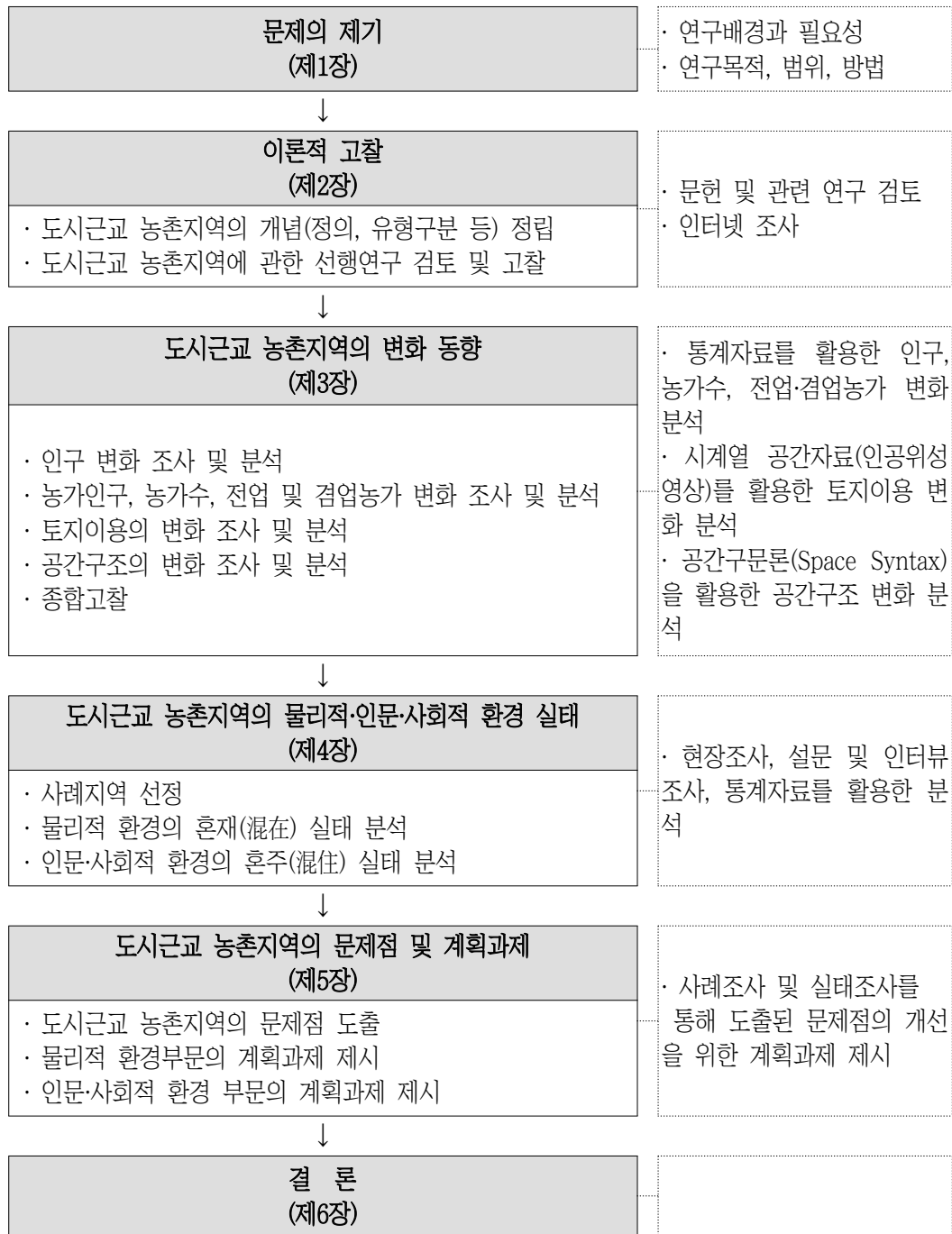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1.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개념

1) 도시지역구조 관련 이론

(1)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

도시의 공간구조를 맨 가운데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지대, 근로자주택지대, 중산층주택지대, 통근자지대를 형성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이론의 기본적 특성은 인간 중심의 생태학적 침입과 천이라는 속성을 인정하면서 그 도시의 구성인구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이질성이 크다는 점과 도시경제가 주로 상업과 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본격적인 중공업의 집중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몇 가지를 전제하여 중심업무지대를 벗어나면 주택의 슬럼화와 더불어 업무 및 경공업 기능이 침입하는 점이지대가 생기고, 그 외곽에서부터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의 주택지대가 생긴다. 이들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부도심 또는 신시가지나 신도시로 불리는 중산층주택지대가 나타나고 맨 외곽에 통근자지대인 위성도시가 있게 된다.



그림 2-1 동심원이론의 구조

(2)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

버제스와 달리 가운데 CBD가 있고, 그 후 도매경공업지구가 일정한 도로의 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또 다른 교통로를 따라 저급주택지구와 중급, 고급주택지구가 개별적으로 뻗어나가며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이론의 특징은 먼저 주거지 토지 이용만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으며, 지대의 지불능력별로 고급, 중급, 저급 주택지가 각각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주택지의 계층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고급주택지는 도로나 교통섹터 외에도 호수나 강 등을 따라 뻗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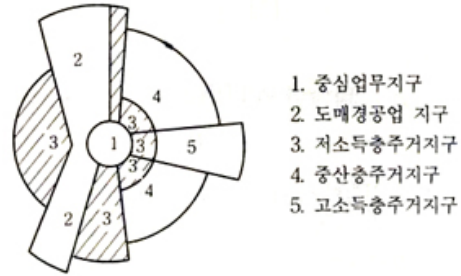


그림 2-2 선형이론의 구조

(3) 해리스 울만(Harris-Ulman)의 다핵심이론

다핵심이론은 많은 도시에 있어서 토지이용패턴이 단일 핵심의 주변에서가 아니라 여러개의 서로 떨어진 핵심들의 주변에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이들이 도시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유형에는 중심업무지구 CBD가 있고, 도매 및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주택지구, 소핵심지구, 교외와 위성도시 등이다. 이들 핵심지들은 도시가 커지면 그 수가 많아지고 전문화한다고 하는데 런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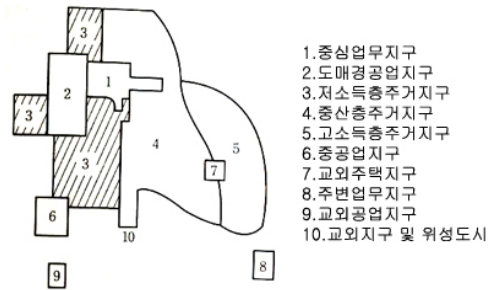


그림 2-3 다핵심이론의 구조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정의

도시근교지역은 교외(suburb)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어떤 도시에서 시가지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외연부(外緣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가지에서 약간 떨어진 주택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R. J. Pryor(1968)는 도시근교지역을 중심 도시에 연접해 있으면서 거주·공업·상업지역으로의 도시화 양상은 뚜렷한데 반해 농업적 토지이용은 아주 미약한 지역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순도시지역과 순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도농경계지역(rural-urban fringe)이라고 정의하였다.

Tom Daniels(2006)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도농경계지역(rural-urban fringe)이라는 용어와 함께 대도시권 외변지역(metropolitan fringe)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원격지역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 도시나 교외지역보다는 인구밀도와 개발밀도가 더 낮은 혼성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외변지역은 대도시권지역에 속한 지리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올라가는 개발 계층구조의 한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외변지역은 교외지역보다 중심도시로부터 더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더 약하고 인구밀도가 더 낮다는 점, 오픈스페이스 사이에 개발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점, 토지이용계획이 덜 정교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교외지역과 구분되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외변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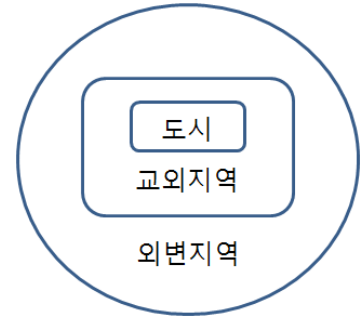


그림 2-4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공간구성

- ① 인구 5만 명 이상인 주요 도시 중심지로부터 10~50마일 떨어진 곳이나 인구 5만 명 이상인 도시로부터 5~30마일 떨어진 곳
 - ②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시간이 25분 이상인 곳
 - ③ 단위정화체계 또는 개인 우물이 있는 곳
 - ④ 공동체의 인구밀도가 평방마일당 500명 이하인 곳
 - ⑤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과 최근 10년 동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혼주된 곳
 - ⑥ 선출직 공무원과 이웃들이 인구성장, 재산세,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비용을 자주 이야기하는 곳
 - ⑦ 1년에 15,000마일 이상 운전하는 곳
 - ⑧ 농업과 임업이 지역이 사양산업이 되는 곳
-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농촌사회학자 C. J. Galpin(1915)은 도시근교의 작은 농촌마을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농민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어번(urban)’과 ‘루럴(rural)’의 합성어로 ‘러번(rurb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본건축학회(2007)에서는 도시적 환경과 농업적 자연환경의 혼재(混在)되고, 도시적 생활자와 농업적 생활자(농업인)가 혼주(混住)되어 있는 지역을 ‘러번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혼재·혼주지역은 모습은 도

시주변지역, 농촌과 같이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 인구집중지구)¹⁾를 갖지 않는 지역이라도 토지이용 밀도가 비교적 높은 마을이나 그 주변부, 대도시 내에 농지나 녹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러번지역을 도시나 농촌이라는 일반적인 분류나 DID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혼재·혼주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건축학회의 '러번지역'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도시적 환경과 농업적 자연환경이 혼재(混在)되고, 도시적 생활자와 농업적 생활자(농업인)가 혼주(混住)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근교 농촌지역'이라고 정의한다.

3)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유형

C. R. Bryant 등(1982)은 도시주변지역을 세분화하여 내측주변지역(inner fringe), 외측주변지역(outer region) 등으로 정의한 공간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측주변지역은 도시에 가까운 지역으로 도시 지향적 계기능과 도시용 도로의 토지전용이 명백하게 전개되는 지역이며, 외측주변지역은 내측주변지역의 바깥쪽 지역으로 경관상 농촌적 토지이용 양상이 나타나지만 도시지향적 제요소의 침입충진(infiltration)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 도시주변부에서는 폐차장, 오물처리장 등을 위시해서, 투기성의 공한지, 옥외녹지공간,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이용양상과 함께 주택, 공장, 오피스 등이 중심도시로부터 이전해와서 입지한다고 한다.²⁾

일본건축학회(2007)에서는 DID의 크기(유무를 포함) 및 DID와 러번지역의 위치관계를 감안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크게 도시주변형, 중심지일체형, 도시내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① 도시주변형

큰 인구와 면적을 갖는 DID의 녹지주변부 및 그 주변부의 지역이고, 도시의 난개발현상으

1) 일본 국세조사를 위해 설정한 통계상의 지구로서, 시구정촌(市區町村)내에서 인구밀도 4,000명/㎢이상의 기본단위구(조사구)에 인접하고 인구 5,000명 이상이 되는 지구

2) 배청 등(1996) 연구 자료를 재인용

로 도시적 환경과 농업적 환경이 혼재한 지역이다. 이러한 형태에 관해서는 DID의 크기를 감안하여 대도시주변형과 지방도시주변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대도시주변형은 문자 그대로 대도시권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도시화 압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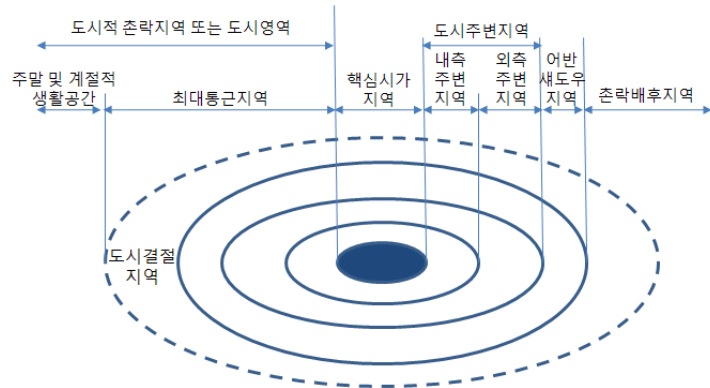


그림 2-5 도시주변지역의 공간구조모형도
(Bryant, 1982)

강하고, 대도시권의 경제적·사회적인 제반활동을 고려한 계획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지방도시주변형은 대도시권에서 떨어진 지방도시의 DID 주변부 또는 녹지주변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대도시주변형에 비해 도시화 압력이 적고 농업적 자연환경도 풍부한 지역이다.

② 중심지일체형

중심지일체형은 중심시가지일체형과 중심지구일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심시가지일체형은 작은 DID와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DID 면적 3~4km² 전후, DID 인구 10,000명~15,000명 전후)으로,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어도 조금만 걸으면 농업적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심지구일체형은 DID는 아니지만 거주밀도가 비교적 높은 중심지구와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으로, 혼재·혼주가 문제시될 만한 지역이다.

③ 도시내형

큰 DID 가운데 위치하고 DID 일지라도 주변에 비해 자연적 환경이 많고 농업적 토지이용도 나타나는 지역으로, 공생이나 새로운 생활의 장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창조 가능성을 많이 가진 지역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배청 등(1996)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정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도시주변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정책 및 법적 측면, 공간계획적 측면, 개발관련 참여자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토지이용관리체계에 있어서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은 무계획적 난개발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계획적 공급과 체계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계획정책을 집약적 도시개발(urban containment)개념과 도시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의 기조 하에서 전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붐에 대비하여 지구지정 요건의 강화나 허용 행위의 면적 규모를 조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개발계획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혼주화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취락지의 ‘농촌적 특성’을 보호하고 특정장소에 인구성장을 유치하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호해야 할 농촌적 특성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 성장(인구)를 유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유일 등(1997)은 “도시근교농촌의 토지이용 및 경관의 변화”연구를 통하여 수도권 근교(용인군)의 읍·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변화 과정과 원인,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경관의 훼손원인과 문제점 등을 밝힘으로서 경관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경관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bed-town의 형성에 따라 유흥·오락시설과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현상과 주변녹지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준도시지역’은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 형성에 따라 산림훼손과 하천오염이 유발되었으며, ‘준농림지역’의 경우, 주거지 난개발과 공업시설의 증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무질서한 주거환경에 따른 경관훼손 및 불안정한 자연경관 형성, 주거지주변 녹지내 불법유흥시설 입지, 외지인 임대농업의 증가로 농업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현대적 개량주택과 도시내 유치가 어려운 시설의 입지를 통하여 주변지가의 하락과 주민생활환경의 악화, 자연녹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자

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하천오염, 도시적 용도로의 주변경관 변화, 레크리에이션단지와 주변경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치 있는 시각자원의 보존 및 개발경관의 보존과 규제, 녹지지역내 건축규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관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병기 등(2004)은 “대도시 영향권 중첩농촌지역의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측면, 토지이용패턴 변화 측면,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 도시화의 특징을 고찰하고, 도시화에 미치는 중심도시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도시화 특징은 주거교외화와 산업교외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혼합교외화의 진행을 보였으며, 대도시 행정구역 편입으로 도시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결과 지역 공간구조 재편과 도시난개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의 쾌적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이러한 도시화의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황한철 등(2007)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토지이용구조변화 분석”연구를 통하여 1995년과 2005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 영향에 따른 지역의 농림지의 이용 변화와 도시용지의 이용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율³⁾의 변화(4유형)와 농림지 및 도시용지 변화율(4유형)에 따라 16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도시 및 수도권 도시 등 전형적인 도시개발지역의 양상을 보이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높고 농림지 감소율과 도시용지율이 늘어나는 유형’을 보였으며, 토지이용의 변화는 적지만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 중심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높고 농림지의 감소율이 줄어들며 도시용지율은 감소하는 유형’을 보였다. 반면, 시군의 절반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춘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낮고 농림지의 감소율이 줄어들며 도시용지율은 감소하는 유형’을 보이며, 이들 지역들은 성장 활력이 비교적 약해 토지이용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⁴⁾

3) 도시화율은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로서, 황한철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읍지역’ 이상의 지역을 도시로 보고, 그 지역의 인구를 도시인구로 간주하여 분석

4) 황한철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높고 농림지 감소율과 도시용지율이 늘어나는 유형’, 아산시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낮고 농림지의 감소율이 줄어들며 도시용지율이 늘

성춘자 등(2007)은 “천안시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연구에서 천안시를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이용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천안시 토지이용의 변화특성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지면적의 감소 등에 의해 비도시적 토지이용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지와 공공용지의 증가 등에 의해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소영 등(2009)은 “행정구역 위계별 도시성장 패턴 및 특성 분석”연구에서 도시성장 관련 요인을 지형적, 지리적, 토지이용, 규제적 인자로 구분하고,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행정구역 위계별 도시성장 패턴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개발지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가용토지의 부족과 각종 규제에 인하여 도시외곽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도시 인근농촌, 수도권 인근농촌, 지방농촌 지역의 개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도시화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농촌지역은 도시화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개발이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산림훼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훼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지방지역일수록 환경을 보전하고 법적인 제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이 이루어 진 반면, 특별시와 수도권도시, 수도권인근농촌 지역은 보전가치가 높고,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의 훼손을 통해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로서 1985년에서 2001년까지 대전권을 중심으로 지대별로 선정된 도시근교지역(대전 서구 기성동 증촌마을), 평야지역(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중간지역(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산간지역(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구 및 가족구조, 경제활동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어나는 유형’, 당진군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계속 낮고 농림지 감소율과 도시용지율이 늘어나는 유형’에 해당됨

생활환경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장기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부부가족 → 직계가족 → 부부가족’의 주기를 순환하여 재생산되었지만, 농가 인구가 10~20대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농하게 됨으로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유형별 구성을 보면 64세 이하 전업적 농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노령농가로 머지 않아 은퇴가 예상되는 64세 이상 전업적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 농가의 인적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간 농업경영지표를 비교해 보면 겸업적 농가의 영농규모가 가장 크고 농업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업적 농가의 순이었다. 농촌 사회집단 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마을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집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구성원의 공간적 분포가 인근 부락과 먼, 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집단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공동모임을 위한 마을회관이 대부분 노인회관으로 대체되었고, 중요한 공동생활공간인 가게는 근교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으며, 새로운 공동이용공간으로 주차공간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춘 등(2001)은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영농유형별 농가특성과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근교 농촌지역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교농업지역의 농가의 영농유형은 경영주 및 가구 구성원의 측면에서 볼 때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부부 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농가의 경영규모 측면에서 미작 재배농가는 경영주가 노령화 될수록 경영규모가 작아지는 반면,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경영규모의 편차가 작게 나타났으며, 소득증대를 위해 상업적 시설작물재배를 선호하지만 부부중심의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주로 농지의 매입보다는 입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김주숙 등(2003)은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도·농 복합시인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농촌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의 요인을 경제, 생활서비스,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들이 도농통합 당시 기대했던 경제·생활·문화적 혜택은 적고, 오히려 농촌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행정에서도 소외되며, 혐오시설이 농촌에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만 증가시켰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합 당시 지역개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주요한 갈등요인이며, 통합 후 오히려 도시주민과의 이질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농촌과 도시주민이 상호접촉을 늘리고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열 등(2003)은 “대도시 주변 소도시의 도시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양산시 웅상읍을 대상으로 대도시 주변 소도시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변화, 도시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 주변 대도시와의 연관성, 도시화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거특성의 변화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주거양식이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의 의식도 이웃간의 교류보다는 가족 중심적 생활을 중시하는 가족중심주의와 나와 무관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도시적 특징을 보였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로부터 이전하는 공장과 인구를 흡수하여 규모나 형태 면에서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특성에서는 농촌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상업, 교육, 후생복지 등 현대 도시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기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도시의 바람직한 정주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양적인 주택의 공급보다는 주거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른 도시미화 등의 다양한 주거환경의 정비, 주민의 문화적 욕구나 자녀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장동현(2009)은 “농지전용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를 사례로 하여 농지전용의 원인, 인접농지에의 영향과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농지전용은 농업인과 도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주로 도시민에 의한 농지전용이 많았으며, 농지전용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농지전용을 통하여 식당, 공장 등이 조성되었지만, 지역주민의 고용증가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접농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토사 붕괴에 의한 흙의 유입이나 축사신축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마찰과 주변 농업환경의 악화, 인접 농지의 가격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전용자와 주민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농지 전용자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농촌사회에 있어 원만한 관계가 지속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농지 전용자와 마을주민 등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3) 선행연구 종합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에서 도출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공간개발적 측면, 토지이용 및 경관 측면, 주거환경 측면, 농촌경제 측면, 커뮤니티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공간개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계획적 난개발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청 등, 1996). 또한, 대도시의 가용토지 부족과 각종 규제외곽지역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이병기 등, 2004), 특별시와 광역시가 산림훼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훼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주변지역에서는 개발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고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영 등,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는 집약적 도시개발 및 도시성장관리정책, 개발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배청 등, 1996).

둘째, 토지이용 및 경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는 비도시적 토지이용의 감소 및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 및 녹지가 훼손되고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유일 등, 1997). 경관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주거환경과 불법유해시설이 입지로 경관이 훼손되고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자연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며(김유일 등, 1997), 특히 도시민들에 의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장동현,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관의 보존 및 규제, 녹지지역내 건축규제, 기타 경관관리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김유일 등, 1997).

셋째, 주거환경 측면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내 유치가 어려운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입지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가가 하락되고 있으며(김유일 등, 1997),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행정, 상업, 교육, 후생복지 등 현대 도시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최열 등, 2003).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양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주거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나 자녀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최열 등, 2003).

넷째, 농촌경제 측면에서는 도시근교지역의 농업이 대부분 부부 중심의 자족노동력에 의존

하고, 임차지의 확대를 통한 시설작물 재배농가 증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농업경제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박양춘 등, 2001), 도시민들에 의해 농지전용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농업환경의 악화와 농지가격의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장동헌, 2009).

다섯째, 지역 커뮤니티 측면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김유일 등, 1997),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농촌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됨으로서 이웃간의 교류가 감소하고 가족중심적인 생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열 등, 2003). 또한, 혼주화에 따라 도시주민과의 이질감이 증가하고 신주민과 기존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주민과 기존주민 등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장동헌, 2009).

표 2-1 선행연구의 종합

구분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	향후 과제
공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개발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초래 - 준농림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 대도시의 가용토지 부족과 각종 규제외곽지역의 개발 증가 - 농지훼손형 개발 진행 - 수도권 주변지역은 보전가치가 높고,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의 훼손을 통해 개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약적 도시개발 및 도시성장관리정책 필요 - 개발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 심의
토지 이용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적 토지이용의 감소 및 도시적 토지이용 증가 - 산림 및 녹지 훼손과 하천오염 - 무질서한 주거환경에 의한 경관훼손 - 불안정한 자연경관 형성 - 불법유해시설 입지 - 도시민에 의한 농지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보존 및 규제 - 녹지지역내 건축규제 - 경관관리방안 마련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 입지로 주변지가의 하락 - 열악한 주민생활환경 -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 - 행정, 상업, 교육, 후생복지 등의 기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주거문화수준을 향상 - 주민의 문화적 욕구나 자녀 교육여건을 충족
농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 - 임차지의 확대를 통한 시설작물 재배농가 확대 - 임대농업의 증가로 농업경제 불안정성 - 도시민에 의한 농지전용 증가 - 농지전용의 증가로 농업환경의 악화 및 농지가격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취업기회 부여
커뮤 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주화 문제 - 농촌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 - 가족중심적 생활로 이웃간 교류 감소 - 도시주민과의 이질감 증가 - 신주민과 기존주민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장소에 인구성장 유치 - 신주민과 기존주민의 상호 이해노력 필요

제3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

1. 조사개요

1)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는 크게 인구의 변화, 농가인구 및 농가수의 변화, 토지이용 변화, 공간구조 변화로 나누어 이루어 졌으며, 이들 요인이 읍면 또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는 읍면을 기준으로 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5~10년 단위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의 세부적인 변화 동향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농가인구와 농가수 역시 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10년 단위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농가의 전업 및 겸업 실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토지이용변화는 인공위성영상자료에 의한 토지피복 변화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인공위성영상은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의 4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양, 갯벌, 산림, 초지, 하천 및 저수지, 습지, 논, 밭, 도시 및 인공구조물, 나대지 등 10개의 항목으로 토지피복도를 분석하고, 행정리 단위로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구조 변화는 1977년, 1986년, 2003년, 2009년의 4개 시점의 지형도(1:50,000)를 바탕으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각 단위 공간의 속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론 및 이를 토대로 개발된 일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1980~90년대에 걸쳐 영국 런던대학교의 Hillier 교수 연구팀에

5) 행정리별 인구는 2000년대 이전의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행정리별 인구변화를 분석함

의해 개발되었다. 공간구문론은 특히 도로망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 도로망을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로 가정하고, 이들 공간이 연결된 네트워크 속성을 계산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전체적 특성, 공간별 지역별 부분적인 속성, 그리고 전체지역과 부분지역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지역에 있어 단위공간에 연결된 다른 공간들의 개수로서 중심성을 평가하는 계수로서 연결도(Connectivity)와 단위 공간에 대한 주변 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계수로서 국부통합성(Local Integration)을 분석하였고, 행정리별로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3-2와 같다.

표 3-1 도시근교 농촌지역 변화 동향에 관한 조사 내용 및 방법

항목		내용	자료	단위	기준 년도
인 구		인구 변화	인구주택센서스	읍면	1970~2005
			통계연보	행정리	2003~2008
농가 인구 및 농가수	농가 인구	농가인구 수 및 비율의 변화	농림어업총조사	읍면	1970~2005
	농가수	농가수 및 비율의 변화	농림어업총조사	읍면	1970~2005
		농가 전업 및 겸업 비율 변화	농림어업총조사	읍면	1970~2005
토지 이용	토지 지목	비도시적·도시적 용도 지목의 변화	통계연보	읍면	1989~2008
	토지 피복	도시 및 인공구조물 등의 토지피복 변화	인공위성영상	행정리	1982, 1989, 1999, 2009
공간 구조		도로 접근성 및 공간 위계성의 변화	지형도	행정리	1977, 1986, 2003, 2009

2) 조사 대상지의 개황

충남 북부권(천안·아산·당진) 지역은 과거 10여 년간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규모의 확대 및 성장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속도가 가속화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공간적·인문사회적인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충남 북부권 중에서 아산시는 이미 상당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어 버린 천안시와, 도시화·산업화의 출발선상에 있는 당진군의 중간수준의 발전단계에 있어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 변화에 대한 동향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1) 아산시 일반 현황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 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북쪽은 차령산맥의 여맥에 속하는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남쪽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곡교천이 서류하여 그 유역이 평야를 형성하며, 삼교천에서 통합하여 아산만에 유입한다. 남쪽에 광덕산과 북쪽에는 영인산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남고북저의 지형인 아산시는 중앙이 낮고 평평한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천안시와 남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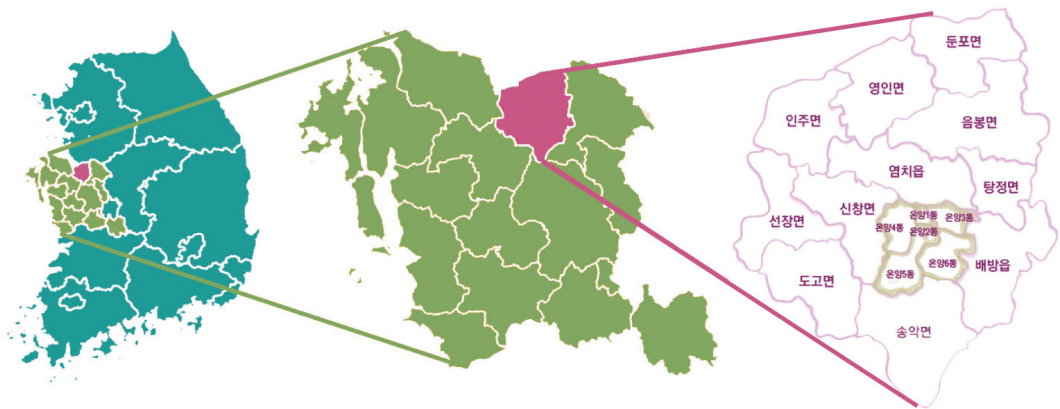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 대상지(아산시)의 위치

접근성 측면에서 아산시는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 남북 교통축 사이에 입지하고 있고,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30분, 전국 모든 지역과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등으로 서해안 내륙지방의 수송기능이 강화되었고, 경부고속철도는 남부지

방으로의 수송을 유리하게 하여 관광자원을 보유한 아산시를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지목받게 하고 있다.

아산시는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염로국 지역이었고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아술현, 굴직현에 속해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 기랑현(중앙에서충관 파견)으로 고려시대에는 온수군, 인주현, 신창현으로 조선시대에는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1914년 3월 1일 아산군으로 개편(부령 제253호)되었다가 1986년 1월1일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 분리되었고, 1995년 1월1일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어 아산시가 되었으며, 현재 2읍 10면 6동, 367개 행정리, 143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아산시 주요 연혁(근·현대)

연 도	주 요 연 혁
1941	- 아산군 온양면이 온양읍으로 승격
1973. 7. 1	- 탕정면 모종리, 권곡리를 온양읍에 편입
1983. 2. 15	- 배방면 남리, 탕정면 신리, 신창면 점량리·득산리·실옥리를 온양읍에 편입
1986. 1. 1	- 아산군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분리
1987. 1. 1	- 배방면 공수리 일부 온양시 편입, 탕정면 구령리 배방면 편입
1990. 4. 1	-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
1995. 1. 1	- 아산군과 온양시 통합 아산시로 개편
2003. 9. 1	- 아산시 동지역 행정 명칭을 온양1동 ~ 온양6동으로 변경
2009. 5. 1	- 배방면이 배방읍으로 승격

자료 : 아산시청 홈페이지, www.asan.go.kr

(2) 아산시 도시성장 및 개발 현황⁶⁾

아산시 도시성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80년대까지는 특별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이촌향도 추세에 따라 도시인구가 정체 혹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정체기를 보여 왔다.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의 성장압력이 충남 북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주·탕정 등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면서, 제조업 고용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는 성장기를 보이고 있다.

6) 아산시, 2008,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발췌 재정리

향후 아산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을 경험하는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도시성장이 주로 제조업 고용성장에서 비롯되었으나, 향후에는 아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필두로 아산만권(평택항 배후지역)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전권(행정중심복합도시 포함)을 연계하는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제조업과 중추 서비스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도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1995년 온양시·아산군의 통합으로 1998년 12월 최초의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계획구역은 온양, 둔포, 도고, 배방, 인주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은 총 면적 89.96㎢로 이중 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5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주거 16.1%, 공업지역 12.2%, 상업지역 2.67%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아산시 도시계획 연혁

구 분	연 도	내 용
온 양	1954. 5	- 온양도시계획 결정(44.18㎢)
	1968.10	- 온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41.13㎢)
	1977. 2	- 온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27.275㎢)
	1985.12	- 온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27.275㎢)
	1989. 1	- 온양도시기본계획 결정(44.79㎢)
	1993. 3	- 온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27.275㎢)
둔 포	1972. 3	- 둔포도시계획 결정(4.4㎢)
	1977. 3	- 면급도시계획재정비 결정(1.18㎢)
	1992. 8	- 둔포도시계획재정비 결정(1.18㎢)
도 고	1973.12	- 도고도시계획 결정(3.98㎢)
	1977. 3	- 면급도시계획재정비 결정(2.65㎢)
	1984. 1	- 도고도시기본계획 결정(4.7㎢)
	1985.12	- 도고도시계획재정비 결정(3.634㎢)
	1992. 4	- 도고도시계획재정비 결정(3.634㎢)
배 방	1994. 1	- 배방도시계획 결정(7.603㎢)
인 주	2002. 2	-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신규 도시계획구역 지정(11,776㎢)
아산시	1998.12	- 아산도시기본계획 결정
	2003. 2	-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2005.11	- 아산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변경(둔포)
	2005.11	- 아산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변경(탕정)
	2008.10	- 아산도시기본계획 결정

자료 : 아산시 내부자료

도시개발로서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일원의 21.320km² 부지에 수도권 인구·기능의 분산수용을 위한 거점적 신도시 조성 및 국토공간 균형개발의 실현을 목적으로 아산신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지구 3.674km²는 2005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11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단독주택 834가구, 공동주택 5,405가구, 주상복합 2,399가구 등 총 8,638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어 26,778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하였다. 2단계 사업지구는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2006년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보고 등을 통하여 17.646km²로 확정되었으며, 주택건설용지 4.475km²에 5만 8천세대가 공급되어 17만 3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도심에 생태하천을 활용한 호수공원과 수변 녹도를 조성해 새로운 개념의 문화기능과 쇼핑기능을 갖추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외에 아산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개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 용화지구 도시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에는 다양한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탕정지방산업단지는 2003년 10월에 착공되어 총 20조 8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1차적으로 2010년까지 8~10만명의 인구유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탕정제2지방산업단지까지 완성되면 천안에 있는 삼성SDI단지를 포함하여 모두 약 7.4km²의 세계 최대 LCD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 외에 아산시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아산테크노벨리, 둔포 및 염치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 아산시 주요 도시개발사업 현황

사업명(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기간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화동, 온천동, 풍기동 일원	552,138	-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읍 공수리 154-2 일원	370,158	-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모종동, 풍기동 일원	322,512	2006~2011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초사동 경찰종합학교 주변 일원	337,028	2005~2012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축동 일원	630,740	2006~2011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읍 북수리 일원	830,000	2008~2013
용화2지구 도시개발사업	용화동 일원	950,000	2008~2014
신창행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창면 행목리 일원	330,000	2008~2013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주면 밀두리 일원	823,493	2007~2013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법곡동 일원	330,000	2008~2013

자료 : 아산시, 아산시 2025 도시기본계획,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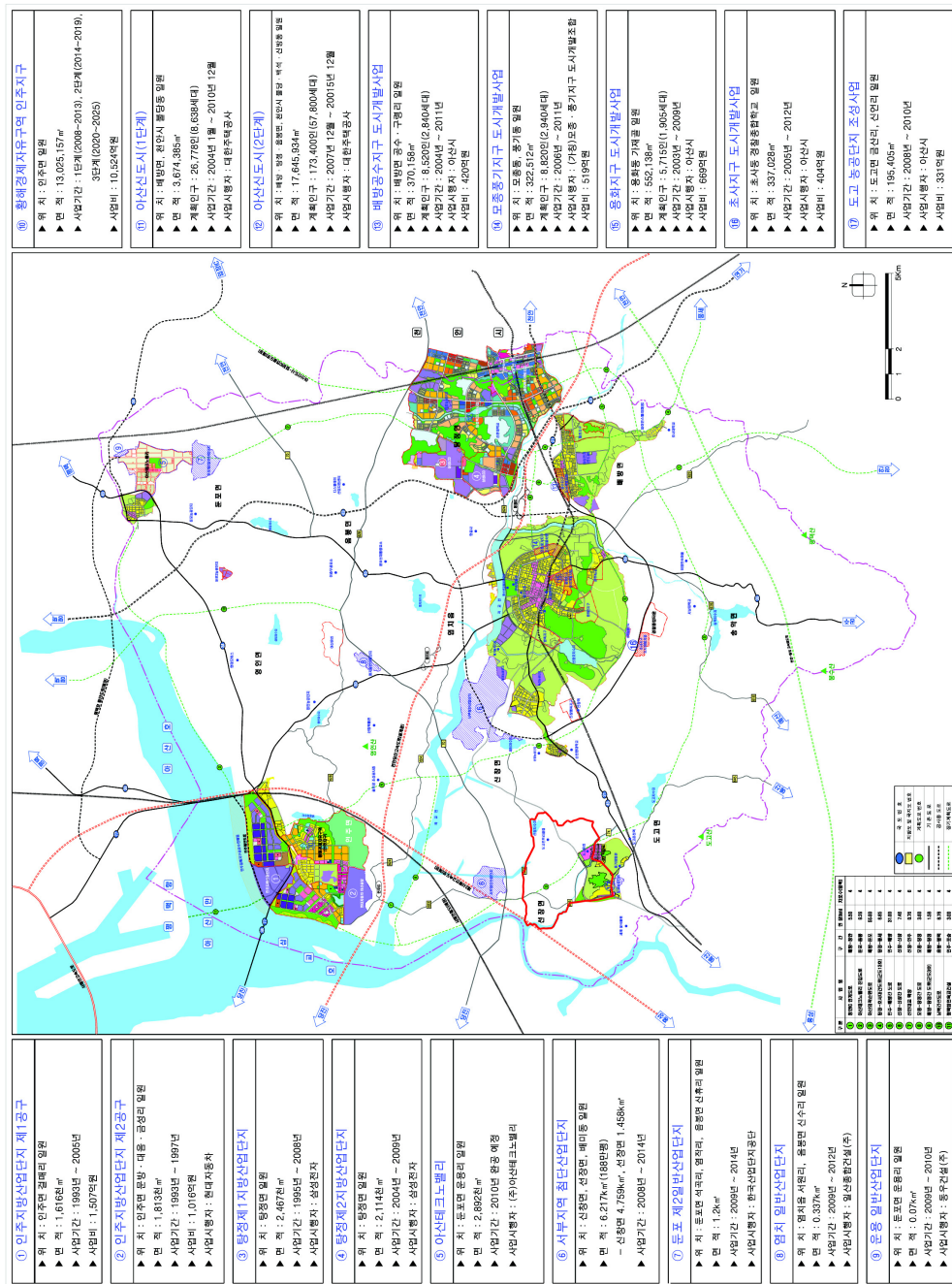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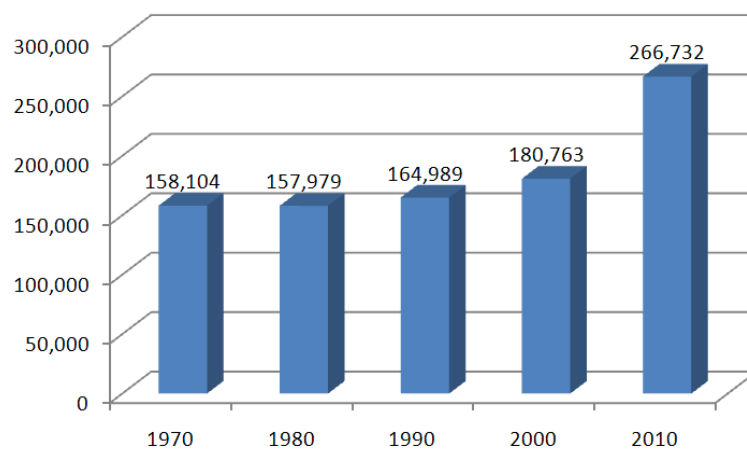


그림 3-2 아산시 도시계획구역 및 주요 개발사업 현황

2. 인구 변화

아산시의 인구는 1970년 158,104명에서 2010년 266,732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10년 단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1970년에서 1980년까지 연평균 -0.01%의 감소율을 보이던 인구가 1980년 ~ 1990년 0.44%, 1990년 ~ 2000년 0.92%, 2000년 ~ 2010년 3.97%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 급속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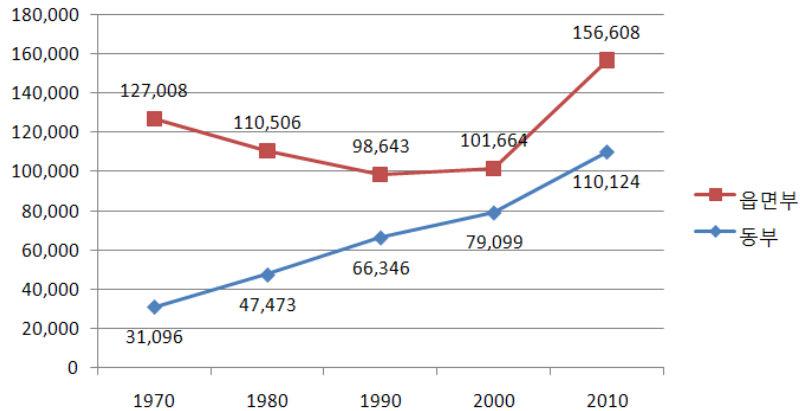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그림 3-3 아산시 인구 변화(1970년~2010년)

표3-5 아산시 연평균 인구증감률

연 도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1970-2010
연평균 증감률(%)	-0.01	0.44	0.92	3.97	1.32

읍·면·동별 인구변화에 있어서 동부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70년 이후 연평균 3.21%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읍·면부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연평균 0.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그림 3-4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인구 변화

표 3-6 아산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단위 : 명, %)

행정구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아산시	158,104	157,979	164,989	180,763	208,415	266,732	1.316
염치읍	9,558	8,448	7,741	6,414	8,223	8,033	-0.434
배방읍	11,929	15,064	18,489	21,177	22,594	49,501	3.622
송악면	7,975	6,492	5,338	3,466	3,116	3,592	-1.974
탕정면	14,112	7,114	4,538	9,049	17,233	20,485	0.936
음봉면	9,907	8,893	7,678	12,930	16,423	17,171	1.384
둔포면	13,759	12,695	12,264	10,766	10,422	11,348	-0.480
영인면	13,366	11,552	9,278	7,114	6,388	7,408	-1.465
인주면	10,466	8,730	6,808	7,289	8,309	7,591	-0.800
선장면	10,742	8,871	8,299	4,548	4,031	4,320	-2.252
도고면	11,557	10,282	8,680	5,240	4,576	5,329	-1.917
신창면	13,637	12,365	9,530	13,671	18,740	21,830	1.183
읍면계	127,008	110,506	98,643	101,664	120,055	156,608	0.525
동부계**	31,096	47,473	66,346	79,099	88,360	110,124	3.212

* 2010년 3월 현재 인구

** '70~'80은 온양읍 인구를, '90은 온양시 인구를 동부인구로 산정

*** : 전 기준년도 대비 인구증가를 보이는 년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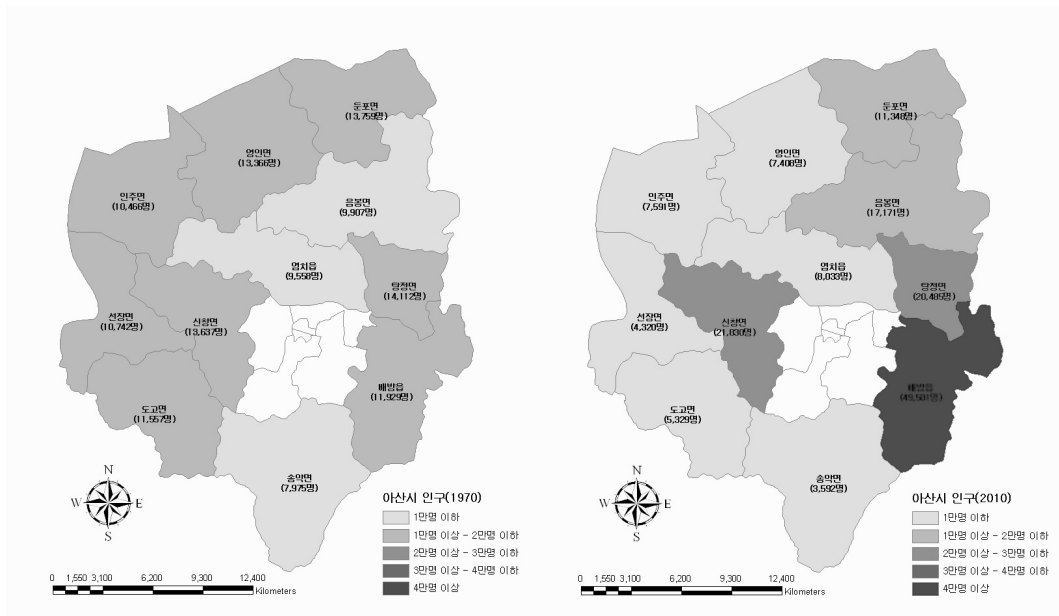


그림 3-5 아산시 읍·면별 인구 변화(197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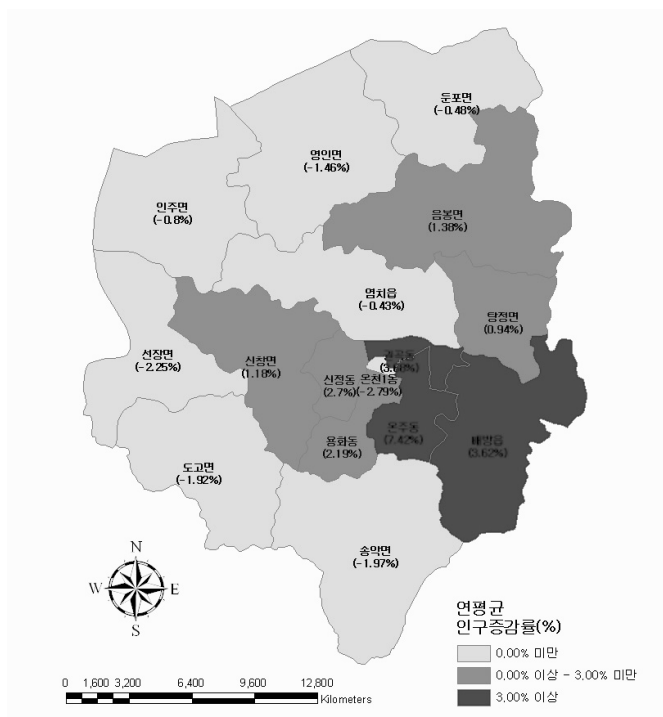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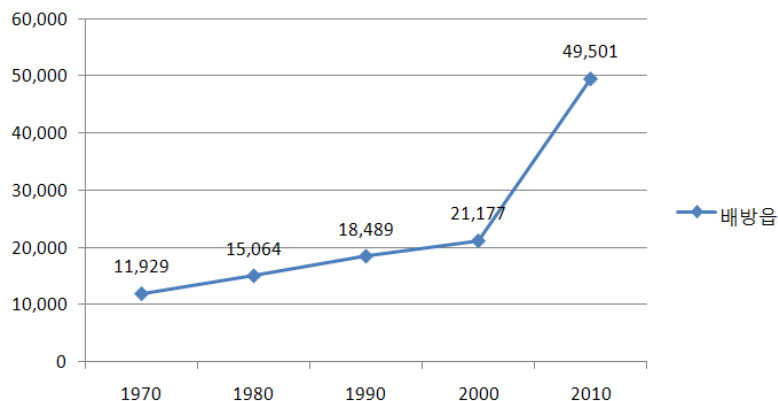


그림 3-6 아산시 동 및 읍·면별 연평균 인구증감률(1970-2010)

읍·면별 인구변화는 크게 3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 둘째,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 셋째,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 : 배방읍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으로는 배방읍이 해당된다. 배방읍은 연평균 증감률 3.6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8.86%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인구 49,501명, 인구밀도 997명/km²으로 아산시 읍·면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유하고 있다. 배방읍의 이러한 인구성장은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에 기인하고 있다. 배방읍은 지리적으로 아산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천안시와 연접해 있어 아산시와 천안시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천안·아산 지역의 연담도시화 요충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배방읍은 장항선과 최근 개통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2004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인 아산신도시개발 등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인구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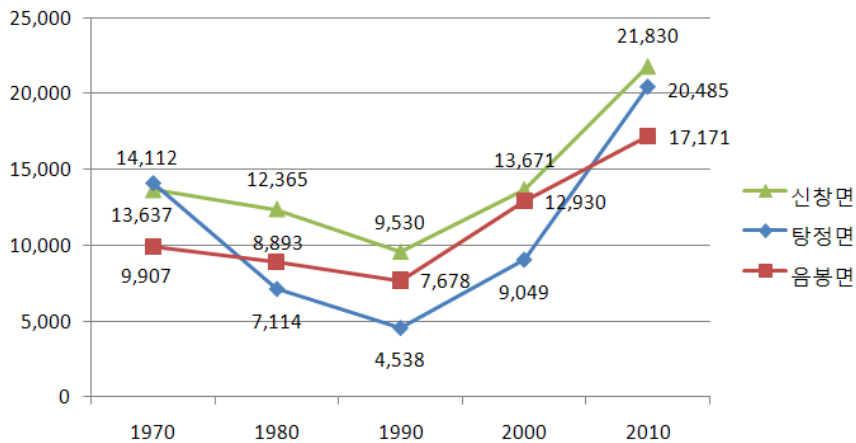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그림 3-7 지속적인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는 읍면(배방읍)

특히, 배방읍의 최근 5년간 리별 인구변화를 보면, 공수리, 북수리, 갈매리, 장재리 등에서 연평균 20% 이상의 급속한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리 지역의 인구증가가 배방읍 전체의 인구증가의 원인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리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일 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지속적인 감소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 :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에는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전과 이후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에 있어 탕정면은 -5.52%에서 10.57%로, 음봉면은 -1.27%에서 5.51%로, 신창면은 -1.78%에서 5.68%로 인구감소추세에서 급격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지역의 아산 중심시가지 주변지역 또는 천안·아산 연담도시지역으로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거나, 아산신도시개발과 같은 도시 개발사업지역 또는 중심 도시성장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인구와 인구밀도를 보면, 탕정면 20,485명, 846명/km², 음봉면 17,171명, 291명/km², 신창면 21,830명, 550명/km²으로 아산시 읍면 중 배방읍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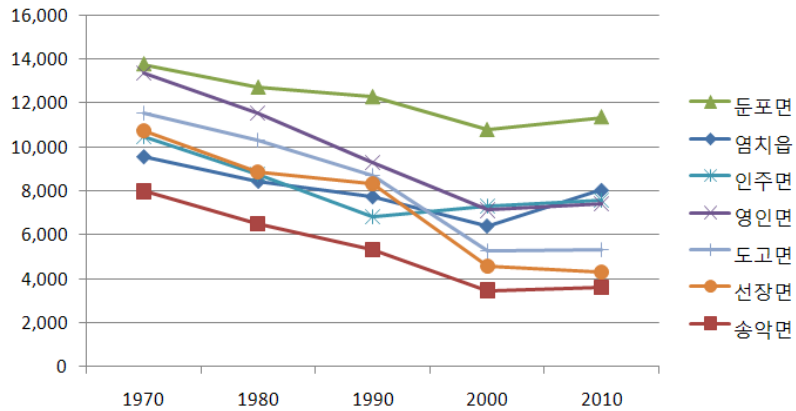
그림 3-8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읍면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

탕정면은 탕정지방산업단지, 아산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히 매곡리와 명암리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 호산리와 동산리 지역도 2천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 용두리와 갈산리 지역은 인구구성이 1천명을 넘지는 않지만, 최근 5년간 9.36%와 6.57%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음봉면은 역시 탕정지방산업단지와 아산신도시 등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탕정면과 연결한 산동리, 덕지리, 동암리를 중심으로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은 산동리 0.66%, 덕지리 14.55%, 동암리 17.1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리 지역에서는 인구의 소폭 감소 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창면은 아산시가 확장 등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아산시가(동부)와 연결한 행목리와 남성리를 중심으로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행목리 9.20%, 남성리 6.3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 읍내리가 비록 최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까지는 1천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 리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③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 : 염치읍, 송악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유형으로는 염치읍, 송악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이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둔포면을 제외하고는 1만 명 이하의 인구와 200명/km² 이하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읍·면에 속한 대부분의 리 지역에 있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감소추세이거나 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염치읍 동정리(2.07%), 송악면 마곡리(1.05%), 둔포면 운교리(1.16%), 영인면 결매리(2.39%), 관암리(1.26%), 선장면 신동리(11.29%), 가산리(1.61%), 궁평리(5.90%), 도고면 금산리(1.36%), 석당리(1.35%) 등의 리 지역은 1% 이상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염치읍 석정리(1,017명), 방현리(1,625명), 송곡리(1,848명), 둔포면 둔포리(4,423명), 영인면 아산리(1,318명), 인주면 공세리(1,823명), 대음리(1,203명), 해암리(1,041명), 도고면 신언리(1,304명) 등은 2008년 현재 인구 1천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그림 3-9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이후 일정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읍면
(염치읍, 송악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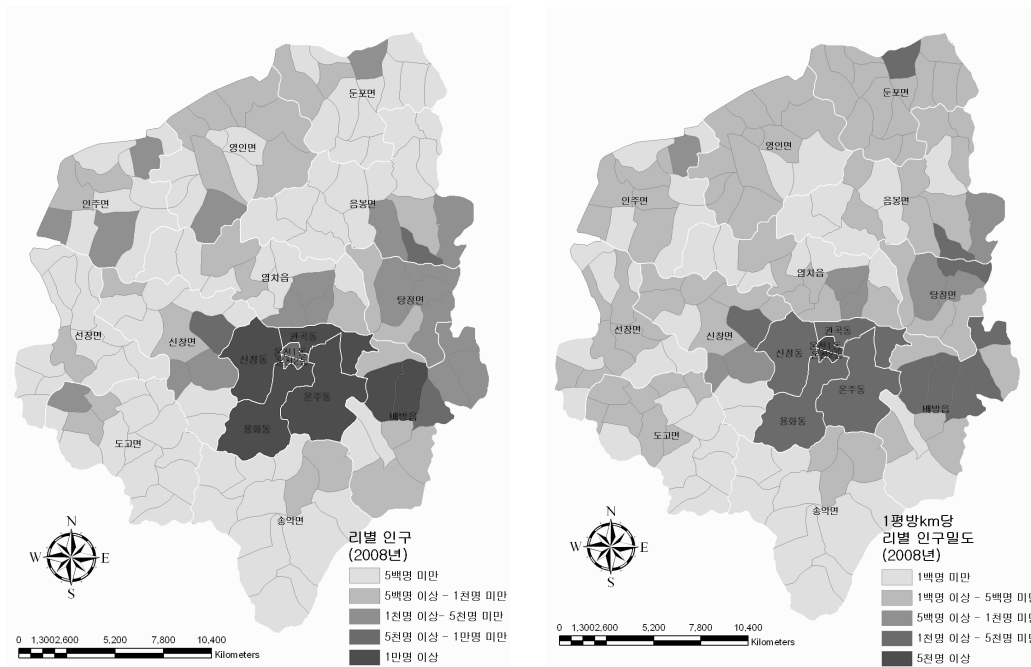


그림 3-10 아산시 리별 인구 및 인구밀도(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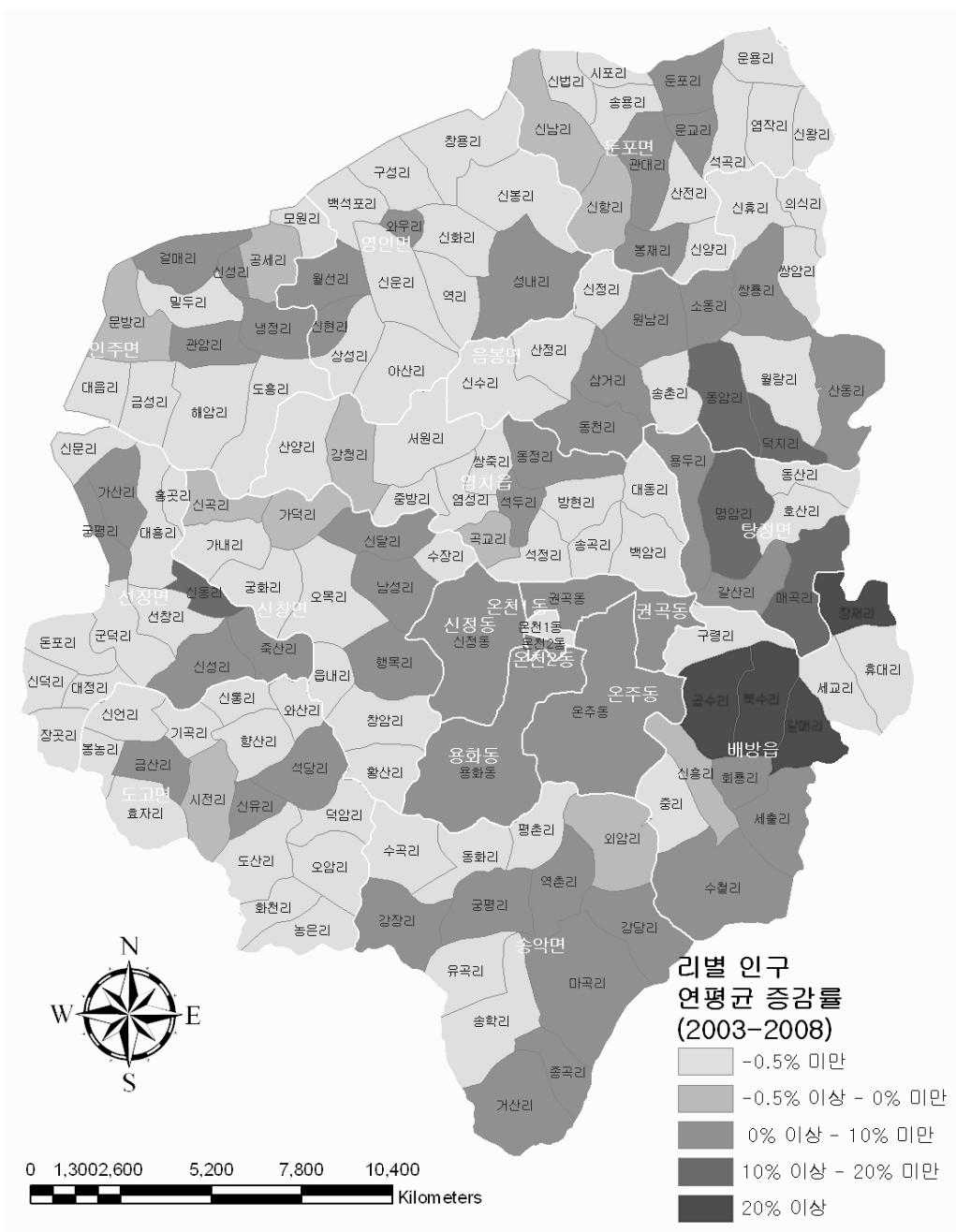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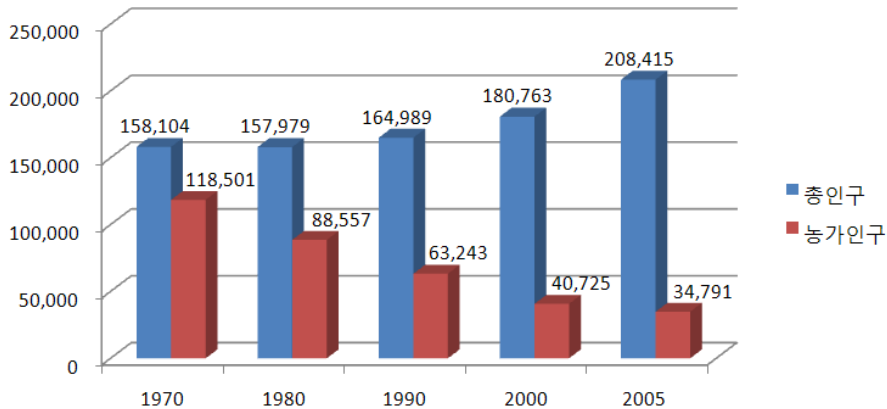


그림 3-11 아산시 법정리별 최근 인구 연평균 증감률(2003-2008)

3. 농가인구 및 농가수 변화

1) 농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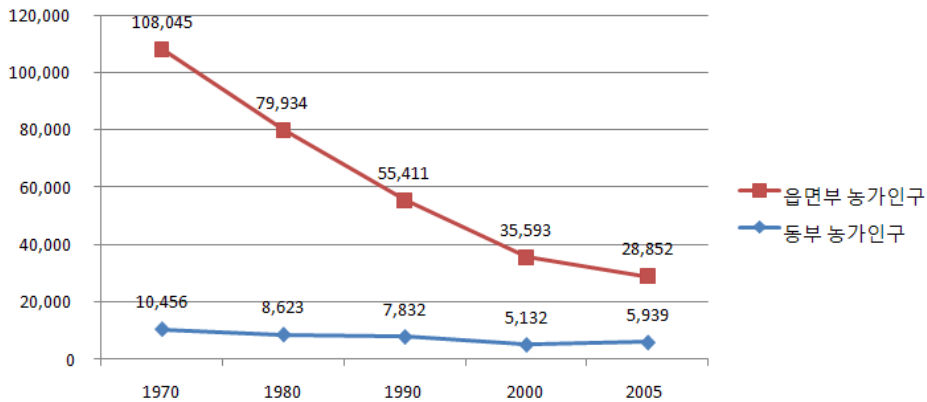
아산시의 농가인구는 1970년 118,501명에서 2010년 34,791명으로 35년 동안 8만3천여 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3.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산시의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율도 1970년 74.95%에서 2005년 16.69%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충청남도 농가인구 비율이 23.61%로 아산시의 농가인구 비율은 충남 평균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그림 3-12 아산시 총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1970~2005)

동부 및 읍면부 변화를 살펴보면, 아산시 동부의 농가인구는 1970년 10,456명에서 2005년 5,939명으로 총 4천5백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6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농가인구비율도 1970년 33.63%에서 6.72%로 감소하였다. 또한, 읍면부의 농가인구는 1970년 108,045명에서 2005년 28,852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3.7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단순 감소율을 고려할 경우 동부 농가인구 감소율보다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읍면부의 농가인구 비율은 1970년 85.07%에서 2005년 24.03%로 감소하였다.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그림 3-13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농가인구 변화

읍·면별 농가인구에 있어, 1970년에서 1990년까지는 배방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50% 이상의 농가인구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 후 농가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현재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에서 50% 이하의 농가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의 농가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 20%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2005년 현재,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은 둔포면(3,675명), 배방읍(3,162명), 영인면(3,026명) 등의 순서이며, 가장 적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으로는 송악면(1,670명)을 들 수 있다. 특히, 배방읍은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농가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송악면은 가장 낮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수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3-7 아산시 읍·면·동별 농가인구변화

(단위 : 명, %)

행정구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아산시	118,501	88,557	63,243	40,725	34,791	-3.44
비율*	74.95	56.06	38.33	22.53	16.69	-4.20
염치읍	8,377	6,280	4,450	2,830	2,235	-3.70
비율	87.64	74.34	57.49	44.12	27.18	-3.29
배방읍	9,734	6,876	5,450	3,989	3,162	-3.16
비율	81.60	45.65	29.48	18.84	14.00	-4.91
송악면	7,135	5,346	3,487	2,155	1,670	-4.06
비율	89.47	82.35	65.32	62.18	53.59	-1.45
탕정면	9,337	5,528	3,658	2,088	1,898	-4.45
비율	66.16	77.71	80.61	23.07	11.01	-4.99
음봉면	9,345	7,233	5,033	3,361	2,960	-3.23
비율	94.33	81.33	65.55	25.99	18.02	-4.62
둔포면	11,760	8,728	6,232	4,952	3,675	-3.27
비율	85.47	68.75	50.82	46.00	35.26	-2.50
영인면	11,207	9,470	6,473	3,888	3,026	-3.67
비율	83.85	81.98	69.77	54.65	47.37	-1.62
인주면	9,489	6,576	4,906	3,090	2,722	-3.51
비율	90.67	75.33	72.06	42.39	32.76	-2.87
선장면	9,716	7,587	5,666	3,024	2,233	-4.11
비율	90.45	85.53	68.27	66.49	55.40	-1.39
도고면	9,330	7,007	4,677	2,911	2,393	-3.81
비율	80.73	68.15	53.88	55.55	52.29	-1.23
신창면	12,615	9,303	5,379	3,305	2,878	-4.13
비율	92.51	75.24	56.44	24.18	15.36	-5.00
읍면계	108,045	79,934	55,411	35,593	28,852	-3.70
비율	85.07	72.34	56.17	35.01	24.03	-3.55
동부계**	10,456	8,623	7,832	5,132	5,939	-1.60
비율	33.63	18.16	11.81	6.49	6.72	-4.50

* 비율은 각 읍·면·동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

** '70~'80은 온양읍 농가인구를, '90은 온양시 농가인구를 동부 농가인구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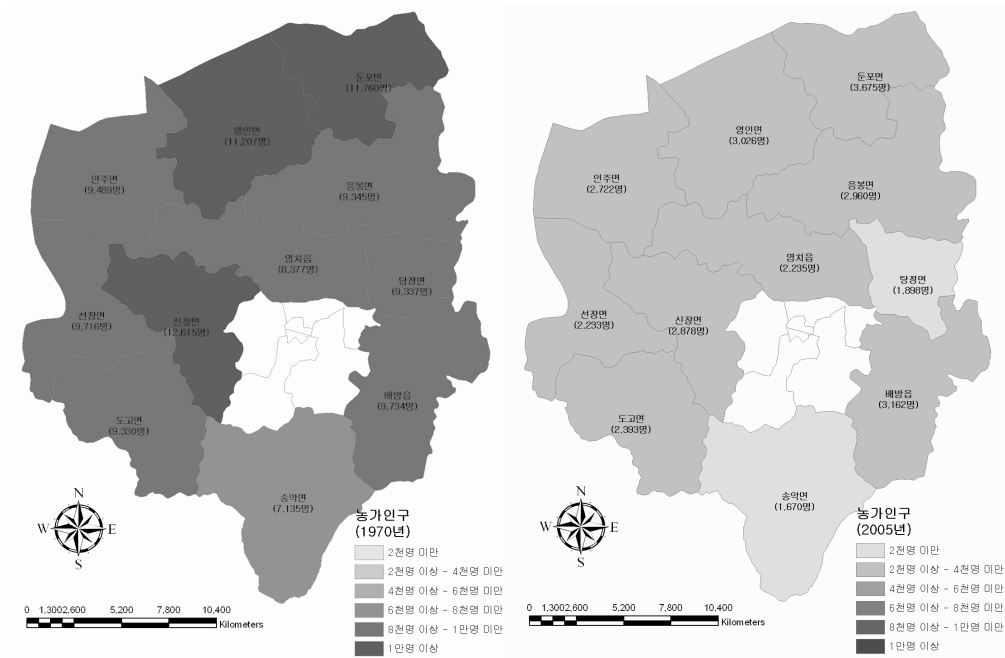


그림 3-14 아산시 읍·면별 농가인구(197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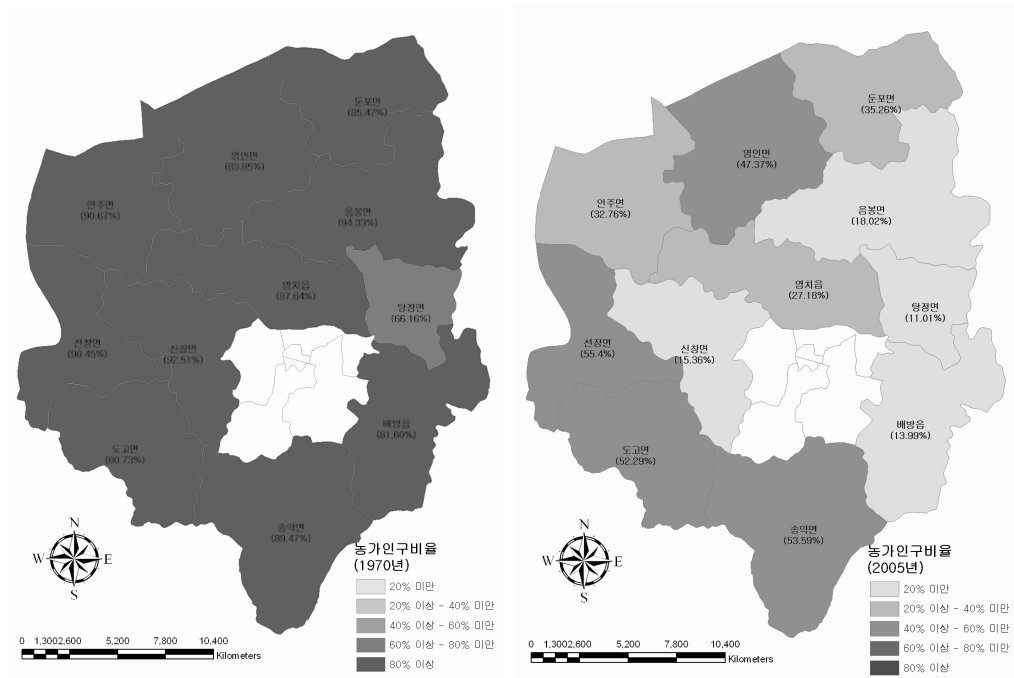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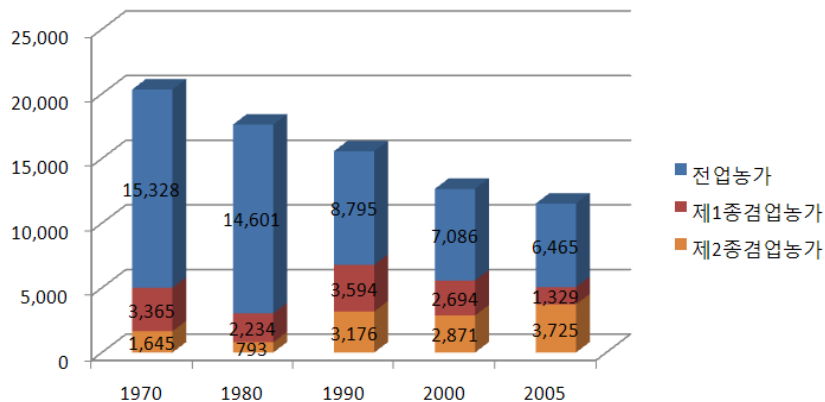


그림 3-15 아산시 읍·면별 농가인구비율(1970, 2005)

2) 농가수 및 전·겸업 농가

아산시의 농가수는 1970년 20,338호에서 2005년 11,519호로 감소하여 연평균 -1.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업농가수가 연평균 2.44%로 감소하고 있으나, 겸업농가수는 연평균 0.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수에 대한 농가수의 비중을 보았을 때도, 전업농가는 1970년 75.37%에서 2005년 56.13%로 감소하는 하는 반면, 겸업농가는 24.63%에서 43.8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겸업농가 중에서도 농업을 주로 하는 제1종겸업농가수는 연평균 -2.62%로 감소(비중: 16.55% → 11.53%)하고 있으나, 농업외의 업종을 주로 하는 제2종겸업농가수는 연평균 2.36%로 증가(비중: 8.09% → 32.34%)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농외 소득원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현재 아산시의 농가수는 11,519호로 전체 가구수의 1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중에서 전업농가는 6,465호, 겸업농가는 5,054호로 각각 전체 농가의 56.13%와 43.87%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겸업농가중 제1종겸업농가 1,329호(11.53%), 제2종겸업농가 3,725호(32.34%)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그림 3-16 아산시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 수 변화

동부 및 읍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 현재 동부의 농가수는 1,798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6.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업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면 겸업농가수가 증가

하여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비율이 36.87 : 63.13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겸업농가 중 제1종 겸업농가에 비해 제2종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아 제2종겸업농가가 전체 농가의 54.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2005년 현재 읍면부의 농가수는 9,721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24.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업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겸업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중(59.69%)이 겸업농가의 비중(40.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겸업농가 중에서도 제2종겸업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제1종겸업농가의 비중보다 높아지면서 2005년 현재 제1종겸업농가 12.16%, 제2종겸업농가 28.16%을 점유하고 있다.

표 3-8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전업 및 겸업 농가수 변화

(단위 : 명,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아산시	농가비율	20,338	17,628	15,565	12,651	11,519	-1.61
	전업	15,328	14,601	8,795	7,086	6,465	-2.44
	겸업	5,010	3,027	6,770	5,565	5,054	0.03
	1종	3,365	2,234	3,594	2,694	1,329	-2.62
	2종	1,645	793	3,176	2,871	3,725	2.36
동부*	농가비율	1,799	1,661	1,885	1,482	1,798	-0.01
	전업	1,182	988	800	691	663	-1.64
	겸업	617	673	1,085	791	1,135	1.76
	1종	319	426	497	252	147	-2.19
	2종	298	247	588	539	988	3.48
읍면부	농가비율	18,539	15,967	13,680	11,169	9,721	-1.83
	전업	14,146	13,613	7,995	6,395	5,802	-2.51
	겸업	4,393	2,354	5,685	4,774	3,919	-0.33
	1종	3,046	1,808	3,097	2,442	1,182	-2.67
	2종	1,347	546	2,588	2,332	2,737	2.05

* '70~'80은 온양읍 농가수를, '90은 온양시 농가수를 동부 농가수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표 3-9 아산시 동부 및 읍면부 전업 및 겸업 농가수 비율*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아산시	농가비율	70.58	55.68	40.42	22.30	16.71	-4.03
	전업	75.37	82.83	56.51	56.01	56.13	-0.84
	겸업	24.63%	17.17	43.50	43.99	43.88	1.66
	1종	16.55	12.67	23.09	21.30	11.54	-1.03
	2종	8.09	4.50	20.41	22.69	32.34	4.04
동부**	농가비율	30.02	17.49	11.70	5.90	6.02	-4.49
	전업	65.70	59.48	42.44	46.63	36.87	-1.64
	겸업	34.30	40.52	57.56	53.37	63.13	1.76
	1종	17.73	25.65	26.37	17.00	8.18	-2.19
	2종	16.57	14.87	31.19	36.37	54.95	3.49
읍면부	농가비율	81.23	72.05	61.09	35.31	24.91	-3.32
	전업	76.30	85.26	58.44	57.26	59.69	-0.70
	겸업	23.70	14.74	41.56	42.74	40.32	1.53
	1종	16.43	11.32	22.64	21.86	12.16	-0.86
	2종	7.27	3.42	18.92	20.88	28.16	3.95

* 농가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비율, 전업·겸업 비율은 전체 농가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

** '70~'80은 온양읍 농가수를, '90은 온양시 농가수를 동부 농가수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2005년 읍면부의 농가비율 약25%와 전업농가비율 약 59%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이 읍면부 평균보다 높은 유형, 둘째,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높지만, 전업농가비율은 낮은 유형, 셋째,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낮지만, 전업농가비율이 높은 유형, 넷째,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 모두 읍면부 평균보다 낮은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들 유형별 읍·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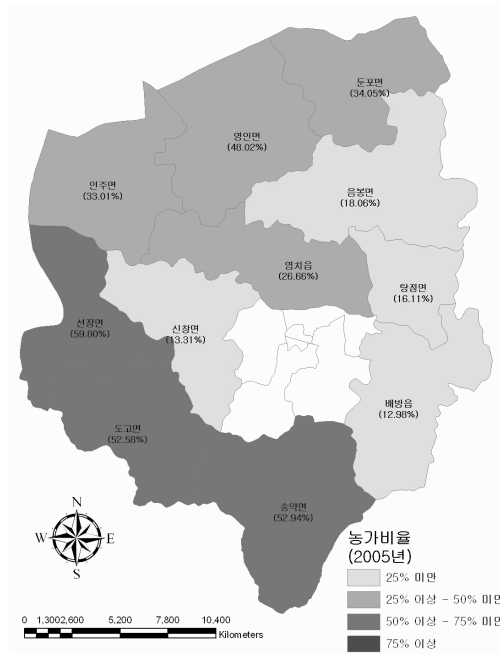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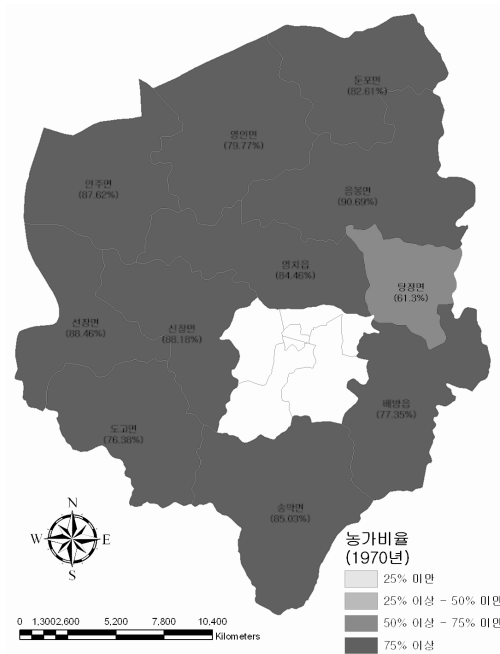


그림 3-17 아산시 읍·면별 농가비율(197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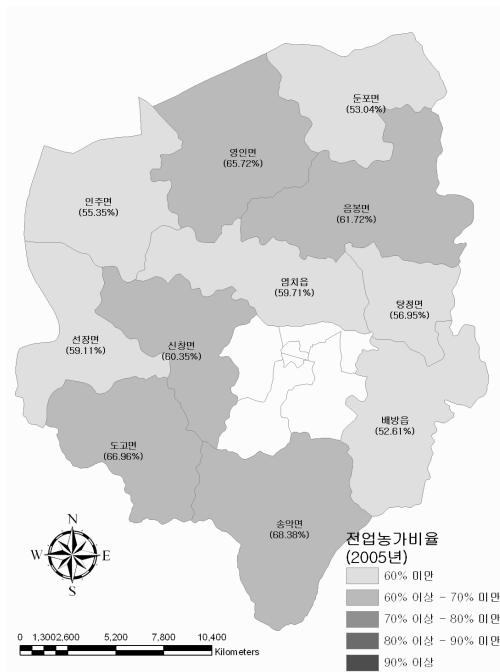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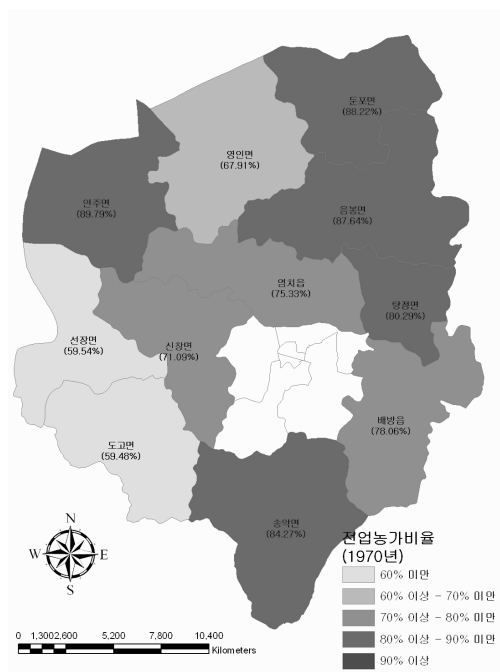


그림 3-18 아산시 읍·면별 전업농가비율(1970, 2005)

①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이 읍면부 평균보다 높은 유형 : 염치읍,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

농가비율 25% 이상, 전업농가비율 59% 이상의 지역에는 염치읍,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농가수가 감소하고, 이와 함께 전업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농가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전업농가의 비율도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특히, 이들 읍면 중에서도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은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농업이 주된 산업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영인면은 아산시 읍면 중 둔포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농가수를 보유하고 있고 2000년 대비 2005년에 농가수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읍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염치읍은 곡교천 주변을 중심으로 평야 농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농가 대부분이 쌀농사, 원예 등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며, 송악면은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 쌀농사 외에 버섯 등 시설원에 농가가 많은 지역이다. 영인면은 쌀농사의 최적지로서 아산시 읍면중 가장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지역이며, 선장면은 낮은 구릉지와 비옥한 평야지대로 쌀과 과수의 주산지라 할 수 있고, 도고면 역시 낮은 구릉지와 평야지역이 다수 분포한 농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적인 특성이 현재까지도 일정한 농가수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읍면을 포함한 모든 읍면에서 농가수의 감소와 함께 전업농가가 감소하고, 반면 겸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2종겸업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농업 중심의 농촌 경제구조가 다양한 산업이 혼재(混在)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0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이 읍면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농가구성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염치읍	농가비율	70.58	55.68	40.42	22.30	16.71	-4.03
	전업	75.37	82.83	56.50	56.01	56.12	-0.84
	겸업	24.63	17.17	43.50	43.99	43.88	1.66
	1종	16.55	12.67	23.09	21.29	11.54	-1.02
	2종	8.09	4.50	20.40	22.69	32.34	4.04
송악면	농가비율	85.03	82.16	68.96	59.64	52.94	-1.35
	전업	84.27	82.53	63.66	60.78	68.38	-0.60
	겸업	15.73	17.47	36.34	39.22	31.62	2.01
	1종	10.54	13.41	16.63	16.81	5.79	-1.70
	2종	5.19	4.06	19.71	22.41	25.83	4.69
영인면	농가비율	79.77	82.57	68.82	56.11	48.02	-1.44
	전업	67.91	91.54	52.59	51.25	65.72	-0.09
	겸업	32.09	8.46	47.41	48.75	34.28	0.19
	1종	24.85	7.56	29.94	30.17	13.92	-1.64
	2종	7.24	0.91	17.47	18.57	20.36	3.00
선장면	농가비율	88.46	85.39	74.10	69.16	59.80	-1.11
	전업	59.54	91.55	44.62	51.77	59.11	-0.02
	겸업	40.46	8.45	55.38	48.23	40.89	0.03
	1종	29.89	7.14	28.23	32.02	19.39	-1.23
	2종	10.57	1.31	27.15	16.20	21.50	2.05
도고면	농가비율	76.38	66.33	60.54	54.58	52.58	-1.06
	전업	59.48	84.68	61.73	63.21	66.96	0.34
	겸업	40.52	15.32	38.27	36.79	33.04	-0.58
	1종	28.81	10.89	18.32	21.24	10.60	-2.82
	2종	11.71	4.43	19.95	15.55	22.43	1.87

* 농가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비율, 전업·겸업 비율은 전체 농가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②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높지만, 전업농가비율은 낮은 유형 : 둔포면, 인주면

농가비율 25% 이상이지만, 전업농가비율 59% 이하인 지역에는 둔포면을 들 수 있다. 둔포면은 2005년 현재 농가수 1,199명으로 읍면지역중 가장 많은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수중 농가수의 비중은 34.05%로 읍면부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둔포면의 대부분이 평야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고 미곡을 중심으로 과수, 낙농이 발달되어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주면은 아산만, 삼교호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곡생산 지역이 분포하는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는 농가비율이 높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둔포면과 인주면 일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증가하고 있는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농가구성에 있어 전업농이 감소하고 겸업농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겸업농의 증가 추세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높지만, 전업농가비율은 낮은 지역의 농가구성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둔포면	농가비율	82.61	66.34	55.06	44.31	34.05	-2.50
	전업	88.22	82.83	60.86	53.32	53.04	-1.44
	겸업	11.78	17.17	39.14	46.68	46.96	4.03
	1종	5.19	12.92	24.01	18.73	16.51	3.36
	2종	6.60	4.25	15.13	27.96	30.44	4.47

* 농가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비율, 전업·겸업 비율은 전체 농가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③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낮지만, 전업농가비율이 높은 유형 : 음봉면, 신창면

농가비율 25% 이하이지만, 전업농가비율 59% 이상인 지역에는 음봉면, 신창면이 있다. 이들 지역은 농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2005년 현재 농가비율은 음봉면 18.06%, 신창면 13.31%로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농가의 전업농가 비율이 음봉면 61.72%, 신창면 60.3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록 도시화·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의 농업자원 등으로 인해 전업농가의 비율이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음봉면은 최근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 및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낙농업 및 사육사육이 발달한 부촌으로 둔포면과 함께 배 재배지로 유명하다. 또한, 신창면은 역시 아산 시가지의 확장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곡교천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평야지대의 벼농사 재배와 함께 저산성 구릉지에서의 과수재배로 농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자원 및 잠재력이 아직까지는 전업농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농가비율은 읍면부 평균보다 낮지만, 전업농가비율이 높은 유형의 농가구성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음봉면	농가비율	90.69	79.31	70.11	27.46	18.06	-4.51
	전업	87.64	85.31	74.63	54.58	61.72	-1.00
	겸업	12.36	14.69	25.37	45.42	38.28	3.28
	1종	8.43	9.49	19.83	26.17	10.92	0.74
	2종	3.94	5.19	5.54	19.25	27.36	5.70
신창면	농가비율	88.18	76.14	67.71	23.20	13.31	-5.26
	전업	71.09	90.34	67.56	61.91	60.35	-0.47
	겸업	28.91	9.66	32.44	38.09	39.65	0.91
	1종	20.63	8.29	10.89	19.66	10.46	-1.92
	2종	8.28	1.37	21.55	18.43	29.19	3.67

* 농가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비율, 전업·겸업 비율은 전체 농가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④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 모두 읍면부 평균보다 낮은 유형 : 배방읍, 탕정면

농가비율 25% 이하, 전업농가비율 59% 이하인 지역에는 배방읍, 탕정면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음봉면, 신창면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이며, 특히 최근에는 탕정지방산업단지 조성, 아산신도시 개발 등의 산업화·도시화의 중심지역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5년 현재 배방읍은 농가비율 12.98%, 전업농가 비율 52.61%이고

특히, 겸업농가 비율 47.39%로 아산시 읍·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탕정면은 농가비율 16.11%, 전업농가 비율 56.95%, 겸업농가 비율 43.05%를 보이고 있다.

표 3-13 농가비율과 전업농가비율 모두 읍면부 평균보다 낮은 유형의 농가구성
(단위 : %)

행정구역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배방읍	농가비율	77.35	46.67	35.44	18.92	12.98	-4.97
	전업	78.06	67.61	42.30	59.19	52.61	-1.12
	겸업	21.94	32.39	57.70	40.81	47.39	2.23
	1종	13.75	24.92	29.90	18.10	10.76	-0.70
	2종	8.19	7.47	27.80	22.71	36.63	4.37
탕정면	농가비율	61.30	78.83	83.16	21.34	16.11	-3.75
	전업	80.29	79.48	50.46	58.36	56.95	-0.98
	겸업	19.71	20.52	49.54	41.64	43.05	2.26
	1종	12.24	14.29	27.35	19.18	10.26	-0.50
	2종	7.46	6.24	22.20	22.46	32.78	4.32

* 농가수의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비율, 전업·겸업 비율은 전체 농가수에 대한 비율로 산정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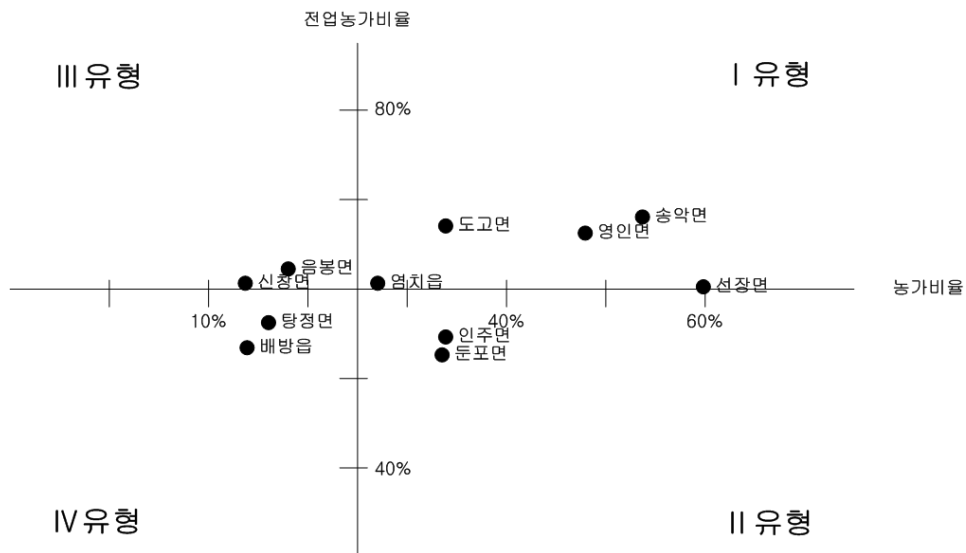


그림 3-19 아산시 농가형태에 따른 읍·면별 유형

4. 토지이용 변화

1)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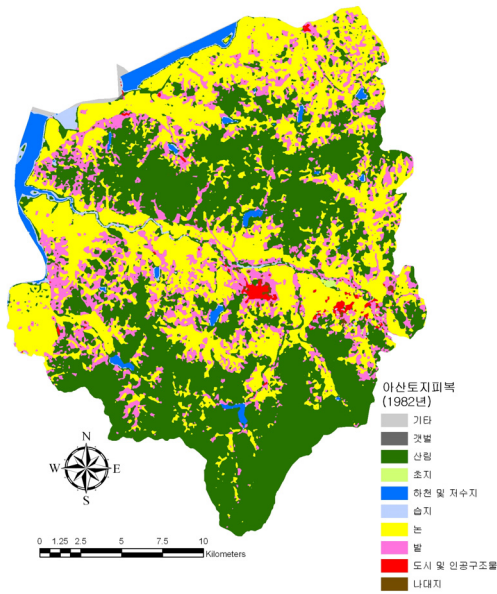
아산시의 토지이용변화는 1982년 이후 산림, 습지, 논, 밭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하천 및 저수지, 도시 및 인공구조물, 나대지의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은 1982년 3.40km²에서 2009년 45.24km²으로 증가하여 13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06%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논, 밭의 면적은 2009년 현재 134.45km²로 1982년 대비 58.95km²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밭의 면적 역시 2009년 현재 60.94km²으로 1982년 대비 20.29km²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산림은 2009년 현재 218.50km²으로 1982년 대비 20.84km²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산시는 도시적 토지이용의 면적이 증가함과 동시에 농촌적 토지이용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하천 및 저수지의 면적은 2009년 현재 18.65km²으로 연평균 0.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습지의 면적은 0.75km²으로 연평균 -7.7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나대지는 6.41km²으로 연평균 6.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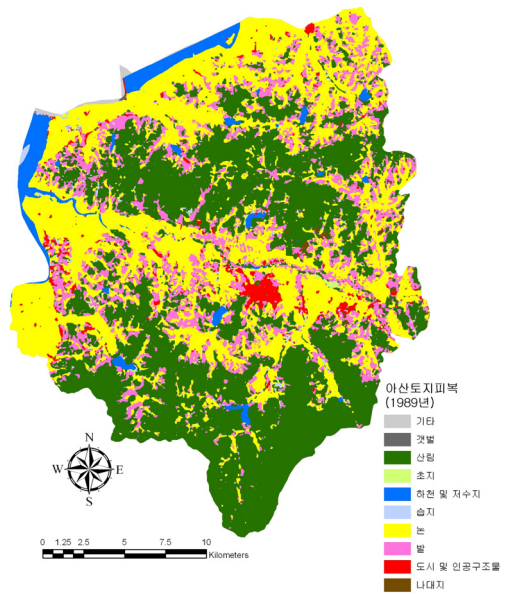
표 3-14 아산시 토지이용변화(1982~2009)

(단위 : k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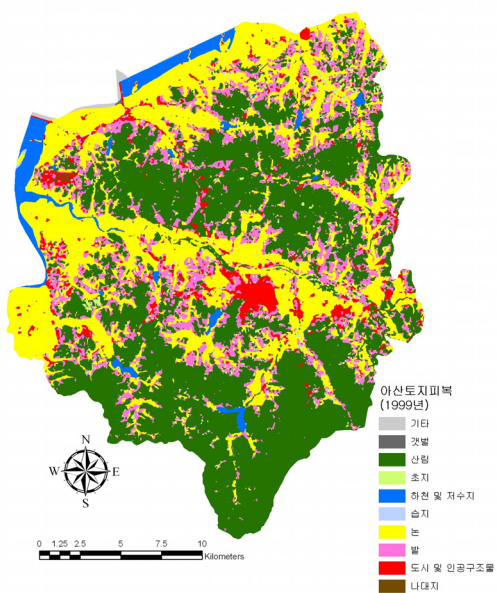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	연평균 증감률
산 림	239.34	223.63	241.65	218.50	-0.35%
하천 및 저수지	15.88	18.28	17.76	18.65	0.60%
습 지	6.60	6.17	3.90	0.75	-7.76%
논	193.40	192.27	162.83	134.45	-1.34%
밭	81.23	85.27	79.58	60.94	-1.06%
도시 및 인공구조물	3.40	11.21	24.54	45.24	10.06%
나대지	1.07	2.73	3.45	6.41	6.86%
기 타	2.70	4.63	10.30	58.65	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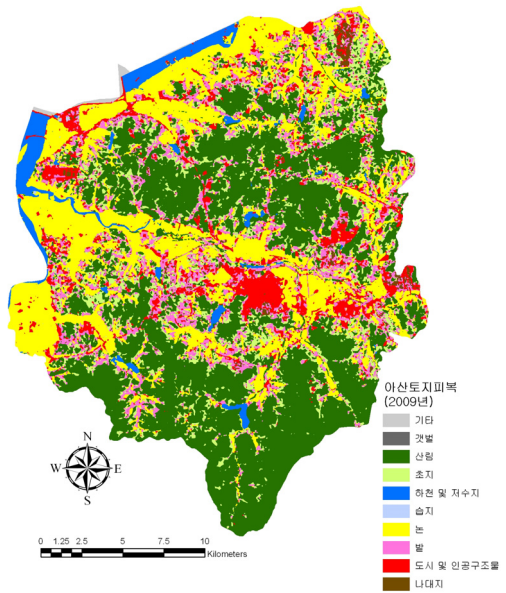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

그림 3-20 아산시 토지이용변화(1982~2009)

2) 산림

토지이용변화 중 산림지역의 면적변화를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 동부는 1982년 13,284,067㎡에서 2009년 11,226,651㎡으로 증가하여 총 2,057,416㎡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0.6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읍면부는 1982년 226,054,090㎡에서 2009년 207,269,857㎡으로 18,784,234㎡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32%의 감소율을 보여 동부 지역보다는 감소율이 작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인주면의 감소면적이 4,617,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도고면, 염치읍, 배방읍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둔포면은 유일하게 743,873㎡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현재 읍면지역의 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송악면 80.89%, 도고면 52.20%, 음봉면 52.13%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선장면이 11.8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5 아산시 읍면동별 산림 면적 변화(1982~2009)

(단위 : ㎡, %)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	증가면적 ('09-'82)	면적 비율*
아산시	239,338,157	223,634,743	241,648,415	218,496,507	-20,841,650	36.21
동부	13,284,067	11,687,892	13,400,072	11,226,651	-2,057,416	22.40
읍면부	226,054,090	211,946,851	228,248,343	207,269,857	-18,784,234	38.24
염치읍	23,006,848	21,597,263	23,122,405	20,533,333	-2,473,515	45.14
배방읍	24,957,336	24,005,587	26,537,339	23,021,818	-1,935,517	44.39
송악면	52,775,638	52,091,350	53,387,213	51,172,215	-1,603,423	80.89
탕정면	9,431,451	8,840,830	10,445,485	8,334,457	-1,096,995	35.71
음봉면	31,990,175	30,469,892	33,045,994	31,535,272	-454,903	52.13
둔포면	5,649,667	4,936,387	7,541,003	6,393,540	743,873	15.83
영인면	18,595,184	17,193,301	18,421,461	17,138,588	-1,456,596	32.05
인주면	15,141,172	12,502,875	12,306,936	10,524,140	-4,617,032	22.36
선장면	6,486,170	4,898,327	5,727,802	4,851,961	-1,634,208	11.82
도고면	27,916,542	26,333,332	26,458,134	24,368,044	-3,548,498	52.20
신창면	10,103,907	9,077,706	11,254,571	9,396,489	-707,418	23.33

* 면적비율은 2009년 기준 읍면동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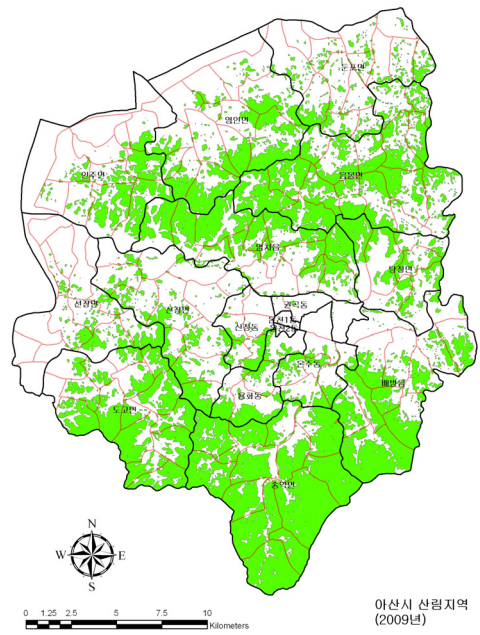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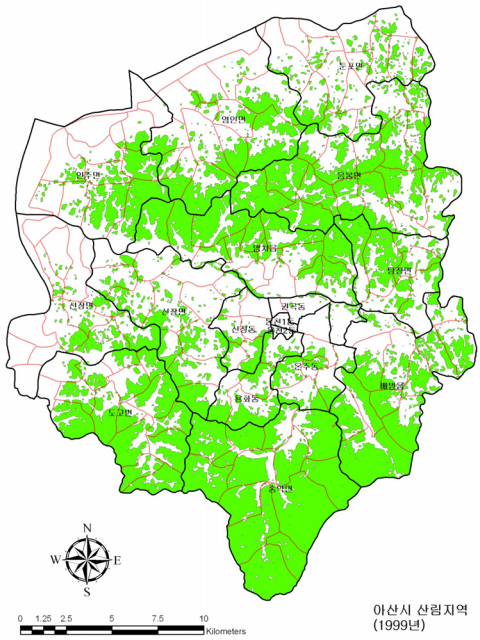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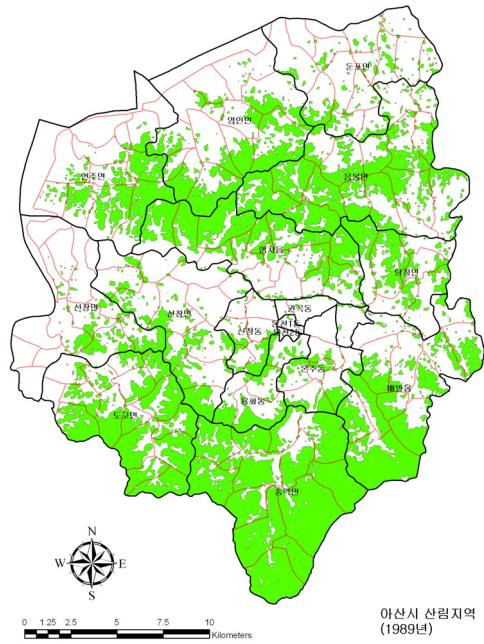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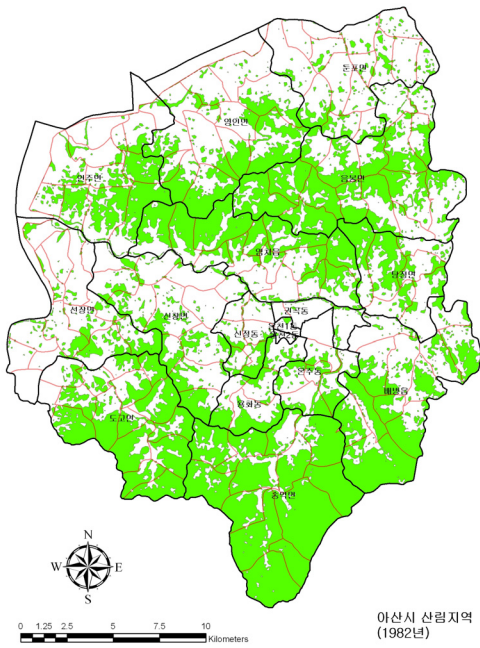


그림 3-21 아산시 산림지역 변화(1982~2009)

읍면지역에 있어 2009년의 산림면적 비율 읍면평균값 38.24%와 1982년 대비 2009년 산림면적의 증가정도 읍면평균값 -131,358㎡를 기준으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면 첫째, 산림면적 비율과 산림면적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둘째, 산림면적 비율은 낮지만, 산림면적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셋째, 산림면적 비율은 읍면 평균값보다 높지만, 산림면적의 증가정도가 높은 유형, 넷째, 산림면적 비율과 산림면적의 증가정도가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6 아산시 산림변화 유형

구 분		산림면적 비율	
		낮음(38.24% 이하)	높음(38.24% 이상)
산림면적 증가정도	낮음 (-131,358㎡ 이하)	엄치읍 석정리, 송곡리, 백암리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탕정면 월서리, 백석포리, 구성리 영인면 모원리, 밀두리, 문방리, 인주면 대읍리, 금성리, 선창리, 선장면 둔포리, 신성리, 신문리 도고면 대흥리, 신문리 신창면 행목리	엄치읍 산양리, 서원리, 동정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공수리, 송악면 세출리, 갈매리, 외암리, 마곡리, 궁평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장리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산정리, 원남리 영인면 상성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선장면 죽산리 도고면 효자리, 금산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와산리 신창면 읍내리
	높음 (-131,358㎡ 이상)	엄치읍 중방리, 곡교리, 석두리, 방현리 배방읍 북수리, 구령리 탕정면 갈사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신후리, 산동리, 덕지리 둔포면 신둔포리,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신양리, 신항리, 관대리, 산전리, 신암리, 동재리, 운교리, 운용리, 영인면 신작리, 와우리, 창용리, 신봉리, 신화리 인주면 공세리, 신성리, 걸매리, 관암리 선장면 군덕리, 신덕리, 대정리, 장곳리, 신동리, 홍곳리, 가산리, 궁평리 도고면 신언리, 봉농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오목리, 창암리, 수장리, 신달리, 남성리, 공화리, 가덕리, 신곡리, 가내리	엄치읍 강청리, 염성리, 쌍죽리, 대동리 배방읍 신흥리, 회룡리 송악면 신촌리, 평촌리, 강당리, 유곡리, 수곡리, 동화리, 음봉면 신정리, 소동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월랑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신왕리 영인면 이왕리, 신현리, 성내리, 역리 도고면 시전리, 신유리 신창면 황산리

3) 농경지

토지이용변화 중 농경지의 면적변화를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 동부는 1982년 29,116,911㎡에서 2009년 17,664,145㎡으로 증가하여 총 11,452,767㎡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1.83%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읍면부는 1982년 245,166,448㎡에서 2009년 175,870,140㎡으로 69,296,308㎡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22%의 감소율을 보여 동부 지역보다는 감소율이 작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둔포면의 농경지 감소면적이 12,793,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음봉면, 신창면, 배방읍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도고면의 감소면적은 1,936,194㎡로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현재 읍면지역의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선장면 70.23%, 신창면 53.89%, 둔포면 53.46%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송악면이 9.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7 아산시 읍면동별 농경지 면적 변화(1982~2009)

(단위 : ㎡, %)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	증가면적 (' 09- ' 82)	면적 비율*
아산시	274,283,359	276,155,460	240,400,008	193,534,284	-80,749,075	39.94
동부	29,116,911	27,399,245	22,829,253	17,664,145	-11,452,767	36.18
읍면부	245,166,448	248,756,215	217,570,755	175,870,140	-69,296,308	40.49
염치읍	17,740,225	18,039,013	16,485,048	13,718,884	-4,021,341	36.08
배방읍	20,806,735	21,076,123	16,888,309	13,552,633	-7,254,103	29.80
송악면	7,845,577	8,027,139	6,421,602	4,964,538	-2,881,038	9.47
탕정면	13,346,424	13,117,024	10,587,674	7,401,733	-5,944,692	33.49
음봉면	26,979,926	27,146,257	22,163,307	14,492,277	-12,487,648	24.66
둔포면	34,584,272	34,274,266	28,858,248	21,790,561	-12,793,711	53.46
영인면	30,188,705	30,630,311	27,735,473	23,393,044	-6,795,661	49.07
인주면	21,491,548	23,741,968	22,148,622	18,234,754	-3,256,794	51.28
선장면	27,787,581	27,888,048	26,082,026	23,860,296	-3,927,285	70.23
도고면	15,087,782	15,580,242	14,784,527	13,151,588	-1,936,194	32.76
신창면	29,307,673	29,235,825	25,415,920	21,309,831	-7,997,841	53.89

* 면적비율은 2009년 기준 읍면동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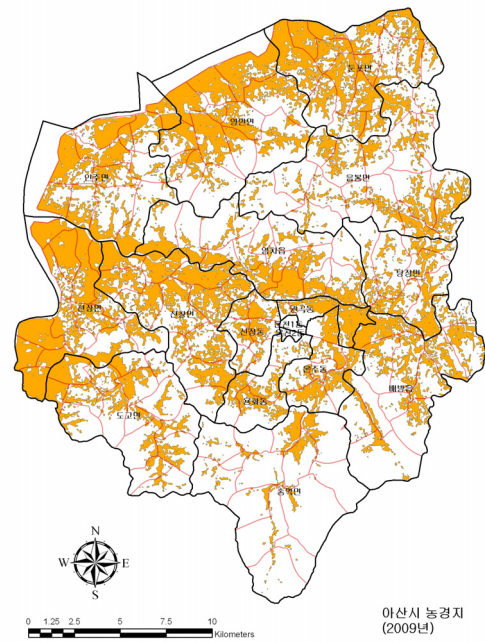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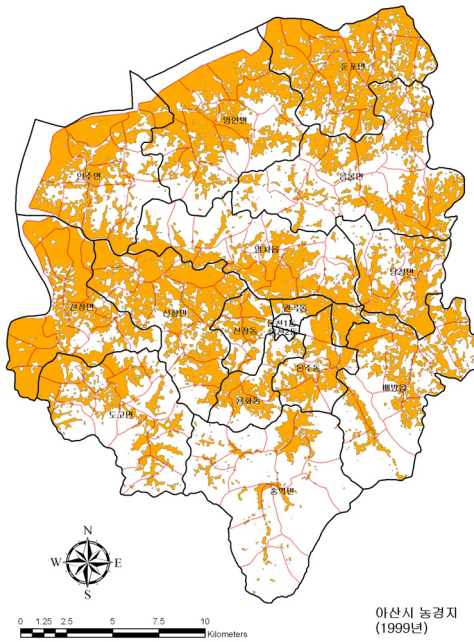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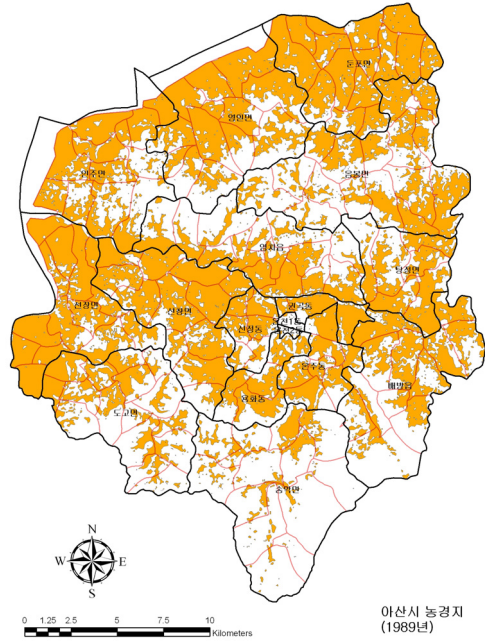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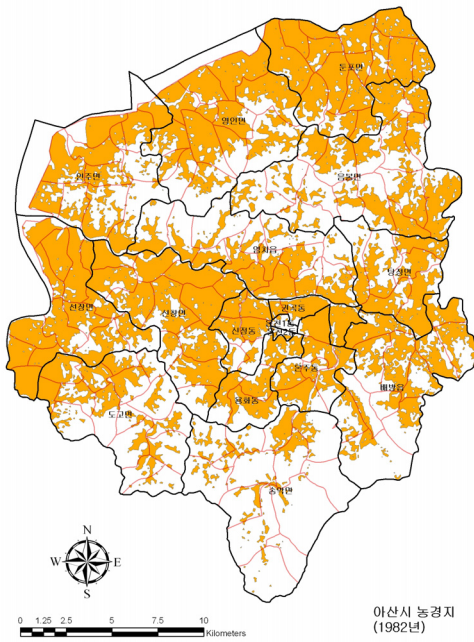


그림 3-22 아산시 농경지 변화(1982~2009)

읍면지역에 있어 2009년의 농경지 비율 읍면평균값 40.49%와 1982년 대비 2009년 농경지 면적의 증가정도 읍면평균값 484,590㎡를 기준으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면 첫째, 농경지 비율과 농경지 면적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둘째, 농경지 비율은 낮지만, 농경지 면적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셋째, 농경지 비율은 읍면 평균값보다 높지만, 농경지 면적의 증가정도가 높은 유형, 넷째, 농경지 비율과 농경지 면적의 증가정도가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8 아산시 농경지 변화 유형

구 분		농경지 비율	
		낮음(40.49% 이하)	높음(40.49% 이상)
농경지 면적 증가정도	낮음 (-484,590㎡ 이하)	염치읍 염성리, 백암리 배방읍 중리, 공수리, 북수리, 세출리, 갈매리, 휴대리, 장재리 송악면 수곡리 탕정면 웅두리, 명암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신수리, 원남리, 소동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월랑리, 산동리, 동암리 둔포면 신항리, 신양리, 석곡리, 신왕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성내리, 해암리 선장면 신성리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염치읍 방현리 배방읍 세교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음봉면 신희리, 덕지리 둔포면 둔포리, 신남리, 관대리, 산전리, 운교리, 운용리 영인면 신운리, 창용리, 신봉리, 신화리 인주면 공세리 선장면 군덕리, 선창리, 신동리, 궁평리, 오목리, 창암리, 남성리, 궁화리, 가내리
	높음 (-484,590㎡ 이상)	염치읍 산양리, 강청리, 서원리, 쌍죽리, 동정리, 송곡리, 대동리 배방읍 수철리, 신희리, 회룡리 송악면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궁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장리, 동화리 음봉면 삼거리, 동천리, 산정리, 송촌리 둔포면 봉재리 영인면 상성리, 신희리, 역리 인주면 도흥리, 냉정리 선장면 죽산리 도고면 효자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와산리 신창면 읍내리, 황산리	염치읍 중방리, 곡교리, 석두리, 석정리 배방읍 구령리 음봉면 신정리 둔포면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영인면 월선리, 백석포리, 와우리 구성리 인주면 신성리, 걸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관암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곳리, 대흥리, 홍곳리, 가산리, 신문리 도고면 신언리, 봉농리, 향산리, 신통리 신창면 수장리, 신달리, 가덕리, 신평리

4) 도시 및 인공구조물

토지이용변화 중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변화를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 동부는 1982년 1,536,773㎡에서 2009년 9,900,412㎡으로 증가하여 총 8,363,639㎡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동부 평균 30.64%의 증감률을 보였다. 반면, 읍면부는 1982년 1,866,669㎡에서 2009년 33,474,056㎡으로 18배에 가까운 면적증가를 보였으며, 읍면동 평균 40.84%의 증가율을 보여 동부지역과 함께 읍면지역에서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인주면이 증가면적이 5,108,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둔포면, 배방읍, 탕정면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송악면이 401,349㎡가 증가하여 읍면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면적증가를 보였다. 또한, 읍면지역의 면적 대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탕정면 15.26%, 인주면 13.33%, 배방읍 10.65%, 둔포면 10.08%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송악면이 0.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9 아산시 읍면동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변화(1982~2009)

(단위 : ㎡, %)

	1982년	1989년	1999년	2009년	증가면적 (' 09-' 82)	면적 비율*
아산시	3,403,443	11,207,627	24,542,787	45,241,138	41,837,695	10.33
동부	1,536,773	4,184,363	7,020,130	9,900,412	8,363,639	27.52
읍면부	1,866,669	7,023,264	17,522,657	35,340,726	33,474,056	7.81
염치읍	24,640	619,641	1,439,559	2,412,742	2,388,103	5.76
배방읍	1,196,292	1,415,871	2,700,217	5,111,496	3,915,204	10.65
송악면	42,598	97,887	144,730	443,947	401,349	0.72
탕정면	70,298	190,736	859,086	3,493,616	3,423,318	15.26
음봉면	4,275	274,127	1,442,229	3,176,405	3,172,129	5.33
둔포면	185,340	748,814	1,706,569	4,122,084	3,936,744	10.08
영인면	102,573	396,861	1,589,211	3,359,146	3,256,573	6.78
인주면	69,024	663,904	2,685,602	5,177,862	5,108,838	13.33
선장면	25,971	1,209,644	1,908,913	2,755,765	2,729,794	7.77
도고면	99,527	607,247	1,122,075	1,841,045	1,741,517	4.20
신창면	46,132	798,532	1,924,465	3,446,619	3,400,487	8.59

* 면적비율은 2009년 기준 읍면동 면적 대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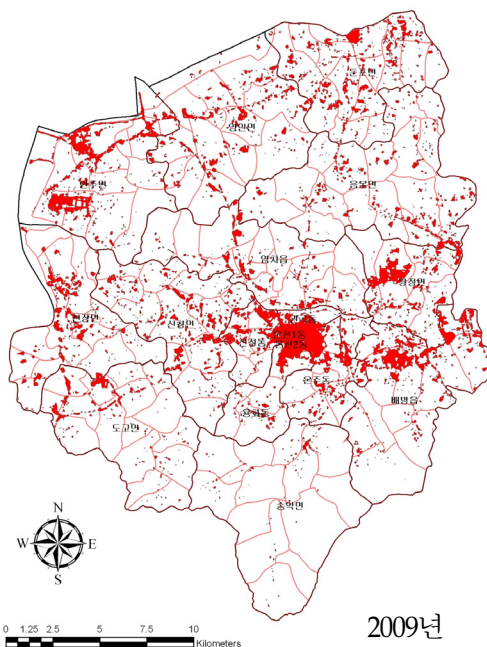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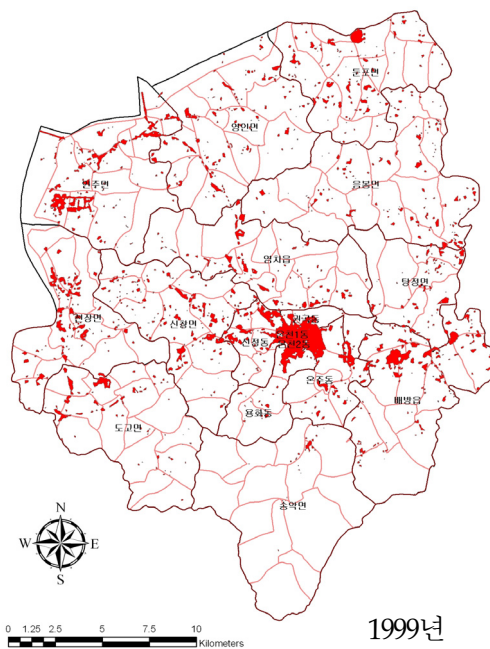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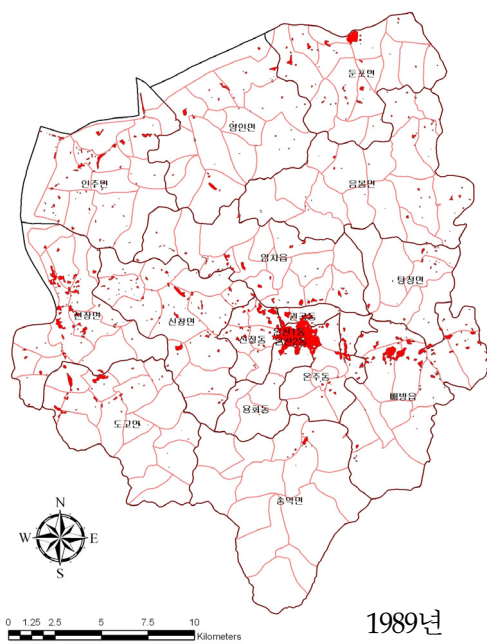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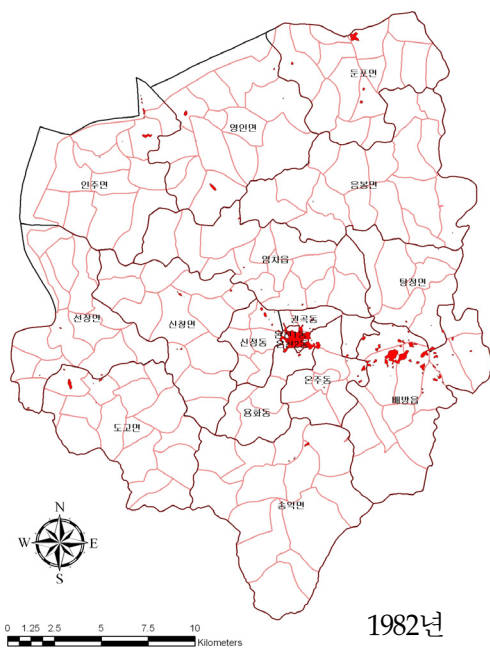


그림 3-23 아산시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변화(1982~2009)

읍면지역에 있어 읍면 면적 대비 2009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읍면평균값 7.81%와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 읍면평균값 234,084m²를 기준으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면 첫째,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과 증가면적이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둘째, 면적비율은 높지만, 증가면적이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셋째, 면적비율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지만, 증가면적은 높은 유형, 넷째, 면적비율과 증가면적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과 증가면적이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I)

읍면 면적 대비 2009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상이고,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이 234,084m² 이상인 지역에는 염치읍 염성리, 배방읍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삼거리, 둔포면 둔포리 등 45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90년대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에 따른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이 급속히 증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배방읍 장재리는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이 33.80%로 리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속전철 천안아산역이 위치하고 아산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역이라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탕정면 명함리는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이 1,563,777m²로 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증가한 지역으로, 이는 9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탕정지방산업단지의 영향으로 보인다.

②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은 높지만, 증가면적이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II)

읍면 면적 대비 2009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상이지만,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이 234,084m² 이하인 지역에는 염치읍 중방리, 배방읍 갈매리, 둔포면 시포리, 영인면 와우리, 인주면 신성리 등 11개 리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1982년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또는 리의 면적이 작아 읍면 평균 이하의 면적 증가에도 전체 면적 대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③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지만, 증가면적은 높은 유형(III)

읍면 면적 대비 2009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하이지만,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이 234,084m² 이상인 지역에는 읍치읍 서원리, 음봉면 원남리, 영인면 아산리, 선장면 대흥리 등 8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읍면 평균 이상의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의 면적이 커서 전체 면적 대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이 읍면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과 증가면적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IV)

읍면 면적 대비 2009년의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하이고, 동시에 1982년 대비 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이 234,084m² 이하인 지역에는 읍치읍 산양리, 배방면 중리, 송악면 역촌리, 음봉면 동천리, 둔포면 송용리 등 78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1982년 당시부터 도시 및 인공구조물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후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증가를 보여 2009년 현재 전체 면적 대비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이 읍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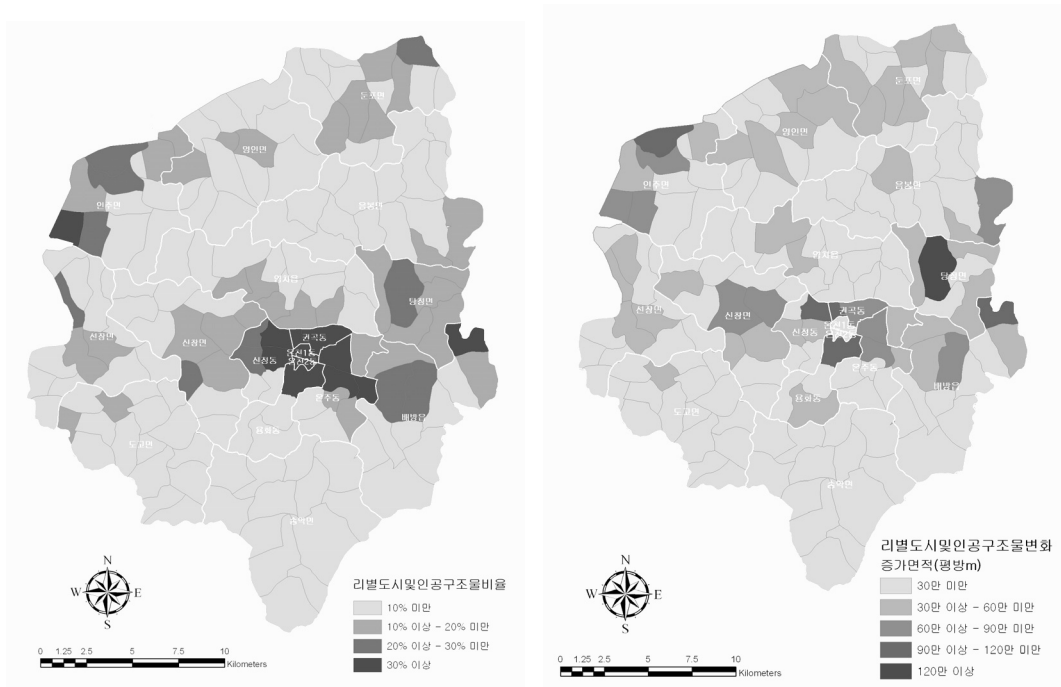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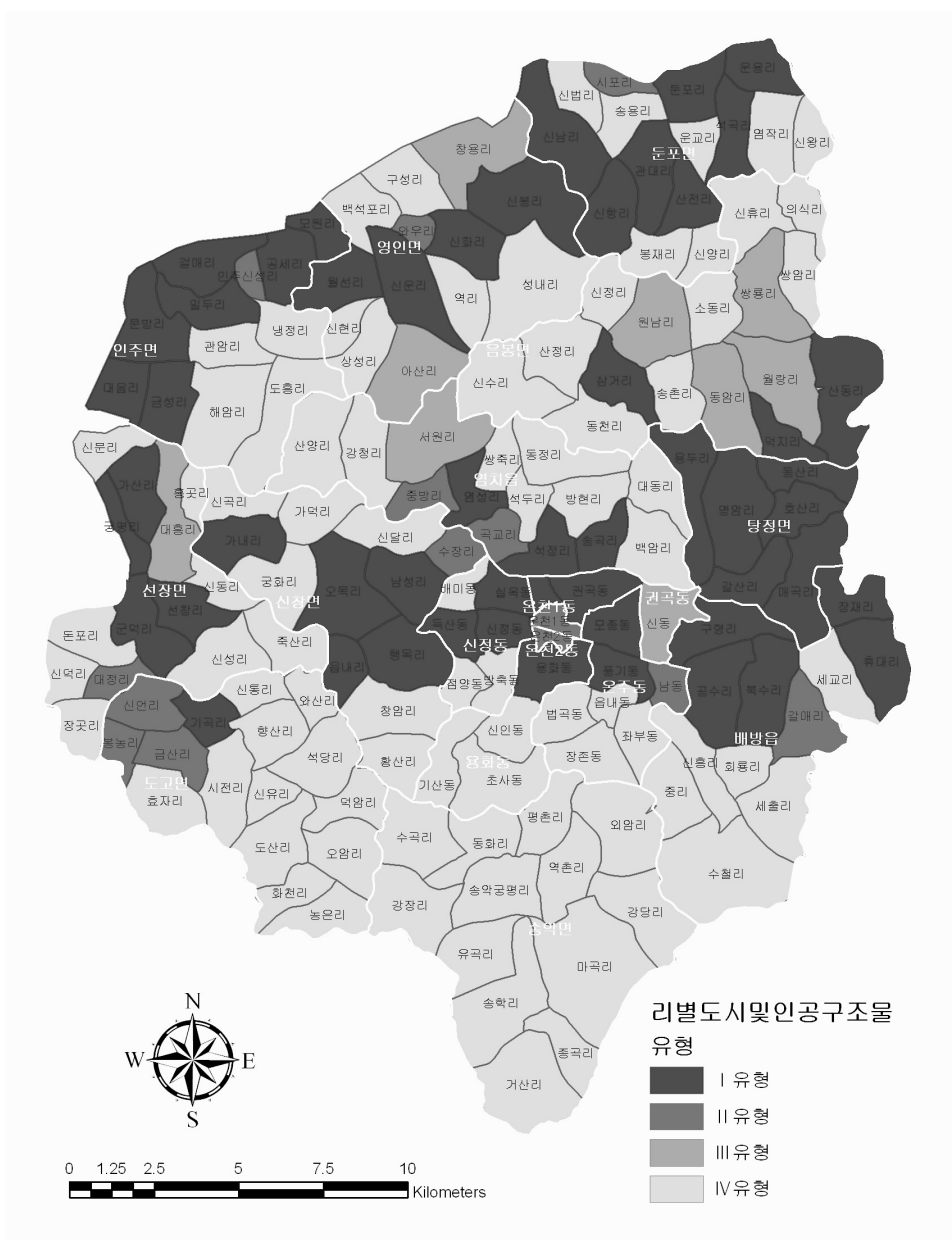


그림 3-24 아산시 리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 및 증가면적('09-'82)



I 유형 :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상, 증가면적이 234,084㎡ 이상
 II 유형 :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상, 증가면적이 234,084㎡ 이하
 III 유형 :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하, 증가면적이 234,084㎡ 이상
 IV 유형 :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면적비율 7.81%이하, 증가면적이 234,084㎡ 이하

그림 3-25 아산시 리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변화 유형

5. 공간구조 변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한 공간구조 변화 분석에서 아산시는 중심성을 의미하는 연결도(Connectivity)가 1977년 2.12에서 2009년 2.5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위공간에 연결된 다른 공간들의 개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각 공간들의 중심성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부의 경우, 1977년 2.41에서 2009년 3.10으로 0.69(동부 평균 1.27)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부는 1977년 2.08에서 2009년 2.51로 0.43(읍면부 평균 0.96)이 증가하여, 읍면부에 비해 동부의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 연결도에 있어서는 도고면이 1977년 1.66에서 2009년 2.56으로 0.90(면 평균 1.47)이 증가하여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탕정면 0.62(면 평균 0.97), 배방읍 0.54(읍 평균 1.41)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염치읍이 0.13(읍 평균 0.29)으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2009년 현재 연결도는 인주면이 2.76, 탕정면 2.72, 신창면 2.64 등의 순서이며, 송악면이 2.14로 가장 낮다

표 3-20 아산시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변화(1977~2009)

	1977년	1986년	2003년	2009년	증감 (‘09-’77)	읍면동 평균증감
아산시	2.12	2.29	2.52	2.59	0.47	1.00
동부	2.41	2.78	2.89	3.10	0.69	1.27
읍면부	2.08	2.21	2.46	2.51	0.44	0.96
염치읍	2.15	2.29	2.50	2.29	0.13	0.29
배방읍	2.09	2.27	2.48	2.63	0.54	1.41
송악면	1.77	2.00	2.22	2.14	0.38	0.92
탕정면	2.11	2.32	2.30	2.72	0.62	0.97
음봉면	2.05	2.18	2.47	2.46	0.40	0.66
둔포면	2.16	2.24	2.77	2.50	0.35	1.04
영인면	2.18	2.42	2.59	2.69	0.52	1.02
인주면	2.29	2.11	2.58	2.76	0.46	0.77
선장면	2.08	1.95	2.27	2.44	0.37	0.85
도고면	1.66	2.26	2.49	2.56	0.90	1.47
신창면	2.38	2.19	2.28	2.64	0.25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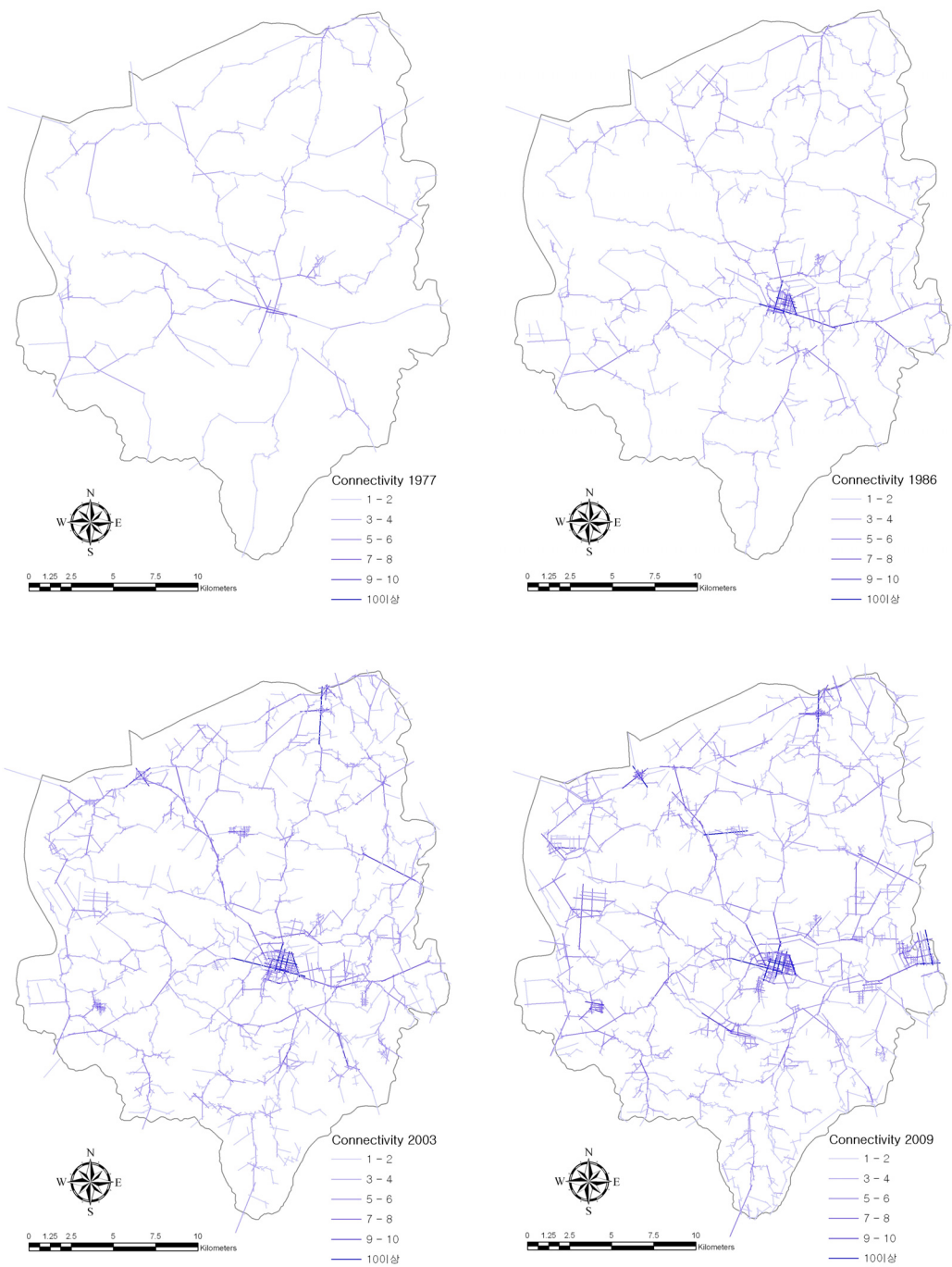


그림 3-26 아산시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변화(1977~2009)

읍면지역에 있어 2009년의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읍면평균값 2.51과 1977년 대비 2009년 중심성의 증가정도 읍면평균값 0.96을 기준으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면 첫째, 중심성과 중심성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둘째, 중심성은 높지만, 중심성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셋째, 중심성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지만, 중심성의 증가정도가 높은 유형, 넷째, 중심성과 중심성의 증가정도가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1 아산시 리별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유형

구 분		중심성(연결도, Connectivity)	
		높음(2.51 이상)	낮음(2.51 이하)
중심성 증가정도	높음 (0.96 이상)	배방읍 공수리, 복수리, 휴대리, 장재리 음봉면 동천리, 원남리, 쌍룡리, 동암리 둔포면 둔포리, 송용리, 관대리 영인면 신현리, 신운리 인주면 공세리, 대음리, 금성리 선장면 대흥리, 가산리 도고면 신언리, 덕암리, 기곡리 신창면 신달리, 신곡리	염치읍 쌍죽리 배방읍 중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송악면 평촌리, 강당리, 유곡리, 종곡리, 동화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신수리, 의식리, 송촌리 둔포면 신법리, 산전리, 신양리, 운교리, 신왕리 영인면 와우리, 역리 인주면 해암리, 냉정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신성리 도고면 효자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오암리, 석당리, 신통리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수장리
	낮음 (0.96 이하)	염치읍 강청리, 서원리, 염성리, 곡교리, 백암리 배방읍 신흥리 송악면 역촌리 탕정면 용두리, 갈산리, 명암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소동리, 덕지리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월선리, 백석포리 인주면 갈매리, 밀두리, 관암리 선장면 군덕리, 죽산리 도고면 금산리, 와산리 신창면 읍내리, 남성리, 가덕리	염치읍 산양리, 중방리, 동정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대동리 배방읍 수철리, 세교리, 구령리 송악면 외암리, 마곡리, 궁평리, 송학리, 거산리, 강장리, 수곡리 음봉면 삼거리, 산정리, 신정리, 신희리, 쌍암리, 월랑리, 산동리 둔포면 시포리, 신남리, 신항리, 봉재리, 운용리 영인면 창용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문방리, 도흥리 선장면 대정리, 장곡리, 선창리, 신통리, 흥곡리, 신문리, 궁평리 도고면 봉농리, 농은리, 향산리 신창면 오목리, 행목리, 궁화리, 가내리

아산시는 전체접근성을 의미하는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가 1977년 0.06에서 2009년 0.1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주변 공간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계수로서, 통합도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지역으로의 상대적인 접근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산시 동부의 경우, 1977년 0.39에서 2009년 0.09로 -0.30(동부 평균 -0.20)이 감소하였으며, 읍면부는 1977년 0.01에서 2009년 0.10으로 0.10(읍면부 평균 0.10)이 증가하여, 읍면부의 상대적인 접근성이 비해 동부에 비해 더욱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 전체통합도에 있어서는 송악면이 1977년 -1.23에서 2009년 0.13으로 1.37(면 평균 0.99)가 증가하여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염치읍 0.12(면 평균 0.15), 탕정면 0.12(읍 평균 0.17)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선장면이 -0.22(면 평균 -0.09)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2009년 현재 전체통합도는 염치읍 0.49, 탕정면 0.41, 신창면 0.32 등의 순서이며, 배방읍이 -0.69로 가장 낮다.

표 3-22 아산시 전체접근성(전체통합도, Glob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1977년	1986년	2003년	2009년	증감 (’09-’77)	읍면동 평균증감
아산시	0.06	0.12	0.32	0.11	0.04	0.06
동부	0.39	0.27	0.48	0.09	-0.30	-0.20
읍면부	0.01	0.09	0.30	0.11	0.10	0.10
염치읍	0.37	0.18	0.46	0.49	0.12	0.15
배방읍	0.32	0.34	0.20	-0.69	-1.01	-0.87
송악면	-1.23	-0.55	0.29	0.13	1.37	0.99
탕정면	0.29	0.32	0.18	0.41	0.12	0.17
음봉면	0.30	0.22	0.35	0.23	-0.07	-0.03
둔포면	0.24	0.24	0.25	0.31	0.08	0.15
영인면	0.27	0.27	0.31	0.31	0.04	0.10
인주면	0.22	0.24	0.35	0.04	-0.18	-0.11
선장면	0.24	-0.93	0.09	0.02	-0.22	-0.09
도고면	-1.19	0.23	0.32	-0.31	0.88	0.38
신창면	0.32	0.32	0.40	0.32	0.00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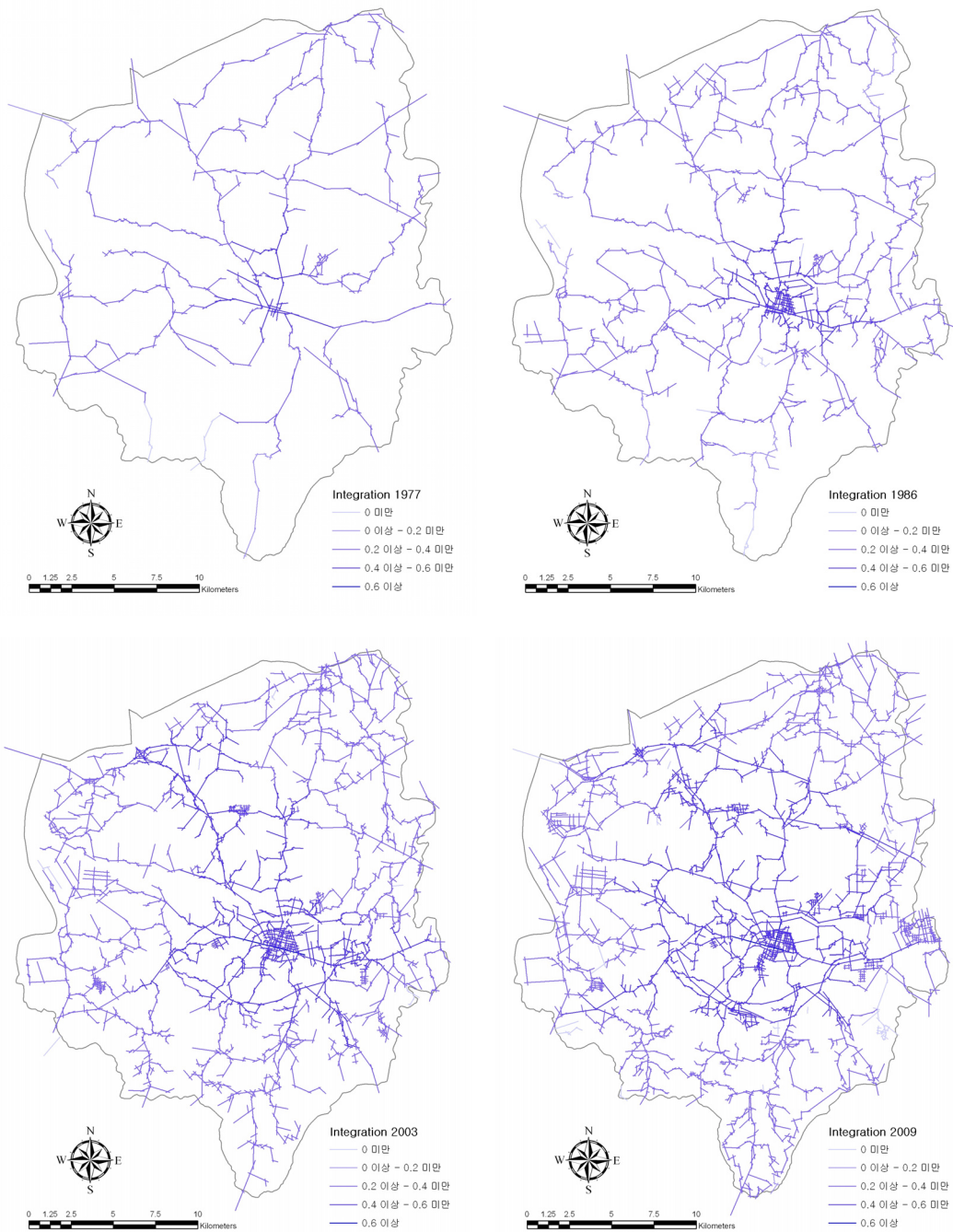


그림 3-27 아산시 전체접근성(전체통합도, Glob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한편, 아산시 국부접근성을 의미하는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가 1977년 1.18에서 2009년 1.4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부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주변 공간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계수로서, 국부통합도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산시 동부의 경우, 1977년 1.42에서 2009년 1.76으로 0.34(동부 평균 0.68)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부는 1977년 1.14에서 2009년 1.45로 0.31(읍면부 평균 0.59)이 증가하여, 역시 읍면부에 비해 동부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 국부통합도에 있어서는 도고면이 1977년 0.88에서 2009년 1.44로 0.55(면 평균 0.85)가 증가하여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탕정면 0.46(면 평균 0.66), 배방읍 0.40(읍 평균 0.86)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신창면이 0.17(면 평균 0.73)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2009년 현재 국부통합도는 탕정면 1.64, 영인면 1.62, 인주면 1.55 등의 순서이며, 송악면이 1.19로 가장 낮다.

표 3-23 아산시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1977년	1986년	2003년	2009년	증감 (‘09-‘77)	읍면동 평균증감
아산시	1.18	1.29	1.44	1.49	0.31	0.61
동부	1.42	1.59	1.68	1.76	0.34	0.68
읍면부	1.14	1.23	1.40	1.45	0.31	0.59
염치읍	1.19	1.30	1.46	1.38	0.20	0.28
배방읍	1.11	1.28	1.39	1.51	0.40	0.86
송악면	0.85	1.08	1.21	1.19	0.34	0.60
탕정면	1.17	1.33	1.33	1.64	0.46	0.66
음봉면	1.17	1.21	1.42	1.41	0.25	0.39
둔포면	1.19	1.25	1.58	1.44	0.25	0.63
영인면	1.22	1.37	1.52	1.62	0.41	0.69
인주면	1.26	1.14	1.49	1.55	0.29	0.45
선장면	1.18	1.00	1.28	1.36	0.18	0.47
도고면	0.88	1.28	1.40	1.44	0.55	0.85
신창면	1.35	1.24	1.30	1.51	0.17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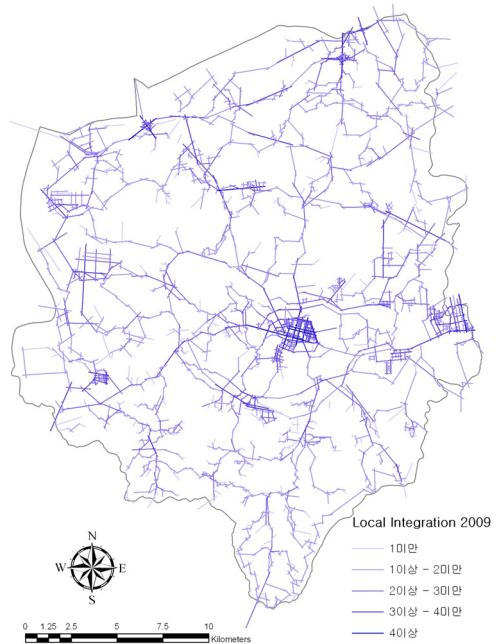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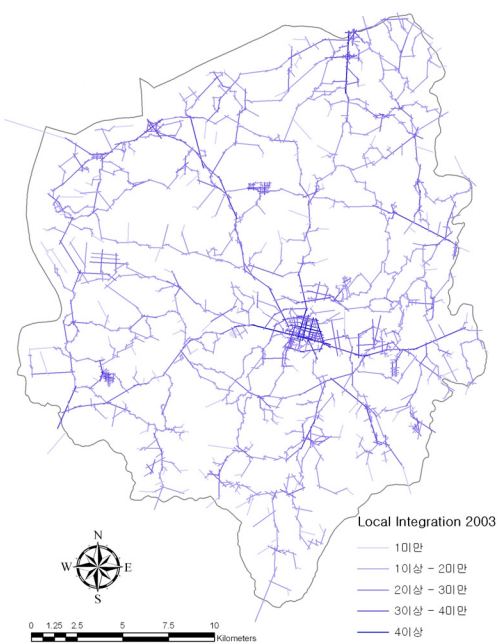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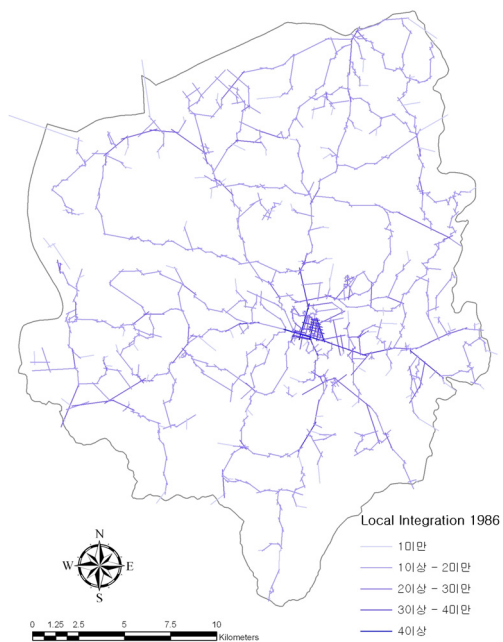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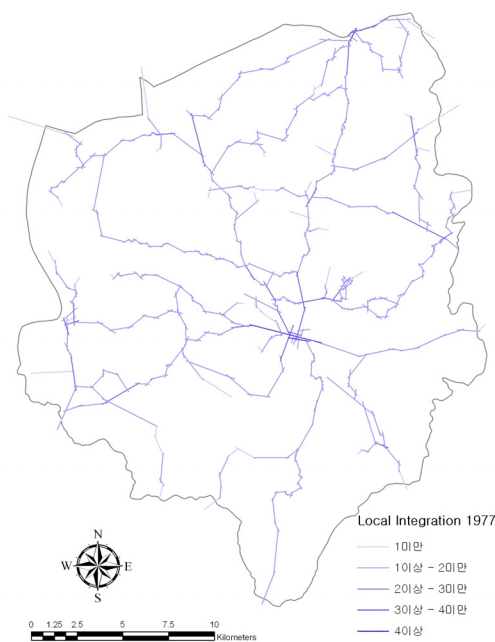


그림 3-28 아산시 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변화(1977~2009)

읍면지역에 있어 2009년의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읍면평균값 1.45와 1977년 대비 2009년 접근성의 증가정도 읍면평균값 0.59를 기준으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면 첫째, 접근성과 접근성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둘째, 접근성은 높지만, 접근성의 증가정도가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셋째, 접근성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지만, 접근성의 증가정도가 높은 유형, 넷째, 접근성과 접근성의 증가정도가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4 아산시 리별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유형

구 분		국부접근성(국부통합도, Local Integration)	
		높음(1.45 이상)	낮음(1.45 이하)
국 부 접 근 성 증 가 정 도	높음 (0.59 이상)	배방읍 공수리, 북수리, 휴대리,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동천리, 신수리, 원남리, 쌍룡리, 동암리 둔포면 송용리, 관대리 영인면 신현리, 신운리, 구성리, 역리 인주면 공세리, 대음리, 금성리 선장면 대흥리, 가산리 도고면 신언리, 도산리, 덕암리, 기곡리 신창면 수장리, 신달리, 신곡리	염치읍 쌍죽리 배방읍 중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송악면 평촌리, 강당리, 유곡리, 종곡리, 강장리, 수곡리, 동화리 음봉면 의식리, 송촌리 둔포면 신법리, 산전리, 신양리, 신왕리 영인면 와우리 인주면 해암리, 냉정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신성리 도고면 시전리, 신유리, 화천리, 오암리, 석당리, 신통리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낮음 (0.59 이하)	염치읍 서원리, 염성리, 곡교리, 석정리, 백암리 배방읍 신흥리 송악면 역촌리 탕정면 용두리, 갈산리, 명암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산정리, 덕지리 둔포면 둔포리, 석곡리, 윤용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월선리, 백석포리, 신봉리, 성내리, 신화리 인주면 밀두리, 관암리 선장면 군덕리, 죽산리 도고면 금산리, 향산리, 와산리 신창면 남성리, 가덕리, 가내리	염치읍 산양리, 강청리, 중방리, 동정리, 석두리, 방현리, 송곡리, 대동리 배방읍 수철리, 세교리, 구령리 송악면 외암리, 마곡리, 궁평리, 송학리, 거산리 음봉면 삼거리, 신정리, 소동리, 신희리, 쌍암리, 월랑리, 산동리 둔포면 시포리, 신남리, 신행리, 봉재리, 운교리 영인면 창용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문방리, 도흥리 선장면 대정리, 장곡리, 선창리, 신동리, 홍곡리, 신문리, 궁평리 도고면 봉농리, 호자리, 농은리 신창면 오목리, 행목리, 궁화리

* _____ : 중심성(표3-22) 유형과 차이가 있는 지역

읍면지역에서 중심성과 국부접근성의 유형구분에서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 국부중심성이 증가과 동시에 접근성이 향상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시 중심성(2009년 평균 2.51)과 국부접근성(2009년 평균 1.45)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성과 접근성이 읍면 평균값보다 높은 유형, 둘째, 중심성은 높지만, 접근성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셋째, 중심성은 읍면 평균값보다 낮지만, 접근성은 높은 유형, 넷째, 중심성과 접근성 모두 읍면 평균값보다 낮은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중심성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I)

2009년을 기준으로 중심성이 2.51 이상이고 접근성이 1.45 이상인 지역에는 염치읍 서원리, 배방읍 신흥리, 송악면 역촌리,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동천리 등 5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해당공간이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양호하여 상대적인 중심성이 높고,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② 중심성은 높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II)

2009년을 기준으로 중심성이 2.51 이상이지만, 접근성이 1.45 이하인 지역에는 염치읍 강청리, 음봉면 소동리 2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해당공간이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양호하여 상대적인 중심성이 높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③ 중심성은 낮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III)

2009년을 기준으로 중심성이 2.51 이하이지만, 접근성이 1.45 이상인 지역에는 염치읍 석정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신수리, 둔포면 운용리, 영인면 역리 등 10개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해당공간이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상대적인 중심성이 낮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④ 중심성, 접근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IV)

2009년을 기준으로 중심성이 2.51 이하임과 동시에 접근성이 1.45 이하인 지역에는 염치읍

산양리, 배방읍 중리, 송악면 평촌리, 음봉면 삼거리, 둔포면 시포리 등 76개의 다수의 리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해당공간이 다른 공간들과의 연결성이 양호하지 못하여 상대적인 중심성이 낮고,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I 유형 : 중심성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II 유형 : 중심성은 높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
 III 유형 : 중심성은 낮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IV 유형 : 중심성, 접근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

그림 3-29 아산시 리별 공간구조 유형

6. 종합고찰

1) 읍면 수준의 변화 동향

읍면 수준에서의 변화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구 및 인구밀도(200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1970년~2005년), 농가인구비율(2005년), 농가인구증감률(1970년~2005년), 농가 및 전업농가비율(2005년) 등 7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⁷⁾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개 읍면을 다음 표와 같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3-25 아산시 읍면지역의 유형구분

(단위 : 명, %)

유형	읍면	인구 (’05)	인구 밀도 (’05)	인구 증감률 (’70~’05)	농가 인구 비율 (’05)	농가 인구 증감률 (’05)	농가 비율 (’05)	전업 농가 비율 (’05)
	읍면 전체평균	8,067	190.64	-0.41	31.52	-2.98	32.04	51.34
I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	8,985	210.95	-0.65	31.73	-3.49	31.24	56.03
II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	18,748	479.29	2.04	14.60	-3.74	15.11	57.91
III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	4,528	93.96	-2.17	52.16	-3.92	53.34	65.04

① 유형 I : 도농 복합지역

유형 I 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8,985명, 인구밀도 210.95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0.65%, 농가인구비율 31.73%, 농가인구 증감률 -3.49% 로 읍면 지역의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염치읍은 지리적으로 아산시 중심시가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교천을 따라 농경지가 다수 입지해 있고, 이러한 농경지가 중심시가지의 확장을 막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 아

7)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군집의 수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함

직까지는 농촌적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염치읍 서원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등 약간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둔포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 미곡을 중심으로 과수, 낙농이 발달한 지역이며, 둔포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최근 석곡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운용리 일원의 아산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됨으로서 도농 복합지역으로서의 특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둔포면도 역시 최근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주면은 아산만과 삼교호를 연결하는 미곡생산의 중심지이지만, 결매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다.

② 유형Ⅱ : 도시화 지역

유형Ⅱ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18,748명, 인구밀도 479.29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2.04%, 농가인구비율 14.60%, 농가인구 증감률 -3.74%로 급격하게 인구가 성장하는 반면 농업인력 등의 농촌기반이 쇠퇴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읍면의 공통점은 아산 중심시가지 주변지역 또는 천안·아산 연담도시지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거나, 아산신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도시성장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배방읍은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탕정면에는 탕정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음봉면에는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신창면에는 아산 중심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급속한 도시 성장을 보이고 있다.

③ 유형Ⅲ : 농촌지역

유형Ⅲ에 해당되는 읍면에는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4,528명, 인구밀도 93.96명/km², 연평균 인구증감률 -2.17%, 농가인구비율 52.16%, 농가인구 증감률 -3.92%로 인구규모가 적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인력 등의 농촌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송학면은 읍면중에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반면 전업농가 인구비율을 가능 높은 지역으로서, 빠르게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서의 버섯 등의 임산물과, 다양한 시설원예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농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영인면 쌀농사의 최적지로서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지역이며, 선장면과 도고면 역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는 낮지만, 농가인구 및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풍부한 농업자원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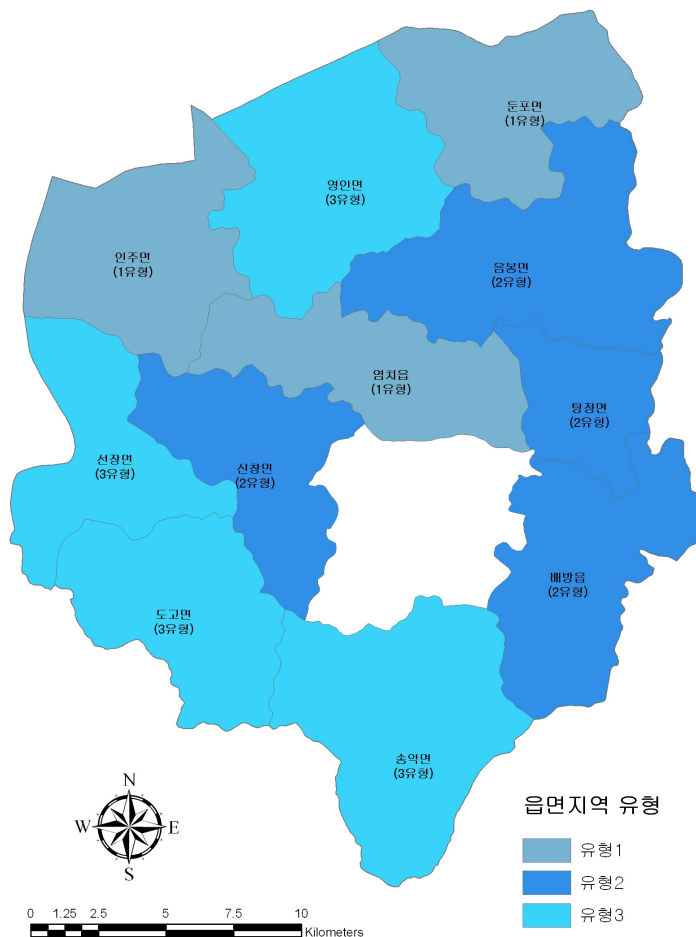


그림 3-30 아산시 읍면지역 유형구분

2) 법정리 수준의 변화 동향

법정리 수준에서의 변화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읍면 수준의 변화 동향분석과 마찬가지로 인구 및 인구밀도(2008년), 산림지역 비율(2009년) 및 산림면적 증감(2009년-1982년), 농경지 비율(2009년) 및 농경지 면적 증감(2009년-1982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2009년),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증감(2009년-1982년), 중심성(2009년) 및 중심성 증감(2009년-1982년), 전체 접근성(2009년) 및 전체 접근성 증감(2009년-1982년), 국부접근성(2009년) 및 국부접근성 증감(2009년-1982년) 등 14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수의 수가 많아 분석과 분석결과의 해석이 난해하여, 선행 분석으로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수를 그룹화 시키고, 그룹화 된 요인별로 군집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1은 인구현황에 관한 요인으로서 인구 및 인구밀도가 해당되며, 요인2는 산림 및 농경지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산림면적, 농경지 면적이 해당된다. 요인3은 산림 및 농경지 변화에 관한 요인으로 산림면적 증감, 농경지면적 증감이 해당되며, 요인4는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인공구조물 비율, 인공구조물 면적증감, 중심성, 국부접근성이 해당된다. 그리고 요인5는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요인으로 중심성 증감과 국부접근성 증감이 해당되며, 요인6은 전체접근성 현황에 관한 요인으로 전체접근성, 전체접근성 증감이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4개씩의 유형(군집)을 설정하였으며, 도시적 유형에 가까울수록 유형 I로, 농촌적 유형에 가까울수록 유형IV로 구분하였다.

표 3-26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변수	인구, 인구밀도	산림면적, 농경지 면적	산림면적증감, 농경지면적증감	인공구조물비율, 인공구조물 면적증감, 중심성, 국부접근성	중심성 증감, 국부접근성 증감	전체접근성, 전체접근성 증감
요인설명	인구 현황	산림 및 농경지 현황	산림 및 농경지 변화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	공간구조변화	전체 접근성 현황

(1) 인구현황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평균인구는 952명, 평균 인구밀도는 289.59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가 가장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유형 I에서 유형Ⅳ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유형 I, Ⅱ, Ⅲ은 인구 및 인구밀도에서 아산시 법정리 평균값보다 높고, 유형Ⅳ는 대부분 평균 전후 또는 평균 이하의 인구현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형 I의 배방읍 공수리는 리 지역 중에서 인구 및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다음으로는 유형Ⅱ의 배방읍 북수리, 신창면 남성리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유형Ⅳ 중에서도 인구 1천명 이상, 인구밀도 500명 이상의 리 지역(염치읍 방현리, 송곡리, 탕정면 호산리, 인주면 공세리, 신창면 읍내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집분석에서는 유형 I~Ⅲ과 구별되어 진다.

표 3-27 아산시 법정리지역 인구관련 유형구분

(단위 : 명)

유형	인구 (2008년)	인구밀도 (2008년)	법정리	개수
평균	952	289.59	143개 리	
I	15,616	3,514.62	배방읍 공수리	1
Ⅱ	10,109	2,512.53	배방읍 북수리, 신창면 남성리	2
Ⅲ	4,151	1,282.48	배방읍 갈매리, 세교리, 장재리, 탕정면 명암리, 동산리, 음봉면 산동리, 덕지리, 둔포면 둔포리, 신창면 행목리	9
Ⅳ	481	162.82	염치읍 신양리, 강청리, 서원리, 중방리, 염성리, 상죽리, 동정리, 곡교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대동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신흥리, 회룡리, 세출리, 휴대리, 구령리, 송악면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궁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장리, 수곡리, 동화리, 탕정면 용두리, 매곡리, 갈산리, 호산리, 음봉면 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산정리, 신정리, 원남리, 소동리, 신희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월랑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신남리, 신항리, 관대리, 산전리, 신양리, 봉채리, 운교리, 석곡리, 운용리, 신왕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신희리, 월선리, 신문리, 백석포리, 와우리, 구성리, 창용리, 신봉리, 성내리, 신화리, 역리, 인주면 공세리, 모원리, 신성리, 갈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관암리, 냉정리, 선장면 군덕리, 둔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곳리, 신성리, 죽산리, 산창리, 신동리, 대흥리, 홍곳리, 가산리, 신문리, 궁평리, 도고면 신언리, 봉농리, 효자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향산리, 와산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오목리, 읍내리, 창암리, 황산리, 수장리, 신달리, 궁화리, 가덕리, 신곡리, 가내리	131

(2) 산림 및 농경지 현황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평균 산림면적 비율은 38.24%, 평균 농경지 비율은 40.49%로, 유형Ⅰ은 산림면적 비율이 매우 높고, 농경지면적 비율이 매우 낮은 유형으로, 반대로 유형Ⅳ는 산림면적 비율이 매우 낮고, 농경지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Ⅱ와 유형Ⅲ은 그 중간 유형으로 유형Ⅱ는 산림면적 비율이 약간 높은 유형, 유형Ⅲ은 농경지면적 비율이 약간 높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산림면적이 많으면 농경지 면적이 적고, 농경지 면적이 많으면 산림면적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형 I 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경지보다는 산림이 많은 산촌지역에 가깝고, 유형 IV 지역은 대부분 평야지역 농경지가 많은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림이 많은 송악면은 모두 유형 I 과 유형 II 에 속한다.

표 3-28 아산시 법정리지역 산림 및 농경지 면적 비율 관련 유형구분

(단위 : %)

유형	산림면적 비율 (2008년)	농경지 비율 (2008년)	법정리	개수
평균	38.24	40.49	143개 리	
I	76.51	10.65	염치읍 서원리, 쌍죽리, 동정리, 대동리, 배방읍 수철리, 시흥리, 회통리, 송암면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구정리, 유곡리, 송화리, 종곡리, 거사리, 강장리, 수곡리, 동화리, 영인면 동면, 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사정리, 송촌리, 영인면 인주면, 인주면 냉천리, 도고면 효자리, 도산리, 능은리, 석당리, 와산리, 신창면 황산리	31
II	52.47	25.94	염치읍 사양리, 강창리, 염성리, 배방읍 중리, 공수리, 세출리, 갈매리, 송암면 염추리, 평추리, 황정면 두리, 안남리, 송암면 송암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양령리, 동암리, 둔포면 신왕리, 영인면 삼성리, 상내리, 역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선장면 석죽리, 사리, 읍내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화천리, 오암리, 덕암리	32
III	26.70	43.73	염치읍 중방리, 석두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배방읍 공수리, 세교리, 후대리, 장재리, 방정면 매곡리, 산리, 동산리, 을동면 신정리, 신유리, 사당리, 도지리, 둔포면 둔포리, 신항리, 신양리, 봉재리, 구리, 석곡리, 염작리, 영인면 신현리, 월서리, 신수리, 우리, 송리, 신화리, 인주면 공세리, 금성리, 관암리, 선장면 구덕리, 신창리, 선창리, 신동리, 궁평리, 도고면 홍산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오곡리, 창암리, 행목리, 궁화리, 가내리	46
IV	5.55	77.02	염치읍 국곡리, 석정리, 배방읍 구령리, 둔포면 송용리, 영인면 시포리, 신법리, 신남리, 관대리, 사저리, 우용리, 영인면 백석포리, 구성리, 창동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갈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대정리, 창곡리, 대흥리, 홍곡리, 기산리, 신부리, 도고면 신안리, 봉농리, 신창면 수장리, 신달리, 남성리, 가덕리, 신곡리	34

(3) 산림 및 농경지 변화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평균 산림면적 증감은 -131,358㎡, 평균 농경지 증감은 -484,590㎡로, 유형 I 은 산림면적 및 농경지 면적의 감소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유형 II 는 농경지의 감소정도가 매우 높은 지역, 유형 III 과 유형 IV 는 농경지 면적의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전후, 그리고 평균 이하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I 에 해당되는 지역은 탕정면 명암리로 2009년 현재 1982년 대비 산림 -1,352,958㎡, 농경지 -1,059,284㎡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유형 II 지역은 배방읍 북수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원남리, 둔포면 둔포리 등의 지역이 해당된다.

표 3-29 아산시 법정리지역 산림 및 농경지 변화 관련 유형구분

(단위 : ㎡)

유형	산림면적 증감 (' 09-' 82)	농경지 증감 (' 09-' 82)	법정리	개 수
평균	-131,358	-484,590	143개 리	
I	-1,352,958	-1,059,284	탕정면 명암리	1
II	45,448	-1,162,853	배방읍 북수리,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원남리, 신흥리, 의식리, 상암리, 쌍룡리, 월랑리, 산동리, 둔포면 둔포리, 신남리, 신항리, 관대리, 석곡리, 운용리, 신왕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신봉리, 성내리, 인주면 공세리, 선장면 신성리, 오목리, 행목리, 남성리, 궁화리	30
III	-98,644	-496,708	염치읍 강청리, 중방리, 염성리, 곡교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백암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신흥리, 공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세교리, 휴대리, 송악면 평촌리, 유곡리, 수곡리, 동화리,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신수리, 산정리, 신정리, 소동리, 덕지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송용리, 산전리, 신양리, 봉재리, 윤교리, 영인면 월선리, 신운리, 와우리, 창용리, 신화리, 역리,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해암리, 관암리, 선장면 군덕리, 죽산리, 선창리, 신동리, 대흥리, 궁평리, 도고면 시전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읍내리, 창암리, 황산리, 수장리, 신달리, 가내리	59
IV	-244,806	-76,334	염치읍 산양리, 서원리, 쌍죽리, 동정리, 송곡리, 대동리, 배방읍 구령리, 송악면 역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궁평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장리, 음봉면 삼거리, 동천리, 둔포면 시포리, 신범리, 영인면 상성리, 신흥리, 백석포리, 구성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갈매리, 밀두리, 금성리, 도흥리, 냉정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곳리, 홍곳리, 가산리, 신문리, 도고면 신언리, 봉농리, 효자리, 금산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향산리, 와산리, 신창면 가덕리, 신곡리	53

(4)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평균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은 7.81%, 평균 도시 및 인공구조물의 증가면적은 234,084㎡, 중심성의 평균은 2.37, 국부접근성의 평균은 1.37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도시 및 인공구조물 증가면적을 기준으로 유형 I~유형Ⅳ까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유형 I은 도시 및 인공구조물 증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 유형Ⅳ는 가장 적은 지역이다. 유형 I에는 탕정면 명암리가, 유형Ⅱ에는 배방읍 복수리, 인주면 갈매리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은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이 높음과 동시에, 그 증가 추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0 아산시 도시화 및 공간구조 관련 유형구분

(단위 : ㎡)

유형	인공구조물 비율 (2009년)	인공구조물 증가면적 ('09-'82)	중심성	국부 접근성	법정리	개수
평균	7.81	234,084	2.37	1.37	143개 리	
I	27.55	1,563,772	2.55	1.63	탕정면 명암리	1
II	28.67	846,507	3.16	1.87	배방읍 복수리, 장재리, 인주면 갈매리, 밀두리, 대음리, 금성리	6
III	12.91	411,068	2.84	1.64	염치읍 서원리, 염성리, 석정리, 송곡리, 배방읍 복수리, 휴대리, 구령리, 탕정면 웅두리, 매곡리, 갈산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삼거리, 원남리, 월랑리, 산동리, 덕지리, 둔포면 둔포리, 신남리, 신흥리, 관대리, 산천리, 석곡리, 운용리, 영인면 월신리, 신운리, 창용리, 신봉리, 신화리, 인주면 공세리, 문방리, 선장면 군덕리, 선창리, 대흥리, 가산리, 공평리,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오목리, 읍내리, 행목리, 남성리, 가내리	42
IV	3.99	101,770	2.11	1.21	염치읍 산양리, 강청리, 중방리, 쌍죽리, 동정리, 곡교리, 석두리, 방현리, 백암리, 대동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신흥리, 화룡리, 세출리, 갈매리, 세교리, 송악면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공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강창리, 수곡리, 동화리, 음봉면 동천리, 신수리, 사정리, 신정리, 소동리, 신희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신양리, 봉재리, 운교리, 신왕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신희리, 백석포리, 와우리, 구성리, 성내리, 역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해안리, 도흥리, 관암리, 냉정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대장리, 장곡리, 신성리, 죽산리, 신동리, 홍곳리, 신문리, 도고면 신언리, 봉동리, 효자리, 금산리, 시천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농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향산리, 와산리, 신통리,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주장리, 신달리, 공화리, 가덕리, 산곡리	94

(5) 공간구조 변화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평균 중심성 증가정도는 0.96, 평균 국부접근성 증감정도는 0.59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 I에서 유형Ⅳ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유형 I은 중심성과 국부접근성 증가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배방읍 장재리, 선장면 대흥리 등 4개 지역이 해당된다. 유형Ⅱ는 중심성과 국부접근성 증가정도가 평균 이상인 지역이고, 유형Ⅲ과 유형Ⅳ는 그 이하의 지역이다. 이러한 공간구조 변화 정도와 앞서 논의한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과를 비교해 보면 이 두 가지 요인의 경향이 꼭 일치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아산시 법정리지역 공간구조 변화 관련 유형구분

(단위 : m²)

유형	중심성 증감 (' 09-' 82)	국부접근성 증감 (' 09-' 82)	법정리	개 수
평균	0.96	0.59	143개 리	
I	3.75	2.14	배방읍 장재리, 선장면 대흥리, 신창면 신달리, 신곡리	4
Ⅱ	2.03	1.19	염치읍 쌍죽리, 배방읍 중리, 복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후대리, 송악면 평촌리, 강당리, 유곡리, 종곡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신수리, 의식리, 쌍룡리, 송촌리, 둔포면 송용리, 신법리, 관대리, 산전리, 신양리, 신왕리, 영인면 신현리, 와우리, 역리, 인주면 공세리, 해암리, 냉정리, 선장면 신덕리, 신성리, 가산리, 도고면 신언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수장리	44
Ⅲ	0.79	0.52	염치읍 강창리, 서원리, 염성리, 곡교리, 배방읍 신흥리, 공수리, 용두리, 송악면 역촌리, 송학리, 강창리, 수곡리, 동화리,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동천리, 산정리, 원남리, 동암리, 둔포면 둔포리, 신항리, 운교리, 석곡리, 운용리, 영인면 아산리, 월선리, 신운리, 구성리, 신봉리, 성내리, 신화리, 인주면 갈매리, 대음리, 금성리, 선장면 둔포리, 죽산리, 도고면 효자리, 금산리, 농은리, 향산리, 와산리, 신창면 읍내리, 행목리, 궁화리, 가내리	46
Ⅳ	-0.06	0.01	염치읍 산양리, 중방리, 동정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대동리, 배방읍 수철리, 세교리, 구령리, 송악면 외암리, 마곡리, 궁평리, 거산리, 음봉면 삼거리, 신정리, 소동리, 신휴리, 쌍암리, 월랑리, 산동리, 덕지리, 둔포면 시포리, 신남리, 봉재리, 염작리, 영인면 상성리, 백석포리, 창용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밀두리, 문방리, 도흥리, 관암리, 선장면 군덕리, 대정리, 장곳리, 선창리, 신동리, 홀곳리, 신문리, 궁평리, 도고면 봉농리, 신창면 오목리, 남성리, 가덕리	49

(6) 전체접근성 현황

2008년 현재 아산시 법정리의 전체접근성 평균 증가정도는 0.11, 전체접근성의 평균 증감정도는 0.10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접근성과 이의 증가정도가 가장 큰 유형 I 에서 가장 작은 유형 IV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유형 I 은 송악면 강장리, 도고면 농은리 등의 지역으로 상대적인 전체접근성 높음과 동시에 이러한 전체접근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이며, 이 외의 대부분의 지역이 유형 II 에 속한다. 반면, 유형 IV는 상대적인 전체접근성 높음과 동시에 이러한 전체접근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으로 배방읍 세출리, 도고면 효자리가 해당된다.

표 3-32 아산시 법정리지역 전체접근성 관련 유형구분

(단위 : m²)

유형	전체접근성 (2009년)	전체접근성 증감 (' 09- ' 82)	법정리	개 수
평균	0.11	0.10	143개 리	
I	0.19	6.45	송악면 강장리, 수곡리, 도고면 농은리, 덕암리	4
II	0.35	0.13	염치읍 산양리, 갈청리, 서원리, 중방리, 염성리, 쌍죽리, 동정리, 곡교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대동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신흥리, 공수리, 북수리, 회룡리,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송악면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궁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거산리, 동화리, 탕정면 용두리,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호산리, 동산리, 음봉면 삼거리, 동천리, 신수리, 산정리, 신정리, 원남리, 소동리, 신흥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산동리, 덕지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둔포리, 송흥리, 시포리, 신법리, 신남리, 신항리, 관대리, 산전리, 신양리, 봉재리, 운교리, 석곡리, 운흥리, 신왕리, 염차리, 영인면 아산리, 상상리, 신현리, 신운리, 백석포리, 외우리, 구성리, 창용리, 신봉리, 성내리, 신화리, 역리, 인주면 공세리, 모원리, 신성리, 걸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해암리, 관암리, 냉정리, 선장면 군덕리, 돈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곡리, 죽산리, 선창리, 신동리, 대흥리, 홍곡리, 가산리, 신문리, 궁평리, 도고면 신언리, 봉송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오암리, 석당리, 향산리, 외산리, 신통리, 기곡리, 신창면 오목리, 읍내리, 창암리, 행목리, 수장리, 신달리, 남성리, 궁화리, 가덕리, 신곡리	131
III	-1.97	-2.09	배방읍 갈매리, 음봉면 월랑리, 영인면 월선리, 인주면 도흥리, 선장면 신성리, 황산리	6
IV	-8.44	-8.44	배방읍 세출리, 도고면 효자리	2

제4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환경 실태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지역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 분석한 인구관련 유형구분(표3-27)과 도시화 및 공간구조 관련 유형구분(표3-30)을 바탕으로 I ~ IV 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I 유형을 도시화 진행지역, II·III유형을 도·농 복합지역, IV유형을 농촌지역으로 보았을 때, 제3장에서 분석한 읍면지역의 유형구분(표3-25)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1 인구 및 도시화 관련 유형구분

		인구 및 인구밀도	
		I, II, III	IV
도시화 및 공간구조	I, II, III	I 유형 배방읍 공수리, 북수리, 장재리, 탕정면 명암리, 동산리, 읍면 산동리, 덕지리, 둔포면 둔포리, 신창면 행목리, 남성리	II 유형 염치읍 서원리, 염성리, 석정리, 송곡리, 배방읍 휴대리, 구령리, 탕정면 용두리, 매곡리, 갈산리, 홍산리, 읍면 삼거리, 원남리, 월랑리, 둔포면 신남리, 신항리, 관대리, 산저리, 석곡리, 운흥리, 영인면 월서리, 신운리, 창용리, 진봉리, 신화리, 인주면 공세리, 갈매리, 밀두리,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선장면 군덕리, 산창리, 대흥리, 가산리, 궁평리,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오목리, 읍내리, 가내리
	IV	III 유형 배방읍 갈매리, 세교리	IV 유형 염치읍 산양리, 강청리, 중방리, 쌍죽리, 동정리, 곡교리, 석두리, 방현리, 백암리, 대동리, 배방읍 중리, 수철리, 신흥리, 회룡리, 세출리, 송악면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 마곡리, 궁평리, 유곡리, 송학리, 종곡리, 가산리, 강장리, 주곡리, 동화리, 읍면 동천리, 신수리, 산청리, 신청리, 소동리, 신흥리, 의식리, 쌍암리, 쌍룡리, 동암리, 송촌리, 둔포면 송우리, 시포리, 신법리, 신양리, 봉재리, 운교리, 신왕리, 염작리,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신흥리, 백석포리, 외우리, 구성리, 성내리, 역리, 인주면 모원리, 신성리, 해암리, 도흥리, 관암리, 냉정리, 선장면 둔포리, 신덕리, 대정리, 장곡리, 신성리, 죽산리, 신동리, 홍곡리, 신문리, 도고면 신언리, 봉동리, 효자리, 금산리, 시전리, 신유리, 도산리, 화천리, 동은리, 오암리, 덕암리, 석당리, 향산리, 외자리, 신통리,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수장리, 신달리, 궁화리, 가덕리, 신곡리

* _____ : 읍면지역 유형구분 결과(표3-25)와 일치하는 지역

표4-1의 인구 및 도시화 관련 유형구분 결과와 제3장의 읍면지역의 유형구분(표3-25)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이거나 순수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서의 혼재(混在)·혼주(混住)성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5개 리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2와 같다.

표 4-2 조사 대상지역 선정 결과

		인구 및 인구밀도	
		높음	낮음
도시화	높음	I 유형 배방읍 북수리, 음봉면 산동리, 덕지리, 신창면 행목리, 남성리	II 유형 염치읍 염성리, 송곡리, 탕정면 호산리, 둔포면 신남리, 인주면 갈매리
	낮음	III 유형 배방읍 갈매리	IV 유형 송악면 역촌리, 영인면 구성리, 선장면 신동리, 도고면 신언리

* _____ : 설문조사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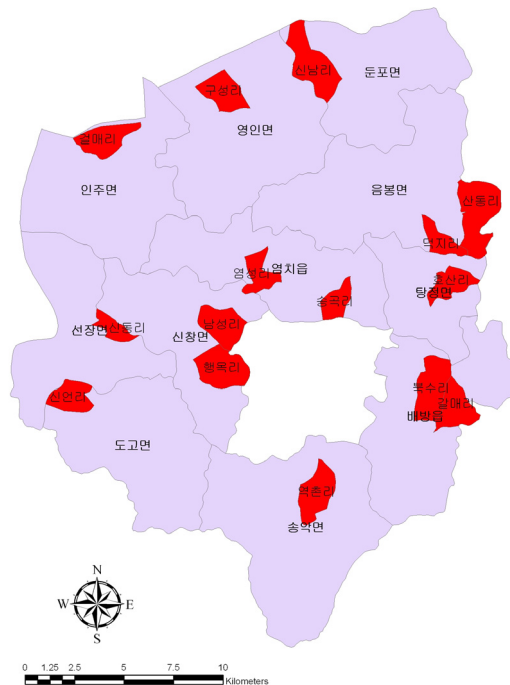


그림 4-1 조사 대상지역 위치도

2) 조사 내용 및 방법

도시근교 농촌지역 실태조사는 물리적 환경부문과 인문·사회적 환경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물리적 환경부문으로는 공간개발현황, 경관 및 주거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부문으로는 인구현황, 주민커뮤니티 활동, 농업 및 경제활동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현장방문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장방문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15개 리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제 개발 및 경관실태, 도시적 요소와 농업·농촌적 요소의 혼재(混在) 실태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는 15개 조사 대상지역 중 6개 리를 선정(표4-2 참조)하여,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 동안 공간개발현황, 경관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민 혼주(混住) 및 커뮤니티 실태, 농업 및 경제활동 등을 중심으로 총 300명(리당 50명)의 표본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4-3 조사 내용 및 방법

구 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물리적 환경	공간개발	- 도시화 및 산업화 진행 실태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 개발방식	통계분석, 설문조사
		- 개발 만족도 및 개발방향	설문조사
	경관	- 도시적·농업농촌적 경관 혼재 실태	현장조사, 설문조사
		- 경관훼손요인	현장조사, 설문조사
	주거환경	- 주택 유형 - 주거환경 만족도	현장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인문·사회적 환경	인구	- 인구규모의 변화 - 전입인구의 변화	통계분석, 설문조사 설문조사
	주민커뮤니티	- 주민간·이웃간의 관계 - 이주민과 기존주민과의 관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농업활동	- 가구 소득원 현황	설문조사
		- 직업구성 비율의 변화	설문조사
		- 전입인구의 직업	설문조사
	기타 경제활동	- 토지(농경지) 소유 관계	설문조사
		- 바람직한 경제활동 형태	설문조사

3) 설문 응답자 구성

표 4-4 설문 응답자 구성

단위 : %

구 분		내 용
전체	성별	남(63.3), 여(36.7)
	연령	20-30대(18.0), 40-50대(36.0), 60대 이상(46.0)
	직업	농업(65.3), 제조업(4.3), 상업 및 서비스업(13.0), 공무원(2.0), 주부(10.3), 학생(5.0)
	거주기간	5년 미만(8.0), 5-10년(7.3), 10-20년(8.0), 20-30년(32.0), 30년 이상(44.7)
신창면 행목리	성별	남(36.0), 여(64.0)
	연령	20-30대(28.0), 40-50대(26.0), 60대 이상(46.0)
	직업	농업(2.0), 제조업(4.0), 상업 및 서비스업(20.0), 주부(14.0), 학생(10.0)
	거주기간	5년 미만(6.0), 5-10년(18.0), 10-20년(16.0), 20-30년(26.0), 30년 이상(34.0)
염치읍 송곡리	성별	남(50.0), 여(50.0)
	연령	20-30대(22.0), 40-50대(30.0), 60대 이상(48.0)
	직업	농업(74.0), 제조업(6.0), 상업 및 서비스업(12.0), 공무원(8.0)
	거주기간	5년 미만(4.0), 5-10년(8.0), 10-20년(8.0), 20-30년(36.0), 30년 이상(44.0)
둔포면 신남리	성별	남(94.0), 여(6.0)
	연령	20-30대(10.0), 40-50대(62.0), 60대 이상(28.0)
	직업	농업(82.0), 제조업(10.0), 상업 및 서비스업(2.0), 주부(4.0), 학생(2.0)
	거주기간	5년 미만(8.0), 5-10년(7.3), 10-20년(8.0), 20-30년(32.0), 30년 이상(44.7)
배방읍 갈매리	성별	남(48.0), 여(52.0)
	연령	20-30대(30.0), 40-50대(34.0), 60대 이상(36.0)
	직업	농업(50.0), 상업 및 서비스업(14.0), 공무원(2.0), 주부(22.0), 학생(12.0)
	거주기간	5년 미만(34.0), 5-10년(16.0), 10-20년(6.0), 20-30년(28.0), 30년 이상(16.0)
송악면 역촌리	성별	남(56.0), 여(44.0)
	연령	20-30대(6.0), 40-50대(30.0), 60대 이상(64.0)
	직업	농업(68.0), 상업 및 서비스업(18.0), 주부(8.0), 학생(6.0)
	거주기간	5년 미만(8.0), 5-10년(7.3), 10-20년(8.0), 20-30년(32.0), 30년 이상(44.7)
도고면 신언리	성별	남(96.0), 여(4.0)
	연령	20-30대(10.0), 40-50대(36.0), 60대 이상(54.0)
	직업	농업(66.0), 제조업(6.0), 상업 및 서비스업(12.0), 공무원(2.0), 주부(14.0)
	거주기간	20-30년(28.0), 30년 이상(72.0)

2. 물리적 환경 실태

1) 공간개발

조사 대상지역에는 다양한 공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직까지 농경지 등이 잔존해 있지만, 이러한 농업·농촌공간들이 상당부분이 개발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배방읍 북수리는 인근에 삼성전자(반도체)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도 21호선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신창면 행목리와 남성리에서도 신창행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동부의 개발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역시 인근에 득산농공단지, 서부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음봉면 산동리와 덕지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천안백석산업단지와 탕정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곳곳에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개별 공장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 유형 : 배방읍 북수리, 신창면 행목리)

II유형은 도시화 및 인공구조물의 정도는 I 유형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인공구조물이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아닌 소규모 시가지나 산업단지,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탕정면 호산리와 인주면 걸매리를 들 수 있는데, 탕정면 호산리는 인근에 탕정산업

단지와 관련 개별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주면 갈매리에는 인주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대상지역의 공간을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염치읍 염성리와 송곡리는 시가지와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4-3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Ⅱ유형 : 탕정면 호산리, 인주면 갈매리)

Ⅲ유형 역시 Ⅰ유형과 유사한 아파트단지 조성 등의 공간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단지 전체 공간중에 아파트단지 등 인공구조물이 차지하는 공간보다는 농경지 등 농업·농촌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배방읍 갈매리에는 대부분의 공간이 농경지나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쪽 일부공간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Ⅲ유형 : 배방읍 갈매리)

IV유형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나 인공구조물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대부분이 농경지, 임야 등 농업·농촌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공간에 소규모 시가지나 개별 공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송악면 역촌리와 도고면 신언리는 면소재지로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작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영인면 구성리와 선장면 신동리는 대부분의 공간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주택이나 개별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대상지역 공간개발 현황(IV유형 : 송악면 역촌리, 영인면 구성리)

대상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는 농경지, 임야 등 농업·농촌적 요소와 아파트단지, 공장 및 산업단지 등 도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부 읍면소재지의 경우 전부터 기성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시의 확장,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농경지, 임야 등의 농업·농촌적 공간을 훼손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혼재되어 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와 농촌의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도농복합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45와 표46은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조사대상지역별로 재정리한 결과이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이 농지훼손형 개발이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훼손과 함께 산림훼손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I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농지훼손에 의한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III유형에 해당되는 배방읍 갈매리의 경우는 농지훼손과 함께 산림훼손에 의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표 4-5 조사대상지역의 농경지 면적 변화

(단위 : m², %)

유형	지역명	1989년	1999년	2009년	증감면적 (2009-1989)
I	배방읍 북수리	3,007,078	2,488,126	1,619,528	-1,387,550
	음봉면 산동리	4,041,351	3,561,260	2,361,473	-1,679,878
	덕지리	1,778,891	1,460,233	1,130,015	-648,876
	신창면 행목리	2,919,478	2,300,106	1,735,086	-1,184,392
	남성리	3,351,845	2,826,320	2,227,002	-1,124,843
II	염치읍 염성리	1,345,127	1,002,162	783,131	-561,996
	송곡리	1,087,154	998,493	823,241	-263,913
	탕정면 호산리	1,666,837	1,296,253	919,525	-747,312
	둔포면 신남리	4,910,629	4,505,027	3,981,131	-929,498
	인주면 갈매리	3,146,995	3,288,548	2,251,934	-895,061
III	배방읍 갈매리	1,693,294	1,131,105	1,076,083	-617,211
IV	송악면 역촌리	1,126,681	1,105,537	947,706	-178,975
	영인면 구성리	2,851,607	2,751,628	2,653,440	-198,167
	선장면 신동리	1,170,633	987,488	746,292	-424,341
	도고면 신언리	2,219,057	2,035,131	2,008,632	-210,425

표 4-6 조사대상지역의 산림 면적 변화

(단위 : m², %)

유형	지역명	1989년	1999년	2009년	증감면적 (2009-1989)
I	배방읍 북수리	909,162	1,256,524	885,041	-24,121
	음봉면 산동리	1,719,772	1,778,205	1,865,343	145,571
	덕지리	199,644	394,596	355,837	156,193
	신창면 행목리	1,235,019	1,633,780	1,137,004	-98,015
	남성리	64,274	122,184	73,561	9,287
II	염치읍 염성리	903,293	1,093,989	945,136	41,843
	송곡리	843,754	862,518	759,452	-84,302
	탕정면 호산리	825,028	1,067,816	1,001,188	176,160
	둔포면 신남리	321,109	515,820	517,751	196,642
	인주면 갈매리	-	-	-	-
III	배방읍 갈매리	1,456,758	1,770,306	1,321,147	-135,611
IV	송악면 역촌리	2,510,296	2,507,783	2,443,061	-67,235
	영인면 구성리	279,889	330,647	274,686	-5,203
	선장면 신동리	401,555	573,862	441,447	39,892
	도고면 신언리	418,205	559,905	485,782	67,577

실제 거주 지역(마을)의 성격을 묻는 주민조사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응답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또는 도시화 진행지역이라는 응답자도 다수를 점유하였고, 과거 10년 동안 중·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이 대부분 농지 훼손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7 거주 지역(마을)의 성격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도시지역	0.0	0.0	0.0	0.0	0.0	0.0	0.0
도시화 진행지역	8.0	14.0	0.0	46.0	0.0	2.0	11.7
도시·농촌 복합지역	40.0	32.0	2.0	52.0	80.0	24.0	38.3
전형적인 농촌지역	52.0	52.0	98.0	2.0	20.0	74.0	49.7
기타 지역	0.0	2.0	0.0	0.0	0.0	0.0	0.3

표 4-8 과거 10년 동안의 개발정도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대규모 개발	0.0	0.0	0.0	6.0	0.0	0.0	1.0
중규모 개발	76.0	6.0	26.0	44.0	10.0	38.0	33.3
소규모 개발	24.0	70.0	68.0	48.0	76.0	58.0	57.3
개발이 거의 없었음	0.0	24.0	6.0	2.0	14.0	4.0	8.3

표 4-9 현재까지의 개발방식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산림녹지훼손형 개발	13.8	17.7	15.5	21.1	26.8	20.0	19.2
농지훼손형 개발	31.0	17.7	53.5	40.4	32.4	41.7	36.1
주거지 재개발	39.7	27.4	19.0	33.3	29.6	20.0	28.2
소규모 개발	15.5	37.1	12.1	5.3	11.3	18.3	16.6

이러한 도시적 요소와 농업·농촌적 요소의 혼재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농촌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개별공장의 난립을 들 수 있다. 개별공장의 난립은 아산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인주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은 농촌경관 및 농촌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6 농촌지역에 들어선 개별공장의 모습

지역(마을)의 개발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신창면 행목리, 염치읍 송곡리, 둔포면 신남리, 도고면 신언리의 주민들은 만족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많았고, 인주면 갈매리와 송악면 역촌리 주민들은 보통 또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다수 보여 개발수준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불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개발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농촌경관의 훼손이나 자연환경의 파괴, 난개발 등이 개발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향후 바람직한 개발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기존 농촌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소규모의 개발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4-10 지역(마을)개발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매우 만족	6.0	6.0	0.0	0.0	4.0	0.0	2.7
만족	74.0	68.0	30.0	18.0	12.0	50.0	42.0
보통	16.0	14.0	50.0	40.0	38.0	44.0	33.7
불만족	4.0	10.0	16.0	32.0	44.0	6.0	18.7
매우 불만족	0.0	2.0	4.0	10.0	2.0	0.0	3.0

표 4-11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자연환경 파괴	2.0	9.4	12.9	25.4	19.7	21.7	15.2
농촌경관 훼손	29.4	35.9	17.7	27.0	30.3	5.0	24.2
난개발	9.8	3.8	21.0	36.5	12.1	6.7	15.0
주민의사 미반영	7.8	7.6	14.5	9.5	22.7	15.0	12.9
문제없음	51.0	43.4	33.9	1.6	15.2	51.7	32.8

표 4-12 향후 바람직한 개발진행 방향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농촌의 모습 보전	0.0	2.0	8.0	0.0	16.0	22.0	8.0
소규모의 개발 추진	74.0	72.0	50.0	52.0	54.0	60.0	60.3
중규모의 개발 추진	16.0	12.0	36.0	36.0	22.0	18.0	23.3
대규모의 개발 추진	10.0	14.0	6.0	12.0	8.0	0.0	8.3

2) 경 관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교지역 농촌의 경관현황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경관을 크게 자연경관, 생산경관, 생활경관으로 대분류하여 표4-11과 같은 경관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조사 대상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관특성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4-13 농촌경관의 유형 및 요소

구 분	경관유형	세부요소
자연경관	산림녹지경관 수경관	산림, 마을숲, 노거수, 정자목 등 하천, 호수 등
생산경관	농지경관 생산시설경관	경작지(밭, 논, 과수원) 축사, 농로, 저수지, 용·배수로, 비닐하우스 등
생활경관	생활시설경관 역사문화경관	주택, 도로, 공공건축물, 상점, 공장, 안내시설 등 역사적 건축물, 농업공동체활동, 축제 등

(1) I 유형 : 인구 및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및 인공구조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배방읍 북수리는 농경지가 일부 남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단지, 상가 등이 입지하여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시경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은 상당부분 상실되어 있다. 농경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어 토지이용의 혼재와 경관훼손 또는 부조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경관		▶ 남측에 낮은 배후 구릉지로 위요
생산경관		▶ 일부지역에 논이 남아있고, 농산물 가공을 위한 공장 시설 위치
생활경관		▶ 도시화된 시가지와 아파트단지가 기존 마을과 대비되며 외부공간 이용 혼란

그림 4-7 배방읍 북수리 경관현황

음봉면 덕지리는 농경지 인근에 아파트, 현대식 상가건물 및 버스정류장, 창고형 공장 등 도시형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이 다수 입지하여 농촌경관과 도시적 경관이 혼재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와 기존의 마을이 떨어진 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현대식 버스정류장, 도시형 상가건물이나 간판이 주변 농촌경관과 이질적이면서 그렇다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자연경관			<p>▶ 대부분 평활한 논이며, 원경의 구릉지가 조망됨</p>
생산경관			<p>▶ 대부분이 논이며, 일부 작업용 창고가 위치함</p>
생활경관			<p>▶ 아파트와 창고형 공장이 우점하여 전형적 농촌마을의 경관 부재</p>

그림 4-8 음봉면 덕지리 경관현황

신창면 행목리는 아파트 건물과 기존 마을의 낮은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주변의 논, 밭, 배후구릉 등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은 도시적 디자인이면서 지역마다 다른 산발적 디자인의 형태로 입지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 또는 고유이미지 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연경관				<p>대체적으로 평탄하며, 일부 낮은 구릉형성, 저수지 위치</p>
생산경관				<p>논과 일부 밭이 혼재되어 있으며, 작은 비닐하우스 및 창고형 시설이 위치</p>
생활경관				<p>농가주택과 아파트단지의 혼재</p>

그림 4-9 신창면 행목리 경관현황

(2) II유형 : 인구 및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화 및 인공구조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염치읍 송곡리는 정비된 아파트지역과 기존마을의 낡은 주택지가 완충공간 없이 혼재하여 경관적으로 대비되며, 가로수 등은 잘 정비되어 대체로 양호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경작지와 도로 경계부 펜스 노후화,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의 경관성은 낮아 보인다.



그림 4-10 염치읍 송곡리 경관현황

탕정면 호산리는 아파트, 상가, 기타 시설들 대부분이 농촌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발적 건설이 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이 색채, 크기, 위치 등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디자인성이 낮다.



그림 4-11 탕정면 호산리 경관현황

둔포면 신남리는 서북측에 평택호가 위치하며, 일부 낮은 구릉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특색 없는 가로와 농경지내 원색지붕의 건물, 곳곳에 산발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개별 공장 등이 도시근교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4-12 염치읍 송곡리 경관현황

인주면 결매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일부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신축 건물들이 입지하여 기존의 주거지역과 대조적인 모습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마을의 주택은 전통지붕 형태이나 원색의 색채로 주변경관에 조화롭지 못하다.



그림 4-13 인주면 결매리 경관현황

(3) Ⅲ유형 : 인구 및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및 인공구조물의 비율이 낮은 지역

배방읍 갈매리는 하천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주로 논농사와 일부 밭농사가 이뤄지고 있다. 신축아파트와 기존 저층주택이 혼재된 농촌마을 경관 형성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 진입로 등이 정감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그림 4-14 배방읍 갈매리 경관현황

(4) Ⅳ유형 : 인구 및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화 및 인공구조물의 비율이 낮은 지역

송악면 역촌리는 면소재지 지역으로 기성시가지가 존재하고, 대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또는 옥외광고물의 색채 및 형태가 주변자연경관을 배려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5 송악면 역촌리 경관현황

영인면 구성리는 기존마을의 진입로, 마을내부 담장밑 화단, 농경지 등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마을 회관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은 특색 없이 들어서 있다. 또한 낡고 정비되지 않은 농촌시설이 산재해 있어, 주변자연 경관과 부조화되고 단조로운 느낌의 경관을 나타낸다.



그림 4-16 영인면 구성리 경관현황

선장면 신동리는 낮은 구릉과 논, 소박한 마을길과 전통가옥 등이 존재하여 전형적인 농촌 마을경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인근에 개별공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17 선장면 신동리 경관현황

도고면 신언리는 면소재지 지역으로 기성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점점 쇠퇴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토지의 대부분이 논이며, 일부 산지 자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도고온천역과 돌담, 한옥 등의 일부 경관자원이 눈에 띄나, 대부분이 낡고 특색 없는 경관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연경관			▶ 정자목이 마을내 존재하며, 낮은 구릉이 배후에 위치	
생산경관			▶ 넓은 논과 콘크리트 농로의 단조로운 경관	
생활경관				▶ 도고온천역, 돌담, 한옥 등 일부 소박한 자원 존재하나, 주로 낡고 특색 없는 경관형성

그림 4-18 도고면 신언리 경관현황

3) 주거환경

조사대상지역의 주택은 일반 농가주택, 현대식 전원주택, 빌라 또는 아파트, 아파트단지 등 다양한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I 유형과 III 유형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지역은 주로 일반 농가주택과 함께 들어선 아파트단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인구밀도가 낮은 II 유형과 IV 유형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지역에서는 일반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지만 곳곳에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창면 행목리와 배방읍 갈매리에서는 현대식 단독주택과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대식 단독주택과 함께 일반 주택의 비중이 높았다.

표 4-14 주택의 유형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단독주택(전통,일반)	22.0	46.0	28.0	12.0	48.0	34.0	31.7
단독주택(현대식)	48.0	28.0	72.0	34.0	52.0	66.0	50.0
다세대 공동주택	30.0	26.0	0.0	54.0	0.0	0.0	18.3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세대 공동주택자가 많았던 배방읍 갈매리 주민들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도시적 생활수준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데에 비해 현재 개발수준이 미흡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주거환경의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편의시설 부족하다는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열악한 문화·복지·교육환경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의 노후화 및 정비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거환경 불만족의 3번째 이유에 해당되며, 실제 개발과 도시화 속에서도 일부 공간에서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후화 되고 정비를 요하는 주택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일반 농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경관이 되었지만, 개발과 도시화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고층 빌딩 및 아파트의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주민에게도 생활수준의 차이 등에서 오는 괴리감과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4-1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매우 만족	6.0	6.0	2.0	0.0	0.0	0.0	2.3
만족	78.0	88.0	54.0	14.0	62.0	70.0	61.0
보통	12.0	6.0	34.0	40.0	8.0	30.0	21.7
불만족	4.0	0.0	10.0	46.0	26.0	0.0	14.3
매우 불만족	0.0	0.0	0.0	0.0	4.0	0.0	0.7

표 4-16 주거환경 불만족의 이유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노후화 및 정비부족	17.7	10.9	25.0	24.5	19.4	19.4	19.5
양호하지 못한 문화·복지·교육환경	40.3	47.27	26.3	24.5	36.1	19.4	32.3
생활편의시설 부족	40.3	38.2	48.7	39.4	44.4	58.3	44.9
양호하지 못한 경관 및 자연환경	1.61	1.8	0.0	8.5	0.0	2.8	2.5
도시화개발 부족	0.0	1.8	0.0	3.2	0.0	0.0	0.8



그림 4-19 아파트와 대조를 이루는 농가주택(신창면 남성리, 탕정면 호산리)

3. 인문·사회적 환경 실태

1) 인구 및 주민커뮤니티

조사대상지역의 인구는 I 유형과 III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가 크거나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II유형과 IV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가 작거나 인구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7 조사대상지역의 최근 인구 변화

(단위 : 명, %)

유형	지역명	2003년	2006년	2008년	연평균 증감률
I	배방읍 북수리	3,279	5,344	11,428	28.34
	음봉면 산동리	4,729	4,616	4,888	0.66
	덕지리	2,908	2,602	5,735	14.55
	신창면 행목리	1,842	1,849	2,860	9.20
	남성리	6,474	7,353	8,789	6.31
II	염치읍 염성리	620	642	587	-1.09
	송곡리	1,983	1,930	1,848	-1.40
	탕정면 호산리	2,297	2,343	2,140	-1.41
	둔포면 신남리	950	918	938	-0.25
	인주면 갈매리	263	276	296	2.39
III	배방읍 갈매리	564	573	5,667	58.64
IV	송악면 역촌리	646	682	658	0.37
	영인면 구성리	666	644	633	-0.01
	선장면 신동리	232	410	396	11.29
	도고면 신언리	1,483	1,332	1,304	-2.54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9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최근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송악면 역촌리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전입인구의 변화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크게 증가	8.0	4.0	8.0	2.0	14.0	0.0	6.0
약간 증가	88.0	96.0	64.0	76.0	18.0	86.0	71.3
거의 없음	4.0	0.0	28.0	22.0	68.0	14.0	22.7

주민커뮤니티 측면에서 현재 주민간·이웃간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교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류와 관계가 없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혀 없어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 이외에 염치읍 송곡리, 송악면 역촌리, 도고면 신언리 등 농업·농촌적 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친밀한 교류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반면 신창면 행목리, 배방읍 갈매리 등에서는 갈등이 없지만 교류와 관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 등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서 주민커뮤니티 활동이 적은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9 주민·이웃간의 관계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우호적인 관계 유지	8.0	22.0	10.0	16.0	44.0	16.0	19.3
어느 정도의 관계 유지	74.0	72.0	72.0	46.0	54.0	78.0	66.0
교류가 없지만, 갈등도 없음	18.0	6.0	18.0	38.0	2.0	6.0	14.7
교류가 없고, 갈등이 빈번히 발생	0.0	0.0	0.0	0.0	0.0	0.0	0.0

신규 이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갈등이 없이 어느 정도의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지 배방읍 갈매리와 송악면 역촌리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수의 의견을 보였다.

표 4-20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관계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친밀한 관계 유지	4.0	28.0	18.0	2.0	22.0	14.0	14.7
어느 정도의 관계 유지	60.0	62.0	52.0	30.0	58.0	72.0	55.7
교류가 없지만, 갈등도 없음	36.0	10.0	30.0	64.0	16.0	14.0	28.3
빈번한 갈등 발생	0.0	0.0	0.0	4.0	4.0	0.0	1.3

최근 이주해온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생활(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에서 오는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생활양식(농촌-도시생활, 직업 등)의 차이에 의한 갈등, 이주민이 기존 마을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갈등(의견 충돌 등)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4-21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 원인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생활양식의 차이	2.0	30.0	22.0	0.0	18.0	18.0	15.0
생활수준의 차이	72.0	50.0	64.0	22.0	38.0	78.0	54.0
이주민의 적응부족	16.0	10.0	14.0	56.0	36.0	4.0	22.7
대화교류 단절	10.0	10.0	0.0	22.0	8.0	0.0	8.3

2) 농업 및 경제활동

조사대상지는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치읍 송곡리와 송악면 역촌리는 주 소득원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창면 행목리, 둔포면 신남리, 도고면 신언리는 농업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되 부업을 통해 약간의 농외소득을 얻고 있고, 배방읍 갈매리는 농업 이외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주된 소득원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농업소득	16.0	60.0	30.0	14.0	60.0	38.0	36.3
농업소득 + 약간의 농외소득	44.0	20.0	60.0	32.0	20.0	58.0	39.0
농외소득 + 약간의 농업소득	14.0	2.0	10.0	4.0	6.0	4.0	6.7
농외소득	26.0	18.0	0.0	50.0	14.0	0.0	18.0

직업의 구성비율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신창면 행목리와 배방읍 갈매리에서는 2·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염치읍 송곡리와 개별 공장이 많은 둔포면 신남리에서는 겸업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면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송악면 역촌리와 도고면 신언리에서는 전업농과 겸업농, 2·3차 산업 관련 직업의 증가율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주민 설문조사가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집단인 전체 주민의 소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의 특성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가 도시화·산업화를 통해 점점 겸업농이 증가하거나 농업 이외의 2·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창면 행목리와 배방읍 갈매리는 현재 겸업농 또는 농업 이외의 직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점점 2·3차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면 염치읍 송곡리와 송악면 역촌리는 아직까지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겸업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 직업구성비율의 변화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전업농 증가	2.0	8.0	8.0	0.0	28.0	26.0	12.0
겸업농 증가	34.0	58.0	54.0	36.0	38.0	30.0	41.7
2·3차 산업 증가	62.0	34.0	38.0	64.0	34.0	44.0	46.0
기타	2.0	0.0	0.0	0.0	0.0	0.0	0.3

전입인구의 직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내의 직업보다 지역 밖으로 출퇴근하는 전입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 중에서 둔포면 신남리와 송악면 역촌리, 도고면 신언리는 전입인구의 직업으로 농업 이외의 직업 다음으로 농업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해온 귀농자가 더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전입인구의 직업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농업	2.0	10.0	34.0	6.0	28.0	38.0	19.7
농업 이외의 직업 (지역내)	48.0	30.0	30.0	36.0	16.0	20.0	30.0
농업 이외의 직업 (지역외)	48.0	58.0	36.0	56.0	54.0	42.0	49.0
잘 모르겠음	2.0	2.0	0.0	2.0	2.0	0.0	1.3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토지(농경지) 소유관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외지인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방읍 갈매리와 송악면 역촌리에서는 대부분의 토지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외지인의 소유지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토

지이용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5 토지(농경지) 소유관계의 변화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지역주민 소유	0.0	2.0	20.0	4.0	0.0	20.0	7.7
대부분 주민 소유 + 외지인소유 증가	60.0	78.0	66.0	32.0	36.0	78.0	58.3
대부분 외지인소유 하고 있고 점차확대	38.0	20.0	10.0	58.0	64.0	2.0	32.0
잘 모르겠음	2.0	0.0	4.0	6.0	0.0	0.0	2.0

마지막으로, 장래 바람직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서의 농외소득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등을 통한 3차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업·농촌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둔포면 신남리와 송악면 역촌리, 도고면 신언리는 농업의 확대 육성하고 농외소득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당부분 도시개발이 진행된 신창면 행목리와 배방읍 갈매리는 3차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보였다.

표 4-26 장래 바람직한 경제활동 형태

(단위 : %)

구 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계
	행목리	송곡리	신남리	갈매리	역촌리	신언리	
농업 확대 육성	0.0	4.0	12.0	0.0	34.0	34.0	14.0
주업으로 농업, 부업으로 농외소득원 확대	22.0	36.0	54.0	14.0	24.0	54.0	34.0
부업으로 농업, 주업으로 농외소득원 확대	20.0	34.0	20.0	28.0	12.0	12.0	21.0
2차 산업의 확대	16.0	4.0	8.0	14.0	4.0	0.0	7.7
3차 산업의 확대	42.0	22.0	6.0	44.0	26.0	0.0	23.3

제5장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 및 계획과제

1. 도시근교 농촌지역 실태종합 및 문제점

본 연구(제4장)에서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물리적 환경으로써 공간개발·경관·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와 인문·사회적 환경으로써 인구·주민커뮤니티·농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간개발 현황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조사대상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개발의 현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농촌공간에 개발 및 도시화를 통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상업시설이 입지한 유형, 농촌공간에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이 입지한 유형,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상업시설 등 거점공간을 갖는 유형,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순수한 농업·농촌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농촌공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상업시설이 입지한 유형에는 배방읍 북수리, 음봉면 덕지리, 신창면 행목리, 남성리, 배방읍 갈매리가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농촌공간에 산업시설이 입지한 유형에는 음봉면 산동리, 탕정면 호산리, 인주면 갈매리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근에는 천안백석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인주지방산업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다. 세 번째, 소규모 거점공간을 갖는 유형에는 염치읍 염성리, 송악면 역촌리, 도고면 신언리가 있으며, 이들 지역은 주로 읍 또는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기성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농업·농촌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에는 둔포면 신남리, 영인면 구성리, 선장면 신동리가 있으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개발이나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한 개발 진행

조사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농지훼손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훼손과 함께 산림훼손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I 유형에 해당되는 배방읍 북수리, 음봉면 산동리, 신창면 행목리·남성리 등의 지역에서 농지훼손에 의한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III유형에 해당되는 배방읍 갈매리의 경우는 농지훼손과 함께 산림훼손에 의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지와 산림의 훼손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 물론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확장이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인 일이지는 않지만, 급격한 변화를 통한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의 정체성 상실,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혼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림 5-1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해 입지한 공장 및 아파트단지

(3) 무분별한 상업시설의 입지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

자가용의 보급과 도로망 정비에 따른 간선도로변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지 또한 경관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을 따라 형성되는 상업시설은 가구류, 의류,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등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음식점들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서고 있고, 무질서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상업시설들은 대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간선도로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기성시가지의 소규모 점포로 이루어진 상가의 쇠퇴와도 맞물려 있다. 경관적 측면에서 간선도로변 상업시설이 박스형의 건축물에 원색의 대규모 간판을 걸거나 도로변에 질서 없이 세워두는 등의 경관상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편중된 도시개발을 통해 명맥을 유지해 온 기존의 읍면 시가지의

노후화와 활력 없는 경관을 발생 시키고, 결국 이러한 구시가지의 쇠퇴는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림 5-2 무분별하게 조성된 상업시설 및 쇠퇴한 기성시가지

(4) 공장 등 무분별한 산업시설의 난립

조사대상지역 어디를 가든지 규모가 큰 산업단지에서부터 규모가 작은 개별공장까지 다양한 산업시설이 난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 농업·농촌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곳곳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농촌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별공장은 난립은 특히 아산시 북부지역과 인주지방산업단지나 탕정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농촌지역에 입지한 산업시설

(5) 이질적인 경관요소의 부조화

도시적 요소와 농업적 요소의 혼재가 야기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경관상의 문제로 농경지 바로 옆에 조성된 고층, 고밀의 아파트단지나 농촌지역의 소위 ‘나홀로 아파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에,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촉진 및 농지전용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는 용도지역 혼재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층의 아파트와 ‘나홀로 아파트’는 주변 농지나 기존 농촌마을과 이질적으로 서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산림이나 구릉지 능선을 깨고 대신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농촌지역 정주체계나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은 무시된 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농경지와 인접한 이질적 경관요소로서 공장건물도 부정적 요소로 드러나고 있는데, 주로 파란색 또는 흰색의 지붕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어울리지 않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5-4 농촌지역에 조성된 아파트

(6) 기존 농촌마을의 노후화 및 특색 없는 경관형성

도시근교지역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경관적 현상은 기존 농촌마을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정체성 상실이다.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가의 상승은 중심지역보다는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저소득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웃하여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나 이주자들의 생활과 대비되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아파트단지 뿐 아니라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들어서는 개인주택 또는 펜션도 도시근교지역에 남아있던 농촌적 요소

나 전통적 모습이나 지역의 정체성을 점차 사라지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곳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나 안내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대부분 도시적 디자인을 모방한 형태로서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동종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색채나 재료, 형태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5-5 현대식 주택과 노후화된 주택의 혼재 모습



그림 5-6 특성이 없이 조성된 공공시설물

(7)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전통 농촌커뮤니티의 붕괴

조사대상지역의 경제구조가 농업에서 겸업과 2·3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이미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있고, 점점 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업농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겸업농에서 농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겸업농으로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전입인구의 직업에 있어서도 지역외로 출퇴근하는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사회가 머지않아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화되면서 농촌사회의 경제구조가 현재보다 훨씬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농업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전통커뮤니티가 이미 상당부분 붕괴가 되었고, 이는 향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새롭게 형성될 지역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커뮤니티에 있어서 조사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특이한 갈등요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이주민이 도시개발을 통한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기존 주민의 거주지와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주민보다 새로운 이주민의 수가 훨씬 많아짐에 기존 주민이 지역의 새로운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됨에 따라 갈등의 원인조차 발생하지 않는 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농촌커뮤니티가 지녔던 친밀한 유대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생활양식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고 서로 간섭하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계획과제

1) 물리적 환경부문의 계획과제

(1)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및 친환경 개발방식으로의 전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적 행위에는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한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확대, 무분별한 상업시설과 개별공장 등의 산업시설의 난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개발방식 측면에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1960년대에 이미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의 구역구분제로 대표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제를 적용할 수 없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택지개발규제요강 등 자체 규정을 통해 개별 개발행위를 규제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요강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개발행위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을 양호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필요한 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구체화하되, 지역주민-사업자-행정 간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는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허가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조승연 외, 2009).

이과 함께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면적인 기능과 농촌어메니티를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 개발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농업활동을 통한 식량생산의 기능 및 수자원 함양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계승의 기능, 보건·휴양의 기능 등 다면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및 웰빙문화,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결

국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 개발의 유형으로서 전원도시, 생태도시, 친환경 생태마을 등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개념의 적용은 도시지역보다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개발에 접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시책중의 하나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과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관련 계획기법들의 개발·적용을 통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1 친환경 계획기법 예시

구성요소	관련 계획기법
지속 가능한 생태 및 녹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녹지환경의 형성 - 다양한 수변환경의 형성 - 생물서식환경을 보전시스템 구축
저탄소 에너지 자립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전기구 및 절전시스템 도입 - 열회수시스템 및 지역냉난방시스템 도입 -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메스 등 대체에너지 활용
물 순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의 저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지표의 투수화 및 침투시설 정비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의 촉진
녹색마을 정보화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IT 도입 - 녹색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2) 농촌경관 관리기준 강화 및 적극적인 경관개선 프로그램 마련

도시근교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경관의 실태분석을 해 본 결과 도시화 정도나 인구밀도에 크게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경관상의 문제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경지와 인접하여 아파트단지나 공장 등이 들어서서 기존 농촌지역에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도로망 확충에 따라 간선도로 등 도로변을 따라 들어서는 상업시설이 건축물 형태나 옥외광고물 등이 경관적 고려 없이 생겨날 뿐 아니라, 기성시가 내부 상가는 반대로

노후화되고 활력을 잃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은 진입로나 담장 등 아직 농촌다운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의 보전적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파트단지 등의 도시적 주거환경과 대비되는 괴리감 증대와 함께 더욱 노후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근교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도시적 형태를 띠거나 저급한 디자인성을 띠고 산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도시근교지역에서 보여지는 경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업적 토지이용의 혼재에 따른 경관훼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완충공간 또는 완충기법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질적 경관요소의 조화성이나 파괴된 경관 맥락을 복원하는 계획 또는 디자인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간선도로변을 따라 들어서는 상업시설의 입지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경관향상 방안, 기성시까지 가로 개선이나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

셋째, 도시근교지역 기존 마을의 소박한 경관이나 전통요소가 보전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검토되어야 하고, 현행 경관법의 경관협정 등을 운용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등의 기법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위 모든 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경관계획⁸⁾의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관관리 및 형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도시근교지역의 경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며, 경관은 시각상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 및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비롯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삶의 질,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정주체계,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총체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8)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관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법률에 따라 장점과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경관계획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의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나 권역, 마을 등의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법’에서 제안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 수 있다(김충식 외, 2009).

2) 인문·사회적 환경부문의 계획과제

(1) 지역정체성 확립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근교 농촌지역 중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을 통해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다세대 공동주택의 조성을 통하여 신규 전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다양한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의 입지를 통하여 기존의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산업구조가 2·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농업 이외의 산업으로 흡수되거나, 신규 구성원의 증가로 오히려 기존 구성원의 존재감이 약화되거나 서로 간에 단절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 지역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전통 농업·농촌공동체가 서서히 붕괴되고, 도시에서부터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 곳곳에서 생활양식의 차이나 생활(소득)수준의 차이 등에 의한 갈등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 곳곳에 무분별하게 자리한 상업시설이나 개별 공장 등의 산업시설이 농촌의 특성을 무시하고 경관적으로나 자연생태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활동의 다각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혼재(混在)·혼주(混住) 현상은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상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닌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변화를 수용하면서, 현재 단절되거나 갈등구조가 되어가는 주민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계획과제라 할 수 있다.

(2)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가치 및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필요

지금까지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확장 및 산업개발의 수요를 위해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고유 농촌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현재의 실정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하고 재평가

함으로써 변화와 혼란의 지역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공생(共生)하고 상생(相生)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도시근교 농촌지역이 갖는 가치 및 잠재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교농업의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의 가능성이 높다. 도시근교농업(Suburban Agriculture)이란 도시에 출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소, 과수, 화훼 등을 재배하는 고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가까운 장소에서 행하는 집약적 농업을 의미한다(유병규, 2000a). 도시근교농업은 대부분 시설원예가 주류를 이루며 과수, 화훼농업의 형태도 가능하다. 도시근교농업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약적인 농업 경영이지만, 토지면적당 단위생산량이 높고 시장이 가까워 수송비가 적게 들고 시장의 수요경향의 파악이 용이해 빠른 대응과 전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도시근교농업은 시설원예를 통하여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시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 시기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불안정한 농작물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유병규, 2000b, 박부용 외, 2006),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5도2촌 등 도농교류의 거점 형성할 수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있어 5도2촌, 농촌체험관광, 자매결연 활동 등의 도농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민이 농촌을 찾을 때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농촌으로의 접근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농교류 운영측면에 있어서 시장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최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시민에게 휴식·여가선용이나 전원주택 등 전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말·휴일 등을 활용하여 자연이나 전원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선용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도시주변에 위치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발과 도시 확장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이 혼재(混在)되고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混住)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혼재·혼주의 현상이 대도시 근교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즉, 도시적 환경과 농업·농촌적 환경의 혼재에 따라 토지이용 및 경관형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혼주 함으로서 영농활동의 악화, 농촌공동체의 붕괴,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커뮤니티 갈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관련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의 도시적 편리성과 농촌적인 쾌적함이 조화된 공생적인 생활양식의 사회·공간으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혼재·혼주의 무질서한 공간에서 도농이 상생(相生)하고 공생(共生)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향후의 계획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 토지이용, 공간구조 등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변화 동향 및 특징을 제시하였고, 둘째,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 실태(공간개발, 경관, 주거환경 등) 및 인문·사회적 환경 실태(인구, 주민커뮤니티, 농업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를 조사하여 혼재·혼주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상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읍면 수준에서 인구 및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증감률, 농가인구비율, 농가인구증감률, 농가 및 전업농가비율 등 7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화 지역에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신창면, 도농복합지역에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 농촌지역에 송악면, 영인면, 선장면, 도고면으로 11개 읍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법정리 수준에서는 인구 및 인구밀도, 산림지역 비율 및 산림면적 증감, 농경지 비율 및 농경지 면적 증감, 도시 및 인공구조물 비율, 도시 및 인공구조물 면적 증감, 중심성 및 중심성 증감, 전체 접근성 및 전체 접근성 증감, 국부접근성 및 국부접근성 증감 등 14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6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변수를 그룹화 시키고, 그룹화 된 요인별로 군집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143개 법정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6개의 요인은 인구현황, 산림 및 농경지 현황, 산림 및 농경지 변화, 도시화 및 공간구조 현황, 공간구조변화, 전체 접근성 현황으로 구분된다.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현장방문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등을 바탕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부문과 인문·사회적 환경부문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장 방문조사는 15개를,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는 6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공간개발 현황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농지 및 산림훼손을 통한 개발 진행, 무분별한 상업시설의 입지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 공장 등 무분별한 산업시설의 난립, 이질적인 경관요소의 부조화,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전통 농촌커뮤니티의 붕괴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및 친환경 개발방식으로의 전환, 농촌경관 관리기준 강화 및 적극적인 경관개선 프로그램 마련, 지역정체성 확립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가치 및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등 물리적·인문·사회적 환경부문에 관한 4가지의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발생하는 문제점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세한 현장중심의 연구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금후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산시 읍면을 대상으로 시계열적 변화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계획수립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또한 최근 읍면과 법정리의 개발에 따른 변화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에서 소외되었던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였고,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제기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적 관점에서 중요한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당초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표준적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계획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실태 및 문제점, 특징 등이 정량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표준적인 유형 구분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둘째, 사례지역이 전체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으로서 아산시를 선정하였고, 아산시의 몇몇 리를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는데, 선정된 리지역이 아산시 전체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아산시가 다른 시·군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 취득의 한계와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리별 인구변화, 리별 농가인구 및 농가경제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 취득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이외에 현장조사,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금후의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옥 · 윤정미 · 조영재, 2009,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충청남도 북부권의 공간구조 변화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2009-12
- 김유일 · 이애란, 1997, “도시근교농촌의 토지이용 및 경관의 변화”, 농촌계획, Vol.3, No.2, pp.71~80
- 김주숙 · 김은영, 2003, “도 · 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3집, 1호, pp.85~114
- 김충식 ·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 15, No. 3, pp.11~22
- 김홍관 · 강기철, 2006, “ArcView를 이용한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권, 2호, pp.217~226
- 박부용 · 강혜정, 2006,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근교농업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pp.75~92
- 박선형 · 김재익, 2007, “대도시 주변 신개발지의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사례 지역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권, 2호, pp.35~45
- 박소영 · 전성우 · 최철웅, “행정구역 위계별 도시성장 패턴 및 특성 분석 - 1985~2005를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권, 4호, pp.34~47
- 박양춘 · 우종현, 2001,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 대구광역시 문산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21~34
- 배청 외, 1996,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정비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실태 조사 ·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6-17
- 성훈자 · 임익성, 2007, “천안시 토지이용의 시 · 공간적 변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57~66
- 아산시, 2008, “아산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
- 오내원 외, 2001, “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병규, 2000a, “대구광역시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유병규, 2000b, “도시근교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공간 활용”, 농촌사회, 제10집, pp.37~70
- 이병기 · 김창식, 2004, “대도시 영향권 중첩농촌지역의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1호, pp.3~20
- 이영교, 1997, “도시 · 농촌 접경지역의 환경에 관한 연구”, 법정연구, 제3호, pp.133~147
- 장동현, 2009, “농지전용이 농촌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를 사례로”,

- 농촌사회, 제19집, 1호, pp.213~239
- 장동현 외, 2007, “도시내 농촌동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사례로”, 농업생명과학연구, 제38집, pp.77~100
- 전병혜 · 이명훈 · 서명중, 2008, “지가분포의 변화고찰을 통한 교외화 특성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사례로 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33~148
- 정명채 외, 1996,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근교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 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승연 · 서순탁, 2009, “일본의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허가제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1호, pp.93~116
- 최열 · 김지현 · 이규환, 2003, “교외 주거지역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도시연구보, 제14호, pp.11~23
- 최열 · 신현목 · 유숙향, 2003, “대도시 주변 소도시의 도시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도시연구보, 제14호, pp.67~76
- 충남발전연구원 역, 2009, “러번디자인 - 농촌과 도시의 공생”, 푸른길
- 황한철 · 고영배, 2007, “도시화에 따른 농촌토지이용구조변화 분석”, 농촌계획, Vol.13, No.2, pp.85~92

R. J. Pryor, 1968, "Defining the rural-urban fringe", Social Forces, Vo.47, pp. 202~215

C. J. Bryant, L. H. Russwurm and A. G. McLellan, 1982, "The city's countryside: Land and its management in the rural-urban fringe", Longman Group Limited

日本建築學會、2007、「ラバンデザイン都市・農村のまちづくり」、技報堂出版

무 료

부 록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주민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아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2010년 11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변이 연구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충남발전연구원장

※ 회답 및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조영재
Tel/Fax : 041-840-1135/1159
E-mail : choyj@cdi.re.kr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주 소	아산시 동/읍/면 리		
직 업	① 농업 ② 제조업 ③ 상업 및 서비스업 ④ 공무원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 : _____		
거주 기간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20년 ④ 20년~30년 ⑤ 30년 이상		

□ 공간개발 및 경관

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을 정의한다면 어떠한 성격을 갖는 지역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도시지역 ② 도시화 진행지역
③ 도시·농촌 복합지역 ④ 전형적인 농촌지역
⑤ 도시도 농촌도 아닌 기타 지역 (예 : 산업단지 등)

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은 과거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 ①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졌음 ② 중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졌음
③ 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졌음 ④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2-1. 개발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illegible]

3.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개발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자연환경 파괴 ②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 경관형성
③ 무계획적인 개발(난개발) 진행 ④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개발 진행
⑤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없음
⑥ 기타 :

5.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에서 존재하는 경관요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산림 및 임야
 - ② 농경지
 - ③ 하천 및 저수지
 - ④ 과수원 및 목장(축산단지 등)
 - ⑤ 전통 및 일반 농가주택
 - ⑥ 현대식 전원주택
 - ⑦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단지
 - ⑧ 공장 또는 산업단지
 - ⑨ 상가 등 상업시설
 - ⑩ 술집 등 유흥시설
 - ⑪ 대형 할인마트(E-마트 등)
 - ⑫ 모텔 등 숙박시설
 - ⑬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공서
 - ⑭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지
 - ⑮ 공동묘지 또는 장례시설

5-1. 지역(마을)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혐오시설, 유해시설 등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6. 향후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① 모든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의 모습(자연환경, 농촌경관 등)을 보전하여야 함
- ② 기존 농촌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소규모의 개발은 계속 추진되어야 함
- ③ 기존 농촌의 모습이 훼손되더라도, 현재 보다 많은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④ 주택단지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의 개발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⑤ 기타 : _____

☐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7.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전통가옥 또는 일반농가주택) ② 단독주택(양옥집, 전원주택 등 현대식 가옥)
- ③ 다세대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 ④ 기타 : _____

8.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1.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주거시설의 노후화 및 정비 부족 ② 양호하지 못한 문화·복지·교육여건
- ③ 생활편의시설 부족 ④ 양호하지 못한 경관 및 주변 자연환경
- ⑤ 도시화 및 개발 부족 ⑥ 기타 : _____

9.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최근 인구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② 인구가 약간 증가하였음
- ③ 인구가 약간 감소하였음 ④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9-1. 현재 주민간·이웃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친밀한 교류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② 어느 정도의 교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③ 교류와 관계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님
- ④ 교류와 관계가 전혀 없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10.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에서 최근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 ① 이주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② 이주민이 약간 증가하고 있음
- ③ 이주민이 거의 없음

10-1. 새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축산, 시설원예 등 포함) ② 농업 이외의 직업(지역내의 직업)
- ③ 농업 이외의 직업(외지로의 출퇴근) ④ 잘 모르겠음

10-2. 새로 이주해온 이주민과 기존 (농촌)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서로 잘 융화되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②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교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③ 교류와 관계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님
- ④ 이주민과 기존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10-3. 최근 이주해온 이주민과 기존 (농촌)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생활양식(농촌-도시생활, 직업 등)의 차이에 의한 갈등
- ② 생활(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 및 갈등
- ③ 이주민이 기존 마을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갈등(의견 충돌 등)
- ④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 단절에 의한 갈등
- ⑤ 기타 : _____

☐ 농업 및 경제활동

1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축산, 시설원예 등 포함)소득이 대부분을 차지
- ② 농업소득이 주된 소득원이고, 부업을 통해 약간의 농외소득 획득
- ③ 농업 이외의 소득이 주된 소득원이고, 부업을 통해 약간의 농업소득 획득
- ④ 농업 이외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

11-1. 또한, 최근 지역(마을) 주민의 직업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① 전업농이 증가함 ② 겸업농이 증가함(농업 + 농업외 직업)
- ③ 2차3차 산업 관련 직업이 증가함 ④ 기타 : _____

1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토지(농경지 등) 소유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토지를 지역(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음
- ② 대부분의 토지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점차 외지인의 소유지가 증가하고 있음
- ③ 대부분의 토지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외지인의 소유지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④ 잘 모르겠음

1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장래 바람직한 경제활동 형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의 확대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서의 농외소득원 확대
- ③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주업으로서의 농외소득원 확대
- ④ 공장 또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통한 2차 산업의 확대
- ⑤ 도시개발 등을 통한 3차 산업의 확대
- ⑥ 기타 : _____

1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을)에서 개발 또는 도시화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장래 지역(마을)의 발전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감사 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조영재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 교수

(주)생태공간 경관연구소 윤진옥 소장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박지혜 연구원

기본연구 2010-06 ·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글쓴이 · 조영재, 장동호, 윤진옥, 박지혜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02(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40-3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